

연구보고 2013-20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

머 리 말

영유아 시기는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이 후 삶의 모습에 대한 기저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 시기 자체의 행복 추구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영유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꼽는다면 주양육자인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부모 역할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 나아가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역량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기관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에게도 계층에 상관없이 보육비를 지원함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나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부모와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부모역량이 더욱 필요하며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부모역량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영유아의 행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역량이 중요하다.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은 영유아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부모역량의 개념과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역량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자녀 양육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영아부모용, 유아부모용)를 개발하였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파악한 부모역량 실태가 부모 개인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되며 정부의 정책을 위해서는 영유아 행복과 부모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2
4. 연구의 제한점	19
II. 연구의 배경	20
1. 영유아 행복의 정의 및 중요성	20
2. 부모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26
3. 부모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
4. 부모역량에 관한 평가	35
5. 부모역량에 관련된 정책 현황	43
III.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개발	51
1. 국내·외 관련 지표 분석	51
2. 부모역량 요구 분석	64
3. 부모역량 영역·문항 구성	77
IV.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	90
1. 부모역량의 성격·영역별 실태	90
2. 부모역량의 문항별 실태	103
3. 부모역량의 성격 및 영역 간 관계	130
4. 소결	132
V.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134
1. 기본 방향	134
2.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137
참고문헌	144

Abstract	150
부록	153
부록 1.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문항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155
부록 2 영유아 행복을 위한 Self-체크리스트(영아부모용)	166
부록 3 영유아 행복을 위한 Self-체크리스트(유아부모용)	173

표 차례

〈표 I-3- 1〉 교사·원장면담 참석자의 일반적 배경	12
〈표 I-3- 2〉 부모면담 참석자의 일반적 배경	13
〈표 I-3- 3〉 의견조사 참여 전문가집단의 전공별 분류	14
〈표 I-3- 4〉 부모 대상 설문 내용	14
〈표 I-3- 5〉 부모 대상 설문 응답자 세부 특성	16
〈표 I-3- 6〉 연구 개요	18
〈표 II-2- 1〉 부모역량의 구성요소	29
〈표 II-4 1〉 부모역량 평가의 효과 및 제한점	35
〈표 II-4 2〉 Reder와 Lucey의 부모역량 평가를 위해 수정된 틀	39
〈표 II-4 3〉 Azar의 양육능력 평가 내용	41
〈표 II-4 4〉 토론토 양육능력 지침	42
〈표 II-5- 1〉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지역별 분포 현황	43
〈표 II-5- 2〉 학부모지원센터의 부모역량 관련 업무	44
〈표 II-5- 3〉 유아교육진흥원 부모역량 관련 업무	45
〈표 II-5- 4〉 보육정보센터 지역별 분포 현황	46
〈표 II-5- 5〉 전국 보육정보센터 부모역량 관련 업무	46
〈표 II-5- 6〉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48
〈표 II-5- 7〉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역량 관련 업무	49
〈표 II-5- 8〉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역량 프로그램 예시	49
〈표 III-1- 1〉 OECD 아동웰빙지표	52
〈표 III-1- 2〉 OECD 국가 간 아동웰빙 비교	53
〈표 III-1- 3〉 UNICEF 아동복지 지표	56
〈표 III-1- 4〉 UNICEF 아동복지 지표 국제비교	58
〈표 III-1- 5〉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	63
〈표 III-2- 1〉 기분이 좋았던 경험에 대한 유아의 답변	74
〈표 III-2- 2〉 속상하거나 기분 나빴던 경험에 대한 유아의 답변	76
〈표 III-3- 1〉 국내·외 지표로부터 영유아 부모역량 영역 추출	78
〈표 III-3- 2〉 부모역량 영역별 예상 문항 수	79

〈표 III-3- 3〉 영유아 발달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80
〈표 III-3- 4〉 건강과 안전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81
〈표 III-3- 5〉 가족관계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83
〈표 III-3- 6〉 물리적·물질적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84
〈표 III-3- 7〉 놀이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86
〈표 III-3- 8〉 생활지도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87
〈표 III-3- 9〉 지역사회 연계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88
〈표 III-3-10〉 체크리스트 영역별 신뢰도 분석	89
〈표 IV-1- 1〉 영역별 전반적 현황	92
〈표 IV-1- 2〉 영아 부모 대상 영역별 전반적 현황	94
〈표 IV-1- 3〉 유아 부모 대상 영역별 전반적 현황	96
〈표 IV-1- 4〉 역량 종류별(인식·실행·성장) 전반적 현황: 공통문항	97
〈표 IV-1- 5〉 역량 영역별·종류별 전반적 현황: 영아	99
〈표 IV-1- 6〉 역량 종류별(인식·실행·성장) 전반적 현황: 영아	100
〈표 IV-1- 7〉 역량 영역별·종류별 전반적 현황: 유아	101
〈표 IV-1- 8〉 역량 종류별(인식·실행·성장) 전반적 현황: 유아	102
〈표 IV-2- 1〉 영유아 발달: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103
〈표 IV-2- 2〉 영유아 발달: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104
〈표 IV-2- 3〉 영유아 발달: 문항별 응답률 현황	105
〈표 IV-2- 4〉 영유아 발달: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106
〈표 IV-2- 5〉 건강과 안전: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106
〈표 IV-2- 6〉 건강과 안전: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108
〈표 IV-2- 7〉 건강과 안전: 문항별 응답률 현황	109
〈표 IV-2- 8〉 건강과 안전: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110
〈표 IV-2- 9〉 가족관계: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111
〈표 IV-2-10〉 가족관계: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112
〈표 IV-2-11〉 가족관계: 부모역량 문항별 응답률 현황	113
〈표 IV-2-12〉 가족관계: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114
〈표 IV-2-13〉 물리적·물질적 환경 :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115
〈표 IV-2-14〉 물리적·물질적 환경: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116
〈표 IV-2-15〉 물리적·물질적 환경: 문항별 응답률 현황	117

〈표 IV-2-16〉 물리적·물질적 환경: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119
〈표 IV-2-17〉 놀이: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120
〈표 IV-2-18〉 놀이: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120
〈표 IV-2-19〉 놀이: 문항별 응답률 현황	121
〈표 IV-2-20〉 놀이: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123
〈표 IV-2-21〉 생활지도: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124
〈표 IV-2-22〉 생활지도: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125
〈표 IV-2-23〉 생활지도: 문항별 응답률 현황	125
〈표 IV-2-24〉 생활지도: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126
〈표 IV-2-25〉 지역사회 연계: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127
〈표 IV-2-26〉 지역사회 연계: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128
〈표 IV-2-27〉 지역사회 연계: 문항별 응답률 현황	129
〈표 IV-2-28〉 지역사회 연계: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130
〈표 IV-3- 1〉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 간의 상관관계	131
〈표 IV-3- 2〉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성격 간의 상관관계	132
〈표 V-2-1〉 영역별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내용 제안	139
〈표 V-2-2〉 부모교육 대상별 방법 및 주요 부처	141

그림 차례

[그림 III-1-1] OECD 국가 가계 실질 소득 비교 (0-17세 영유아 및 청소년 가정)	54
[그림 III-1-2] OECD 국가 영유아 홍역 예방접종 비율	54
[그림 III-1-3] OECD 국가 한주동안 신체활동에 매일 참여한 영유아 비율	55
[그림 III-1-4] OECD 회원국 아동의 물질적 복지 개요	59
[그림 III-1-5] 부모와 일주일에 5-6회 정도 식사를 같이 하는 15세 비율	59
[그림 III-1-6]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비교	62
[그림 III-1-7]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 한국·우간다·스페인	62
[그림 III-2-1] 기분이 좋았던 경험에 대한 유아의 그림	75
[그림 III-3-1] 부모역량 영역별 구성 비율	79
[그림 IV-1-1] 부모역량의 영역별 비교	91
[그림 IV-1-2] 역량 종류별(인식, 실행, 성장)에 따른 영역 점수 비교 - 공통문항	98
[그림 V-2-1]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단기·중기 정책 방안	137
[그림 V-2-2]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결과 예시	138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 영유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양육자인 부모임.
 - 영유아 시기의 부모 역할은 영유아의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임.
 -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율이나 기관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부모의 영향력이나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지금까지의 부모역량 제고는 일반 학부모보다는 주로 취약 계층이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위주로 이루어져 옴.
 -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이 결핍모형에 의존하거나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서 영유아보다 성인 관점으로 접근하였음.
 - 영유아의 권리나 웰빙, 행복 측면에서 부모역량에 대한 고려나 부모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확대가 중요한 시점에서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부모의 적극적인 자기인식과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나. 연구내용

- 부모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부모역량의 정의 및 범주, 구성요소를 확인하여 기존 부모역량의 핵심요소를 추출함.
- 기존 부모역량의 범주 및 구성요소와 영유아의 행복과 관련된 국내외 지표(OECD 아동웰빙지표, UNICEF 아동웰빙지표,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영역을 구성함.

-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을 영아와 유아에 따라 차별화하여 개발함.
-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영유아 부모의 부모역량 실태를 파악함
-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현황을 토대로 부모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함

다. 연구방법

- 선행연구를 통해 영유아 행복의 중요성, 부모역량의 정의, 범주, 세부내용을 알아보았으며 부모역량에 대한 진단 내용, 진단 방법, 부모역량을 평가하는 사례를 조사·분석함.
 - 부모역량과 영유아 행복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고 부모역량의 영역과 구성요인, 문항을 도출함.
- 부모역량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전·후에 필요한 부모역량을 진단하고 문항을 검토함.
 - 영유아 부모 13명(총 4회 면담), 부모역량 관련 전문가 6명(총 3회 면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7명(총 2회 면담), 유아 4학급(만 4·5세 대상, 총 4회 면담)을 면담함.
- 부모역량 실태 파악을 위한 Self-체크리스트의 영역과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 유아교육·보육, 상담, 사회복지 전공자 48명이 참여하여 체크리스트 최종 문항을 선정함.
-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영유아 부모 총 1,000명(아버지 420명, 어머니 580명)을 대상으로 함.
 - 부모역량을 총 7개 범주로 나누고 각 영역 당 인식, 실행, 성장역량에 해당하는 총 69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영유아 부모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내용 선정, 부모역량을 평가하는 Self-체크리스트의 영역 및 문항 구성, 부모역량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선정, 부모역량 분석,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자문회의를 실시함.

2. 연구의 배경

가. 영유아 행복의 정의 및 중요성

- 대다수 학자들이 행복을 긍정적 정서 혹은 만족 등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거나 느끼는 좋은 감정으로 정의하는 추세임.
 - 영유아의 행복감을 생활환경, 자아특성, 대인관계, 생활 만족 등 삶의 전반에서 느끼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유아 행복에 관련된 지표를 보면 영유아 웰빙이나 복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적 요인을 다루고 있음.
- 영유아의 행복감이란 영유아가 매일의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만족스러운 감정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영유아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관적 정서와 함께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사회의 안녕보장을 위해 영유아 행복의 중요성은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할 필수 과제임.

나. 부모역량의 정의 및 구성요소

- 부모역량은 부모(주양육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말함.
 - 양육에 관한 가치관이나 동기와 같은 내적요인을 포함하고 있음.
 -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따라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함
- 부모역량으로 양육에 관한 지식, 능력, 태도가 대표적으로 꼽힘.
 -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외에도 자녀를 수용하기와 같은 내현적 기술을 포함하며 양육에 대한 만족감, 자신감이나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양육효능감도 양육역량에 포함됨.
 - 부모의 성장의지나 노력을 보여주는 성장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다. 부모역량에 관한 평가

- 부모역량에 대한 평가는 부모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양육태도를 인식하는 목적을 가짐.
- 부모역량 진단은 부모-영유아 상호작용 관찰, 체크리스트, 부모와의 면담, 유아와의 면담, 다른 중요한 인물과의 면담, 기록이나 이력 검토를 통해 이루어짐.

라. 부모역량 강화 관련 정책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
 -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나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교육의 핵심적 주체로서 부모 역할을 강조하며 부모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건전한 학부모 교육관 정립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녀양육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부모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주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영유아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기관과 연계한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별로 가족의 형성과 확대·축소에 따라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는데 가족돌봄지원이나 가족교육상담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부모역량 제고에 관련된 업무임.

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개발

가.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 도출

-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행복에 관련된 국제지표를 분석함.
 - OECD 국가 간 아동웰빙 비교, UNICEF 아동복지 영역별 순위,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 분석을 통해 영유아 행복을 위해 필요한 부모역량 영역을 도출함.

- 국제지표 분석을 통해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으로 추출된 영역은 총 7개 영역임.
 - 국제지표로부터 물리적·물질적 환경, 건강과 안전, 놀이, 생활지도, 가족관계 영역이 추출됨.
 - 국제척도에 비해 적극적으로 부모역량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연계와 영유아 발달 이해라는 영역을 추가함.
- 부모역량을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었음.
 - 실행 영역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은 부모의 인식이나 신념보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부모역량을 파악하고자 한 것임.
 - 주로 부모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인식, 실행역량 외에 성장역량이 추가되었음. 이는 부모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진단함.

나.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문항 선정

- 부모역량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영유아 부모, 교사, 유아를 면담함.
 - 유아 면담을 위해 대집단면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한 개인면담, 그림그리기 등을 통하여 유아의 의견을 반영함.
- 전체 68문항으로 가족관계에 가장 많은 문항인 16문항이 배당되었으며 건강과 안전,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유아 발달,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 순으로 문항수를 배분함.

4.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

가. 전반적 현황

- 영역별 전반적 현황을 보면, 영유아 발달과 건강과 안전에 해당하는 점수가 4.1점으로 가장 높고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가 3.8점으로 가장 낮음.
 - 부에 비해 모의 점수가 높았으며 부모연령에 따라 34세 이하인 경우보다 34세 이상의 경우 부모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가구소득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구분한 결과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

나 대개 가구소득 순으로 부모역량이 나타남.

- 부모의 취업유무별로는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부의 경우 미취업부에 비해 점수가 높으나 모의 경우 취업유무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음.

부모역량 성격별로 인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실행, 성장 순으로 나타남.

- 건강과 안전과 지역사회 연계를 제외한 영역에서 인식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는 실행역량,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성장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나. 영역별 부모역량 실태

영유아 발달 영역의 인식역량은 부모다 모,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역량수준이 높음. 실행, 성장역량은 인식역량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적을수록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 부모다 모,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역량이 더 높음. 지역규모가 클수록 실행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부모 각각의 취업유무나 형태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음.

가족관계 영역에서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한 부모 및 긍정적인 부모 자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온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태도로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저연령, 고소득 집단에서 보다 행복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성장역량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적임.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역에서 부모의 연령, 가구소득수준에서 실행, 성장역량의 문항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놀이 영역은 부모변인에 따라 다른 영역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 아이와의 놀이시간을 중시하는 성장역량은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비취업모에서 높게 나타났음.

생활지도 영역 중 성장역량이 부모의 성차,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다 모,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장역량이 높았으며, 인식과 실행역량 역시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 취업부모나 시간제 취업모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자녀 또래 부모와 교류하는 역량, 기관에 참여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부모변인은 타 영역의 패턴과 유사함.

5.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가. 기본 방향

- 영유아의 행복을 강조함.
 -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역량 지원을 위해서 영유아의 행복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부모의 반성적 사고 및 자발적 의지 강화가 중요함.
 - 부모가 타인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부모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부모역량으로 실행 및 성장역량 강화가 필요함.
 - 인식역량에 비해 실행이나 성장역량이 부족하며 지식과 실천 사이의 연결을 위해 실행, 성장역량의 강화가 필요함.
- 아버지교육 및 참여가 필요함.
 - 육아에 대한 아버지 참여를 높이고 부모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버지의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함.
- 부모 상황을 고려한 부모교육이 필요함.
 - 부모 개인의 변인별 차이를 보다 민감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함.
- 부모교육 및 참여에 대한 부모의 접근성을 높임
 - 부모교육 및 참여의 효과를 인식하고 재참여의 기회를 마련함
-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
 - 부모교육은 부모 개인과 자녀를 위함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 또는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한 성인 세대의 의무이며 투자임.

나.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단기, 중기 전략으로 정책 로드맵을 추진함.

- 단기 전략으로 Self-체크리스트 배포 및 활용,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 대상자를 확대한 부모교육 실시, 다양한 종류의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안함.
- 중기 전략에는 부모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관리체제 구축과 같은 부모교육 내실화, 부모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평생교육으로서의 부모교육 확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행복에 가치를 두는 사회로의 변화가 포함됨.

□ 영유아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세부정책 방안을 제안함.

- Self-체크리스트를 온라인이나 지역사회 기관 및 부모교육 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함.
- 영유아 행복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내용을 제안하며 부모와 영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부모교육 대상자를 확대하여 예비부모나 대학생, 군인이나 보육기관 종사자 등을 부모교육에 참여시킴.
- 부모교육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관을 통한 부모의무교육을 제안하며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지역 기반이나 직장 기반의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이용함.
- 부모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강사 교육이나 관리 체제가 필요하며 강사나 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함.
- 부모교육을 평생교육 측면에서 접근하며 유아의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제공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영유아 시기는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이후 삶의 모습에 대한 기저가 된다는 측면에서 강조되어왔지만 이러한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영유아 현재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이 고안되고 있지만 영유아의 행복 자체에 대한 논의는 특히 정책 연구에서 흔치 않아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영유아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영유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환경이며 그 중에서도 주 양육자인 부모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의 부모 역할은 다른 시기보다 자녀의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부모 역할의 유형, 부모와의 상호작용 빈도나 질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주·김은영·황인주·이승미,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의 부모역량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녀를 부모의 부속물이 아닌 완전한 인격체로 대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영유아 개인의 정서나 자신에 대한 인식, 타인과의 관계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기관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에게도 계층에 상관없이 보육비를 지원함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율이나 기관 이용시간의 확대가 부모의 영향력이나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OECD, 2012). 오히려 부모와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부모역량은 더욱 필요하며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부모역량을 요구한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헌신은 다른 가치에 비해서 강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종속적이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의 과도한 허용이 영유아의 자율적 통제력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며, 기관 이용 및 대리 양육 증가로 부모의 책임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역량 부족은 기본적으로 영유아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건강한 가족 가치의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모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학계에서나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부모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부모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분석하고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고, 부모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정계숙·김정혜·김미정, 2003).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모역량 제고는 일반 부모보다는 주로 취약 계층이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부모역량 강화의 대상이 주로 장애아를 가진 부모(강혜원·박지연, 2011; 박재국·서보순·김혜리, 2011), 다문화가정 부모(강기정, 2009; 이명숙, 2011; 최애경, 2012), 한부모 가정 등인 것을 보면 역량 강화가 결핍 모형에 의존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권리나 웰빙, 행복 측면에서 부모역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부모역량 관련 연구가 대부분 양육지식이나 양육태도, 의사소통이나 놀이 방법 등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양육에 관련된 부모의 지식, 능력, 태도가 강조되었으나 영유아의 궁극적 존재 가치인 행복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확대가 중요한 시점에서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기 인식과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에 부모는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미래인적자원인 영유아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파트너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의 제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역량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자녀양육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영아 부모용, 유아 부모용)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모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성격이나 영역별 문항별로 분석하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첫째, 부모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부모역량의 정의 및 범주,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기존 부모역량의 핵심요소를 추출하였다. 부모역량에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여 부모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검토하였으며 부모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내용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제한점을 알아보았다.

둘째, 기존 부모역량의 범주 및 구성요소와 영유아의 행복과 관련된 국내·외 지표(OECD 아동웰빙지표, UNICEF 아동웰빙지표,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영역을 구성하였다. 국제지표의 범주가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부모역량은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취하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범주를 구성하였다.

셋째,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을 영아와 유아 대상별로 차별화하여 개발하였다. 영아 부모용과 유아 부모용 Self-체크리스트는 공통문항과 영아와 유아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용 Self-체크리스트는 부모가 자신의 부모역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 부모역량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넷째,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를 파악하였다. 영유아 부모의 부모역량 실태를 부모역량 성격에 따라 인식, 실행, 성장역량 및 내용면에서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역량 실태가 부모변인(부/모, 부모연령, 자녀연령, 부모학력, 가구소득, 취업여부 및 형태,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실태 파악을 통해 영유아 행복을 위해 부모역량 제고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를 토대로 부모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뒤 영유아 행복을 위해 부모역량을 제고해야 할 부분과 부모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부모 개인에게는 자신의 부모역량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체계화,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선행연구를 통해 영유아 행복의 중요성, 부모역량의 정의, 범주, 세부내용을 알아보았으며 부모역량 진단 내용, 진단 방법, 부모역량을 평가하는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영유아의 행복을 고려한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행복과 관련된 국내·외 척도를 검토하고 공통적인 영역을 추출하였다. 또한, 부모역량에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여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 문항과 함께 조사할 부모변인을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필요성과 영유아 행복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고 부모역량의 영역과 구성요인, 문항을 검토하였다.

나. 면담

부모역량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전에 필요한 부모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영유아 부모 13명(총 4회 면담), 부모역량 관련 전문가 6명(총 3회 면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7명(총 2회 면담), 유아 4학급(만 4·5세 대상, 총 4회 면담)을 면담하였다. 또한 체크리스트가 개발된 후 부모역량 영역과 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부모역량 관련 전문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면담하였다. 유아를 면담하기 위하여 교사와의 대집단 활동 속에서의 유아 집단면담과 담임 교사를 통한 개인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에게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좋았던 적과 부모님 때문에 속상했던 적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였다.

〈표 1-3-1〉 교사·원장면담 참석자의 일반적 배경

	연령	학력	성별	소속기관	담당연령
원장 A	49	대학원졸	여	어린이집	-
원장 B	50	대학원졸	여	어린이집	-
원장 C	38	대학원졸	여	유치원	-
교사 A	36	대졸	여	어린이집	4세
교사 B	33	대졸	여	어린이집	5세
교사 C	33	대졸	여	유치원	4세
교사 D	28	대졸	여	유치원	5세

〈표 1-3-2〉 부모면담 참석자의 일반적 배경

	연령	학력	자녀 성별	자녀 나이	기관이용
어머니 A	31	대졸	남	만 1세	-
어머니 B	32	대학원졸	남	만 1세	-
어머니 C	34	대졸	여	만 1세	어린이집
어머니 D	33	대졸	여	만 1세	-
어머니 E	38	고졸	여	만 6세	초등학교
어머니 F	36	고졸	여	만 5세	어린이집
어머니 G	37	대학원졸	남	만 4세	어린이집
어머니 H	34	대졸	남	만 5세	어린이집
어머니 I	39	대졸	여	만 5세	어린이집
아버지 A	32	고졸	남, 여	만 4세, 만 1세	어린이집
아버지 B	42	고졸	여	만 4세	유치원
아버지 C	38	전문대졸	여, 여	만 4세, 만 1세	유치원
아버지 D	42	대졸	남	만 5세	유치원

다. 전문가집단 의견조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 파악을 위한 Self-체크리스트의 영역과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전공(유아교육, 보육, 상담, 사회복지 전공)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8월에 전문가집단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영유아 부모를 위한 각각의 체크리스트 문항을 선정하였다. 전문가집단 의견조사에서는 영아와 유아 부모를 위해 따로 개발된 세부내용과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영역별 필요한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였다(전문가집단 의견조사를 위한 문항의 예시는 부록 1 참고).

부모교육을 전공하거나 부모역량 증진과 관련된 강의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수, 유치원·어린이집의 원장·원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100인을 선정한다. 다음, 이메일을 활용하여 본 의견조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총 48명(회수율 48%)의 전문가들이 문항 검토에 응하였다. 의견조사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의 전공 분야는 ‘유아교육’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이 12명, ‘사회복지’와 ‘상담학’이 각각 5명이었다.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원감 3명과 어린이집 원장·원감 2명이 참여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표 1-3-3>과 같다.

〈표 1-3-3〉 의견조사 참여 전문가집단의 전공별 분류

전공		인원 수
학계	유아교육	21
	아동학	12
	사회복지	5
	상담학	5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원감	5
총계		48

라. 설문 조사

개발한 영아와 유아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영유아 부모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부모역량 실태를 9월에 조사하였다. 표집은 영아와 유아 부모가 50%씩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전국단위 시도별과 지역규모별(대도시, 시군구, 읍면리)을 고려하여 비례 할당하였다. 부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가 각각 50%씩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할당에서는 부가 420명, 모가 580명 참여하였다. 부모용 설문조사에는 부모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변인과 영역별로 개발된 문항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 대상 설문 내용은 <표 1-3-4>와 같다.

〈표 1-3-4〉 부모 대상 설문 내용

종류		부모대상 설문 내용	
부모 맥락 변인		영유아 공통	- 성별, 연령, 학력, 거주 지역, 가구소득 - 자녀의 나이, 자녀의 주양육자 - 부모의 취업 상태
부모역량 범주(1)	영유아 발달	영유아 공통	- 애착의 중요성 인식 - 연령별 발달 특성의 이해 - 적절한 발달 자극 제공 -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 - 발달 정보 습득을 위한 여러 가지 매체 활용
	건강과 안전	영유아 공통	- 응급상황 및 질병 대처법 습득 -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영아	-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 및 관리 - 위험요인 인식 및 예방
		유아	- 자녀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기본생활습관 형성 조력

(표 I-3-4 계속)

종류		부모 대상 설문 내용	
부모역량 범주(2)	가족관계	영유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부모의 중요성 인식 -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상 인식 - 양육태도 및 양육관에 대한 자기성찰 - 안정적인 가족문화 조성 - 온정적·애정적·일관적 양육 시행 -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개인적 노력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유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 인식 - 물질적 욕구 충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적정 수준의 미디어 활용 - 계획적인 놀잇감 구매 - 쾌적하고 발달에 적합한 가정환경 조성
		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감을 자극하는 놀잇감 제공 - 영아를 위한 생필품 상시 구비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다양한 놀이 활동을 위한 물품 구비 - 올바른 목적의 사교육 실시
	놀이	영유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의 중요성 인식 - 발달에 미치는 놀이의 긍정적 영향력 인식 - 바깥놀이의 중요성 인식 - 자녀와 함께 다양한 놀이 참여 -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놀이 및 놀잇감 선정 - 안전한 놀잇감 제공 - 자연친화적 놀이 실시 - 학습으로서의 놀이 활용 - 자녀와 함께 놀이하려는 노력
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감을 활용하는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 상징놀이 실시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를 통한 지적 호기심 자극 - 주기적인 실외놀이 실시
생활지도	영유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생활지도방식 습득 -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가정교육 실시 - 공공예절에 대한 유의 - (부)적절한 방식의 생활지도 실시 - 생활지도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 점검 - 문제행동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원 활용 	
지역사회 연계	영유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파악 - 다양한 사회적·인적 자원 활용 -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참여 - 자녀가 재원 중인 기관 활동 참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로 총 1,000명이 참여하였고 자녀 연령으로 구분하여 영아, 유아 부모가 각 50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아버지 420명, 어머니 580명이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을 살펴보면 연령은 30대가 78.1%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1.1%, 20대가 8.1%, 50대 이상이 2.7%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이 36.5%,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이 35.6%로 비슷하였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26.5%, 대학원 이상은 1.4%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기관이용여부 및 주양육자를 조사한 결과, 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66.7%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3.3%보다 많았다. 주양육자는 엄마가 92.4%로 대다수였고, 친조부모가 3%, 아빠가 2.8%로 비슷했다. 가구구성별로는 양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97.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한부모, 조부모 가정이 있었지만 총 2.1%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4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이 27.4%, 400~500만원이 19.9%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영유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각 광역도시와 도 단위(총 18개 지역)에서 표집한 결과, 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32.8%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 서울,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거주지역의 규모별로는 중소도시 48.3%, 대도시 42.6%, 읍면지역 9.1% 순으로 구성되었다.

〈표 1-3-5〉 부모 대상 설문 응답자 세부 특성

단위: %

특성	비율(사례수)	특성	비율(사례수)
부모성별		가구소득별	
남자	42.0(420)	0~200만원 미만	3.7(37)
여자	58.0(580)	200~300만원 미만	27.4(274)
부모연령별		300~400만원 미만	40.7(407)
20대	8.1(81)	400~500만원 미만	19.9(199)
30대	78.1(781)	500만원 이상	7.1(71)
40대	11.1(111)		
50대 이상	2.7(27)		

(표 I-3-5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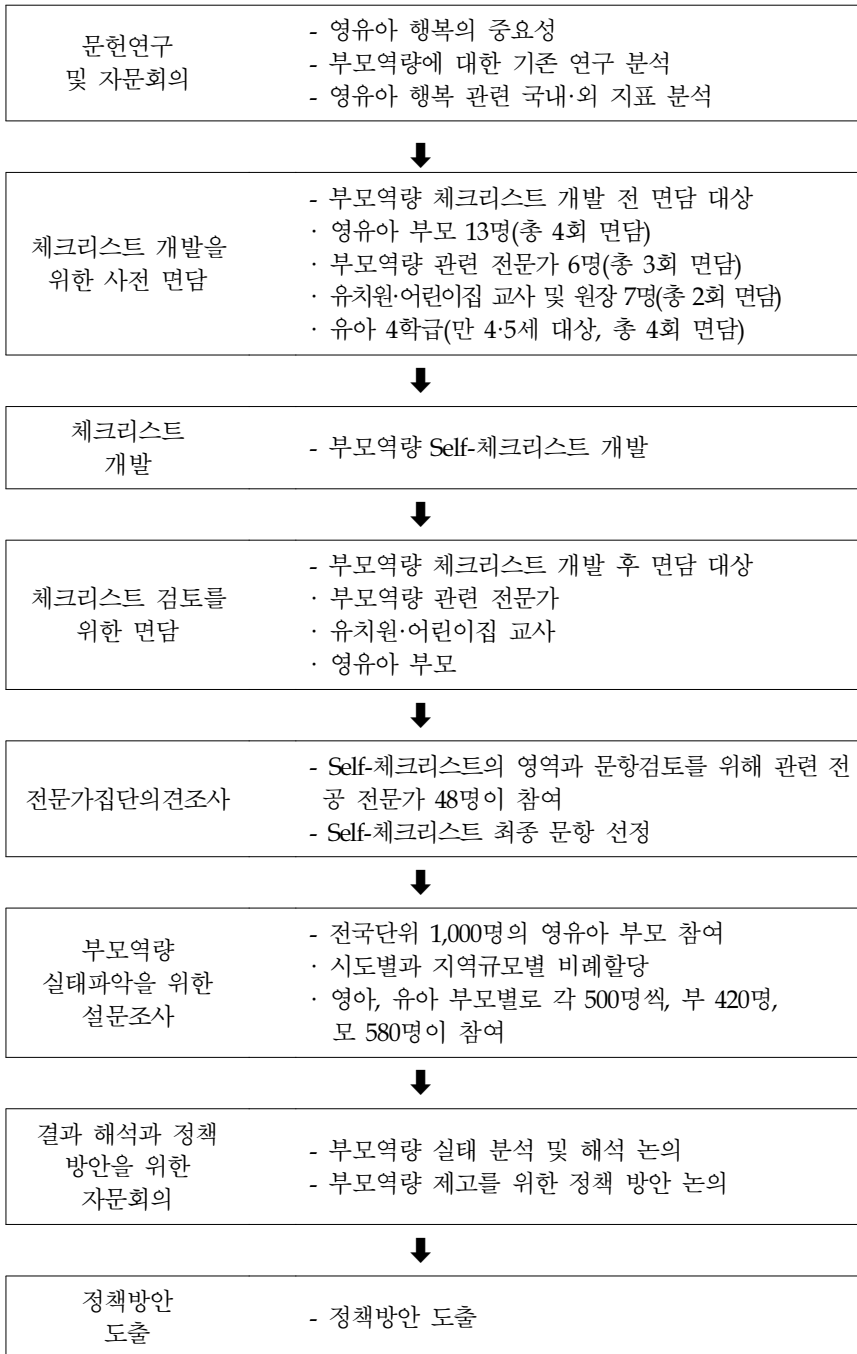
특성	비율(사례수)	특성	비율(사례수)
부모학력별		모 취업여부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5(263)	유(전일제)	30.2(111)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36.5(365)	유(시간제)	6.8(25)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35.6(356)	무	63.0(231)
대학원 이상	1.4(14)		
주양육자별		부 취업여부별	
부	92.4(924)	유(전일제)	95.3(247)
모	2.8(28)	무	4.7(12)
조부모	4.8(48)		
가구구성별		지역규모별	
양부모+자녀	97.9(979)	대 도시	42.6(426)
한부모+자녀	0.6(6)	중소도시	48.3(483)
조부모+자녀	1.5(15)	읍면지역	9.1(91)
기관이용여부별		지역별	
이용	66.7(667)	서울	17.8(178)
미이용	33.3(333)	경기·인천	32.8(328)
영유아별		경상권	24.6(246)
영 아	50(500)	충청권	10.8(108)
유 아	50(500)	전라권	11.3(113)
		강원권	2.7(27)

주: 부모의 취업여부를 추가 조사하여 취업여부에 한해서 부모의 응답자수는 각각 259명과 367명임.

마. 자문 회의

영유아 부모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내용 선정, 부모역량을 평가하는 Self-체크리스트의 영역 및 문항 구성, 부모역량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선정, 부모역량 분석,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각 내용별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1-3-6〉 연구 개요



4. 연구의 제한점

가. 부모역량의 개인 간 절대적 비교 제한

본 연구는 영아, 유아의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Self-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개인적 측면에서 자신의 부모역량에 관한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본 연구내용의 일환으로 부모 대상 조사결과 형태로 부모역량에 대한 실태를 수치로 나타내나 절대적 수치로 개인의 부모역량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역량을 평가하는 주체가 부모 자신이므로 개인 부모가 지닌 기대치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절대적 비교를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나. 부모역량 평가 문항의 일반화 배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 문항의 내용을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구성하였으나 부모역량 자체가 이미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동일 문항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II. 연구의 배경

1. 영유아 행복의 정의 및 중요성

가. 영유아 행복의 정의

행복 혹은 행복감이란 용어는 철학, 심리학, 의학 등 출발배경에 따라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Martin E. P. Seligman의 긍정 심리학영향으로 사변적이거나 정신병리적 접근 중심의 전통적 정의와 달리, 대다수 학자들이 행복을 긍정적 정서 혹은 만족 등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거나 느끼는 좋은 감정으로 정의하는 추세이다(Seligman, 2002). 대표적으로 Diener(2000)의 정의를 살펴보면 행복감이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며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 Being, SWB)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Csikszentimihalyi(1990)는 주관적 경험이란 삶의 한 측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삶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행복을 정의하는데 있어 주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영유아 행복 또한 이전과 달리 이런 주관적 측면을 포함한 맥락에서 정의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국내외 학자들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도란과 김정원(2008)은 "부모와 가족, 친구와 교사 등과의 관계나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 그리고 놀이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경험을 통해 자신의 일과 행동에 대해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상태(p. 313)"로 정의한다. 이와 유사하게 김연화와 강문희(2008)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 및 생활에 대한 만족감(p. 37)"을 행복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미경과 장재숙(2009)은 영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과 아동의 내적 요인까지 포함시켜 영유아의 행복감을 "생활환경, 자아특성, 대인관계, 생활 만족 등 삶의 전반에서 느끼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감정(p. 105)"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외학자들을 살펴보면 Huebner(1991, Rees, Bradshaw & Goswami, 2010)에서 재인용)는 가족, 친구, 학교, 생활환경과 자아 등 삶을 5가지로 나뉘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아동 행복감을 정의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학교생활과 연계한 행복감에 대한 정의이다(Uusitalo-Malmivaara, 2012). 이런 경향은 아동의 삶 전반이 학교나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동의 행복 또한 이를 중심으로 인식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유아 행복에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주관적 느낌보다는 영유아 웰빙이나 복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환경적 요인에서 행복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객관적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한 국제지표의 특성상 주관적 느낌보다는 객관화 가능한 외적 요인을 주로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추이는 영유아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관적 정서와 함께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예를 들면, OECD 아동 웰빙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질적 지원이나 주거와 환경과 같은 구조·환경적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에도 경제 여건, 생활지역과 같은 외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위를 종합해 볼 때 영유아의 행복감이란 영유아가 매일의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만족스러운 감정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이 또한 영유아를 둘러싼 구조적·외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 행복의 중요성

행복한 아동은 모든 부모의 열망이자 한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잣대다. 아동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아동의 행복권이 침해될 경우 사회 전체의 안녕에 해를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안녕보장을 위해 아동 행복의 중요성은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주양육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할 필수과제이다. 이와 함께 아동의 권리존중 측면에서도 아동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데, 한 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행복권 추구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의 중요성에 대해 Huebner(2004)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보여 주었는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외향적이며, 내적 통제의 위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삶의 목적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친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문제 및 정신 병리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의견들에 대해 Rees, Goswami, Pople, The Children's Society, Bradshaw, Keung & Main(2012)은 아동 행복의 중요성을 3가지 측면에서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의 행복은 사회 안정의 기본척도로서 그 자체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둘째, 아동권리에 대한 UN규약은 성인들이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다. 아동이 자신의 행복 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셋째, 폭력, 공격성, 폭력행동, 속임수 가능성, 위험 행동, 식이장애, 우울, 외로움과 자살생각 등을 비롯한 아동 삶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낮은 행복감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가출과 낮은 행복감과 관련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영유아의 낮은 행복감은 한 인간의 삶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지표임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아동 행복의 중요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그 중 다행인 점은 최근 아동, 특히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도란과 김정원(2008)을 비롯하여 김일부(2011) 등 여러 학자들이 이전의 초·중등 중심의 연구편향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점은 적극 환영할만한 행보이다.

다. 영유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난 30년간 수행된 영유아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영유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 유아나 취학 후의 아동대상이 주를 이룬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변인은 주로 성별, 연령, 자아개념·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 기질이었으며 부모변인으로는 부모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 부모 행복감,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등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아동의 구체적 생활 경험에 대한 행복 수준을 알아본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1) 아동변인: 성별, 연령, 자아개념/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 기질

아동의 성별 및 연령과 행복감 간의 관계는 그간 연구들에 따라 그 결과가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성별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김도란·김정원, 2008; 강영욱, 2009; 정현정·문혁준, 2011; 조경서·남기원, 2011; 임미지·문혁준, 2011) 아동의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연화와 강문희(2008),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2009)의 연구에 따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전반적인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기남과 성미영(2010)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행복감수준은 남아와 유아가 유사하였지만 자아특성 행복감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연령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정계숙·최은아·강인설, 2008; 조성연 외, 2009; 윤경희·이숙, 2010; 임미지·문혁준, 2011; 정현정·문혁준, 2011)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와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상황 및 판단에 대해 조사·분석한 정계숙, 최은아, 강인설(2008)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은 유아는 높은 아동에 비해 자신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학년 아동은 자신을 행복하게 인지하는 부분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어린이 집 재원 중인 3, 4, 5세 유아 80명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한 강영욱(2009)의 연구에서는 4세가 3세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5세와 4세의 행복감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김도란과 김정원(2008)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가정환경영역, 자아특성영역, 능력영역, 대인관계영역 모두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개인 유능감, 자신과 삶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여주었다(조경서·남기원, 2011). 이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이 자아탄력성이라고 보고한 정현정과 문혁준(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 특히 자기효능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지가 높은 아동일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과 더불어 아동의 자아특성, 즉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 역시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아동의 행복감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에서 행복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을 찾아본 전미경과 장재숙(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활환경, 대인관계, 자아특성, 생활만족 4가지 구성요인 모두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을 설명해주고 있으나, 그 중에서 아동의 자아특성이 행복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Terry와 Huebner(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기질 역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김연화와 강문희(2008) 그리고 Huebner(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향적인 아동일수록 행복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변인: 부모학력/경제력/취업유무, 부모 행복감,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김도란과 김정원(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학력이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전문대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자녀에 비해 높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여러 연구결과(김도란·김정원, 2008; 김연화·강문희, 2008; 윤경희·이숙, 2010; 박현철·김성봉·홍달아기, 2011; 임미지·문혁준, 2011; 정현정·문혁준, 2011)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수준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 중 하나다. 윤경희와 이숙(2010)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동이 전반적인 행복감 뿐만 아니라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능력, 대인관계, 가정환경, 자아특성 모두에서 행복감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인식한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박현철·김성봉·홍달아기, 2011; 임미지·문혁준, 2011). 김도란과 김정원(2008) 또한 유아의 전체적 행복감은 가정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복감의 하위 영역 중 능력과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아동의 행복감에서 부모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모의 취업유무 역시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현정과 문혁준(2011)에 따르면, 비취업모의 자녀가 욕구만족을 제외한 행복감의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생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임미지와 문혁준(2011)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모의 취업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한편, 부모의 행복감과 유아의 행복감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도란·김정원, 2008). 즉, 부모가 행복할수록 그 자녀도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행복감이 그들의 자녀에게 전이된다고 보고한 Headey, Muffels & Wagner(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부모의 삶 만족도, 즉 행복감은 자녀에게 전이된다고 한다. 이는 행복과 관련하여 부모가 중요히 여기는 가치나 행동이 자녀에게 그대로 계승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부모의 행복감은 남아, 여아 모두에게 강력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의 행복감은 남아, 여아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또한 아동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Proctor, Linley & Maltby, 2009).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를 대상으로 과한 기대와 훈육을 하지 않을 때, 아동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정과 문혁준, 2011). 이는 부모가 과도하게 기대를 하는 것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아동에게 실망하는 것 등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Holder와 Coleman(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아울러 아동기에 인지된 부모의 사랑, 특히 모의 사랑이 성인기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Sillick & Schutte, 2006), 부모-자녀 간 애정적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 자녀가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화·강문희, 2008; 황연덕·이진숙, 2012; Bjarnason, Bendtsen, Arnarsson, Borup, Lannotti, Löfstedt, Haapasalo & Niclasen, 2012). 황연덕과 이진숙(2012)에 따르면, 아동이 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았으며, 부와의 의사소통을 문제로 지각할수록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김연화와 강문희(2008)의 연구에 따르면, 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이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보다 전반적인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영유아의 행복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 관련 요인이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자녀의 행복감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영유아기 행복한 삶의 보장을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김도란·김정원, 2008).

3) 기타 관련 요인: 생활경험

아동이 어떤 생활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행복감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정계숙, 최은아, 강인설(2008)에 따르면, 아동은 어떤 상대와 관계하여 경험을 하는 관계적 경험보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일상이나 비일상적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개인적 경험은 자신의 성취, 물질적 보상, 휴식, 컴퓨터 게임, 상황변화, 의미 있는 날과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이 경험하였고 관계적 경험을 통한 행복은 정서적 보상, 놀이, 여행상황에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김연화와 강문희(2008)에 따르면, 아동은 개인취미활동을 할 때,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아동의 방과 거실이 있는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경험으로는 가족과의 활동경험을 꼽았다.

2. 부모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가. 부모역량의 개념

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국립국어원, 2013)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당면한 개인적 요구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의 요소를 포함(이재분, 김혜원, 변종임, 채재은, 2009, p. 21)"하고 있다.

역량은 능력이라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능력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나 정신적·신체적 기능"(국립국어원, 2013)을 말하는 데 반하여 역량은 단위 업무나 과제 수행을 넘어서 보다 총체적인 성격의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특성을 말한다. 또한, 정대현과 신원애는 역량은 "사람의 필요와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결합되어 발휘되는 구체적인 행동(p. 182)"임을 밝히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그러한 지식과 기술이 나타나도록 뒷받침 되는 자아개념, 특질, 동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p. 183)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역량은 과업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자각, 환경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모역량에 대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주로 부모가 문제가 있어 자녀양육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역량을 조사한 경우가 많았다. Azar & Cote(2002)는 아동의 요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한 충분한 적응력을 자신감 있는 양육의 모습(competent parenting)으로 보았으며 이은경(2013)은 부모역량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권리와 책임, 다양한 지식 등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역량과 이를 바탕으로 개인·가정의 환경에 통제력을 발휘하는 역량으로 보았다. Conley(2003)는 부모역량을 자녀의 잠재된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을 제공하고, 지켜보며, 지지하는 능력으로 접근하였다.

부모역량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부모역량은 부모(주양육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말하며 양육에 관한 가치관이나 동기와 같은 내적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따라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부모역량이 부모의 개인변인뿐만 아니라 부모를 둘러싼 생태학적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부모역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부모역량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며 부모로서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 부모역량 구성요인

부모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학자나 연구마다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부모역량에 대한 정의에 비해 부모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다. 부모역량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전통적인 범주에 따라 부모역량을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Turnbull & Turnbull(1997)은 동기, 지식, 기술을 부모역량으로 보았고 박현숙, 구현영(2010)은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훈육기술, 부모 자신에 대한 유능감 및 효능감을 부모역량으로 간주하였다.

정계숙, 김정혜, 김미정(2003)은 자아존중감과 양육기술에 초점을 두면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리를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강기정과 정은미(2008)는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부모역량의 구성요인으로 보고 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부모역량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육에 관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구성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행동 외에도 양육효능감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내적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핵심역량 요인을 탐색한 박재국, 서보순, 김혜리(2011)의 연구에서도 양육태도, 양육기술, 양육지식이 부모의 핵심역량에 포함되며 이 외에도 가족협력, 양육효능감, 사회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부모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라는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나 부모역량을 부모가 갖추어야 할 내용적 측면에 이름을 붙인 경우가 있다. Azar, Lauretti & Loding(1998)는 부모역량 구성요인을 양육기술, 사회인지기술, 자기통제,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사회적 기술로 정의하며 부모역량에 관한 개념을 일찍이 확대하였다(1998). 이 후 Azar & Cote(2002)는 부모역량을 하나의 적응력으로 보면서 부모는 아동의 능력에 대해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고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적응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적응력을 지각력, 반응성, 유연성/융통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지각력은 부모가 자녀나 자녀의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둘째, 반응성은 부모와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정도 혹은 범위를 의미하고, 셋째 유연성/융통성은 변화하는 상황 및 아동의 요구에 대한 대처능력을 의미한다(Common wealth of Australia, 2004).

Reder & Lucey(2003)는 부모의 생태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부모역량의 구성요인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밝혔다. 부모역량에 부부간의 관계나 가족 영향,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시키면서 부모역량이 여러 요인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도 자녀의 기질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자녀간의 관계와 이에 따른 부모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정대현과 신원애(2012)는 부모코칭역량을 5가지로 나누어 실행역량, 의사역량, 관계역량, 의식역량, 성장역량으로 나누었다. 실행역량에서는 실제로 행위 하는 부모의 행동, 의사역량에서는 의사소통, 관계역량에서는 부모 자신이나 사회와의 관계 및 소통, 의식역량에서는 내면적 가치에 대한 분석, 성장역량에서는 부모로서의 성장 의지 및 동기가 구성요소가 된다.

부모역량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역량은 직면하는 상황에 따른 부모의 적응력을 높여 사회적·환경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필요로 하는 역량을 말한다. 적절한 부모역량을 지닌 부모는 자녀를 양

육하는 과정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가지고 대처하며 나아가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표 11-2-1〉 부모역량의 구성요소

학자 및 기관	부모역량 구성요소	
강기정, 정은미(2008)	-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	
박현숙, 구현영(2010)	-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훈육기술, 부모 자신에 대한 유능감 및 효능감	
이명숙(2011)	- 부모의 자기존중감, 부모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정계숙, 김정혜, 김미정(2003)	- 자아존중감과 양육기술	
정대현, 신원애(2012)	실행역량, 의사역량, 관계역량, 의식역량, 성장역량	
Azar, Lauretti & Loding (1998)	1) 양육기술	문제해결능력, 의학적·신체적 보살핌(영양식, 필요한 의료 지원 관련 능력), 안전·위급상황 대처 등
	2) 사회인지 기술	조망수용, 문제해결 가능성, 자녀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기대, 자기효능감 등
	3) 자기통제	충동 통제, 긍정적 해석, 셀프모니터링, 단호한 태도, 정확하고 적응적인 지각
	4) 스트레스 관리·대처	자기관리(self-care), 기분전환, 사회적 지원망 활용 및 유지, 대처능력수준(문제중심적 대처능력, 정서중심적 대처능력, 회피적 대처능력)
	5)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문제해결, 공감, 사회적 활동, 주변 관계에 대한 효율적 반응·대처역량(가족, 친구, 고용주, 동료, 자녀의 교사 등)
Common wealth of Australia(2004)	지각력(perceptiveness), 반응성(Responsiveness), 유연성/융통성(Flexibility)	
Reder, Duncan & Lucey (2003)	부모 역할에 대한 부부간의 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 영향, 환경과의 상호작용, 변화에 대한 적응력 ↓	
	1) 부모 측면 부모-자녀관계	① 부모 개인의 기능 ② 양육역할에 따른 관계(양육지식, 양육태도) ③ 자녀와의 관계(자녀에 대한 감정, 자녀의 건강과 경험에 대한 관심, 자녀에 대한 존중)

(표 II-2-3 계속)

학자 및 기관	부모역량 구성요소	
2) 아동 측면 부모-자녀관계		① 신체·정서·인지·사회·도덕성·성 발달에 대한 위협 요소 등 ②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아동기질, 활동성, 질병 및 장애, 정서·행동문제 등) ③ 부모에 대한 태도(부모에 대한 감정 및 행동, 갈등, 향후의 바람 등) ④ 아동의 기본인적 사항(연령, 인지적 발달 수준 등)
3) 맥락적 가족-환경관계		① 가족기능(부부간의 불화·폭력, 아동이 포함된 가정폭력 등) ② 사회적 스트레스(빈곤, 실업, 차별, 고립, 지리학적 고립) ③ 안정성 (부부관계, 편의) ④ 대인관계 (친척과의 관계, 공동체 생활, 전문가와의 협력 등)
Turnbull & Turnbull(1997)	- 동기, 지식, 기술	

자료: 강기정·정은미(2008). 여성가장의 부모역할 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 박현숙·구현영(2010).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계숙, 김정혜, 김미정(2008).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 연구; 이명숙(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안; 정대현·신원애(2012). 부모코칭역량의 구성요인 탐색 및 검사도구 개발 Azar, Lauretti & Loding.(1998). The Evaluation of Parental Fitness in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Cases: A Functional-contextual Perspective. p.81; Commonwealth of Australia(2004). Parenting Information Project; Reder, Duncan & Lucey (2003). Studies in the Assessment of Parenting, p.16; Turnbull & Turnbull(1997).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A special partnership(3rd ed.).

3. 부모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역량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구성요인으로 양육효능감, 양육지식, 양육태도 또는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부모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인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절하게 잘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주옥, 2008).

양육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자녀에 대한 행동으로, 최근 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나 생각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이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이송은·박성연, 2012). 즉, 양육자의 아동의 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지식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인들이 부모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육효능감, 양육지식, 양육태도 혹은 행동,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부모역량과 이러한 변인과의 관련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모역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먼저, 이주옥(2008)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27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자녀변인(자녀의 연령, 성별 및 출생순위)과 어머니변인(어머니 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 정도에 따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자녀변인들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연령에서는 영아보다 유아인 경우, 순위에서는 첫째아인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며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 측면에서는 35세 미만의 어머니가 자녀와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인지하였고 미취업 어머니가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주옥(2008)의 연구와는 달리 이경하와 서소정(2009)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252명의 15~36개월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영아 발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아의 월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월령이 높은

영아 집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도 양육 관련 변수들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송미혜, 송연숙과 김영주(2007)의 연구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를 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가구소득이 중간 정도 일 때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Croutier & McHale(2005)은 맞벌이 부부의 양육 모습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며, 어머니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 아버지의 육아참여 시간이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는 환경은 단순히 두 사람이 직업을 가진다는 측면이 아니라 생태학적 환경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직장의 유무뿐만 아니라 직장의 분위기나 환경, 직장에서 주로 하는 일 등은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생태학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 모습을 연구한 Parke, Deniis, Flyr, Morris, Leidy, Schofield (2005)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행동 또한 아버지의 생태학적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버지 개인의 특성에서 기인함과 동시에 결혼만족도, 자신감 등의 요인과 같은 생태학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혀 부모 개인의 생태학적 변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역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젊은 층 부모의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나고 미취업모보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적어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를 둘러싼 생태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나. 부모역량에 대한 양육 관련 변인

다음으로 부모역량의 구성요소로 보이는 제반 양육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2010)의 연구에서는 D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250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에는 직접적인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높았으며, 높은 양육효능감은 많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김혜라와 김진경(2012)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자료 분석결과에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경우 어머니는 자녀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권미경(201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임을 밝혔다.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2010)의 연구와 권미경(2011), 김혜라와 김진경(2012)의 연구를 통해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는 상호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낮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도 있고, 낮은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송은과 박성연(2012)의 연구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어머니 212명을 대상으로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 역할 인식이 양육행동(사회적인 양육행동, 가르치는 양육행동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양육지식이 높고 어머니로서의 유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어머니의 애정, 반응성, 민감성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2010)의 연구와 이송은과 박성연(2012)의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영주와 송연숙(2007)은 1-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양육지식, 어머니 연령, 학력, 취업유무, 가계소득, 출생순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지식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자녀양육지식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화자, 이승아, 김명희, 김영혜, 박남희(2004)의 신생아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자신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생아 어머니, 아버지 모두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고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며, 높은 양육 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Jeong(2012)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0-5세 아동의 어머니 1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지식은 아주 구체적인 개념을, 양육효능감은 광범위한 개념을 측정하기 때문에 개념적인 차이가 나타나 상호 간의 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박희진과 문혁준(2012)의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243명의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 취업유무, 양육죄책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다른 변인에 비해서 양육죄책감이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지식이 높아지고 이러한 양육지식은 높은 양육효능감과 연결되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예측되는 이전의 경로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박희진·문혁준, 2012).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부모역량 개념과 연관 지어 볼 때,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은 모두 부모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 볼 수 있고, 이들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관련 변인 및 어머니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여 부모역량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부모역량에 관한 평가

가. 부모역량 평가의 역할

부모역량에 대한 평가는 학대나 방임과 같은 문제가 있어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모역량에 대한 평가가 부모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부모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양육태도나 행동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양육의 모습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모역량 평가가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이상 부모역량 평가의 효과 및 제한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부모역량 평가의 역할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부모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 특성과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자녀의 요구와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온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 끝으로 부모역량의 성장과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이해 및 상호작용을 위한 개입이나 계획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White, 2005).

〈표 11-4-1〉 부모역량 평가의 효과 및 제한점

부모역량평가	내 용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 특성들과 패턴을 설명할 수 있음 - 이상/문제행동의 가능한 원인들과 그 잠재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 - 행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 개인적인 조건들과 환경적 조건들을 분별할 수 있음. - 부모의 기술과 결손과 관련된 아동들의 위험과 욕구, 기능을 설명할 수 있음. - 개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
제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양육 적합성을 일반적인 양육 기준들과 비교할 수 없음. - 간접적 측정에 기초한 양육 타당성에 대해 결론 내릴 수 없음. - 평가 과정에서 상황적 영향(시간제한, 요구 특성, 현재 스트레스 요인들, 문화적 사안)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음. - 확실성을 갖고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음.

자료: White(2005). *Assesment of parenting capacity*, p. 9 내용을 번역하여 재구성함.

부모역량 평가의 제한점은 절대적인 수치로 부모역량을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평가 방법에 따른 제한점이 수반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신의 부모역량을 자가 진단하는 경우 개인마다 부모역량에 대한 기대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모역량이 같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역량 평가는 개인 간 비교보다는 개인 내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나. 부모역량의 진단 방법

부모역량의 진단 방법에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관찰, 체크리스트, 부모와의 면담, 유아와의 면담, 다른 중요한 인물과의 면담, 기록이나 이력의 검토, 도구를 이용한 평가 등이 있다(White, 2005; Miller, Ryan, Keitner, Bishop & Epstein, 2000). 모든 진단 방법마다 강점과 제한점이 있으므로 한 가지 방법만으로 진단하지 않고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부모역량을 진단하는 것이 좋다.

1)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관찰

부모와 영유아를 함께 관찰하는 것은 부모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Hynan(2003; White, 2005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부모-자녀 관찰의 주된 목표는 아동, 부모 그리고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관찰을 통해 자녀의 요구와 강점, 자녀와 각 부모 간의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같은 다른 중요한 영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찰은 면담 상황에서 관찰되지 않은 강점이나 약점들을 보여줄 수 있으며 세세한 상호작용의 모습까지도 조명할 수 있다. 관찰 상황에서는 주로 부모와 영유아가 서로 존중하는지, 눈을 맞추며 반응하는지, 영유아의 요구에 반응하는지, 자녀에게 자율성을 주는 정도, 자녀에게 기대하는 정도, 훈육 방법, 자녀와의 놀잇감 등을 살펴볼 수 있다(White, 2005)

하지만 관찰기법 사용에서는 과일반화 혹은 오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역량 진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종류의 관찰법들이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매우 주관적인 정보를 모으는 결과만을 도출할 수 있다(Budd & Holdworth, 1996; White, 2005에서 재인용).

2)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부모역량 측정을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정보의 근원들이 접근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White, 2005). 체크리스트는 보통 전문가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 실재를 관찰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부모역량을 진단해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3) 부모와의 면담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인식하는 방법, 상호작용하는 방법,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등에 관한 현실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면담에서는 부모가 그들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관찰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은 부모들이 지니는 양육의 강점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White, 2005).

부모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새로운 대처방식을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면담기술을 통해 부모의 문제해결능력과 부모의 자기반성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White, 2005). 부모가 함께 면담하는 경우에는 부모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 부모가 상대방의 양육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4) 유아와의 면담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감안할 때, 유아, 대개 만 4·5세를 대상으로 부모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부모역량을 진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아가 부모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부모가 얼마나 반응적인지, 부모와 어떻게 놀이하는지, 어떻게 부모와 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모역량을 진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 방법에 대한 제한점은 유아가 부모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유아가 부모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 자신의 기분과 경험들을 더 많이 표현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유아의 의견이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부모역량에 대한 진단을 하기에는 심층적인 정보를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5) 다른 중요 인물들과의 면담

부모를 잘 아는 친구나 사회복지사, 교사 등을 통해 부모역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부모를 잘 아는 경우 부모의 강점이나 약점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부모에 의해 제시된 주장들을 재확인하거나 반박한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를 잘 아는 사람이 중립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6) 평가 도구 사용

Miller, Ryan, Keitner, Bishop & Epstein(2000)는 부모역량을 보다 큰 틀에서 보고 가족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도구(Family Assessment Device, McMaster Clinical Rating Scale, McMaster Structured Interview of Family Functioning)를 예로 들었다. 이러한 도구는 부모역량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평가자 대상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 부모역량 평가 사례

1) Reder & Lucey의 부모역량 평가

Reder & Lucey(1995)는 부모역량 평가를 위한 틀을 개발했다. 부모역량 평가를 위한 틀은 가족 구성원들을 면담할 때 중요한 영역들을 면담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평가의 틀은 평가자가 고려해야 할 5가지 주제: 양육 역할에 대한 부모의 관계, 아동과 부모의 관계, 가족의 영향, 바깥 세계와의 상호작용, 변화를 위한 잠재력으로 구성되어있다. 5가지 주제들은 최근 수정된 틀에서 <표 II-4-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3가지 영역으로 재구성되었다. 아래 틀은 부모역량 평가를 위한 문항을 만드는 기초 항목 역할을 하였다.

〈표 11-4-2〉 Reder & Lucey의 부모역량 평가를 위해 수정된 틀

영역	세부 내용
부모 (부모-자녀 관계)	개인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된 어린 시절 경험 - 타인과의 관계 경험 - 충동 조절을 포함한 미해결된 보호/통제 갈등 - 회복력 요소 - 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 - 심리학적 마음경향 - 변화 잠재력 - 정신 건강 문제
	양육 역할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인 신체적 돌봄의 제공 - 연령에 적합한 정서적 돌봄의 제공 - 행동적 욕구를 위한 제공 - 양육에 대한 지식과 태도, 과제 - 양육 역할에 대한 헌신 - 아동에 대한 연령에 적합한 기대 - 훈육에 대한 접근 - 스스로의 양육행동에 대한 책임감 수용
	아동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느낌 - 아동의 의미 - 아동의 복지와 경험에 대한 관심 - 아동의 경험과의 동일시를 포함한 아동과의 공감 능력 - 우선적으로 여겨지고 인식되는 아동의 필수적 욕구 -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보는 아동
아동 (자녀-부모 관계)	중요한 위해의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감정적 복지에 대한 위해 -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성적 - 발달에 대한 위해 - 회복력 요소
	양육 관계에 대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질 - 활동 - 질병 또는 장애 - 정서적 또는 행동적 문제 - 부모의 헌신으로부터의 거부 또는 시험 - 부모의 감정적 위기에 대한 계기
	양육자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를 향한 느낌과 행동 - 경험의 서술 - 갈등 - 미래에 대한 희망사항
	충분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인지적 발달 - 화제에 대한 복잡성 - 개인적, 대인적 갈등의 영향

(표 II-41 계속)

영역		세부 내용
맥락 (가족, 맥락 관계)	가족기능	- 부모 간의 불화 또는 폭력 - 화목하지 못한 가족관계에 대한 아동의 관련성 - 중요 인물의 영향력 - 과도기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
	사회적 스트레스	- 빈곤, 실직, 고립, 차별, 또는 지리학적 고립 -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목록
	안정감에 대한 잠재력	- 동반자 관계 - 거주 장소
	타인과의 관계	- 확장된 가족과의 관계 - 타인과의 통합 - 전문가들과 협력하려는 의지 - 제공된 개입을 활용할 준비성 - 타인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개인적 기여의 소유감

자료: White(2005). Assessment of parenting capacity, p. 44 표를 재구성함.

2) Azar의 양육능력 평가

Azar, Lauretti, Loding(1998)은 부모의 양육능력 평가에서 특정 영유아의 발달적 능력과 욕구 그리고 이러한 발달적 욕구의 범위 안에서 반응해야하는 부모역량의 조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부모에게 필요한 기술의 목록을 5가지로 파악하였는데 양육(예: 자녀 관리하기), 사회적 인지 기술(예: 문제 해결하기), 자기통제(예: 충동 조절하기), 스트레스 관리(예: 극복하기), 사회적 기술(예: 공감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

양육능력 대상 평가는 부모(예: 가족력, 양육의 롤 모델과 내면화, 아동 보호 관여의 이력), 자녀(예: 발달상 이력, 현재 욕구, 부모에 대한 관점),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예: 부모/아동간의 연대, 방문 동안의 관찰, 위험 예측), 체계성(예: 서비스 계획 준수, 방문 일관성) 4개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척도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 임상적 평가척도로 유용하고 부모역량에 대한 의사결정시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수집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Azar, Lauretti, & Loding, 1998). 양육 기술 외에도 특히 사회적 인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자녀 양육과 개인적 사회적 인지 기술 간의 밀접한 관계를 다루고 있다.

〈표 11-4-3〉 Azar의 양육능력 평가 내용

부모에게 요구된 기술적 영역 예시	
양육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능력 - 아동 관리 기술의 목록(예: 긍정적, 부정적 전략의 균형, 훈육기술들) - 의학적 돌봄과 신체적 돌봄 기술(예: 의학적 도우에 대한 욕구 파악 능력,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고르는 능력) - 안전과 위급상황 반응 능력 - 따뜻하고 애정 어린 돌봄의 능력(예: 정서적인 인지/표현 기술) - 민감하고 분별적인 상호 반응 능력
사회인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수용능력 - 문제해결능력 - 아동의 능력에 대한 적절한 기대 - 인지적 반영/복잡성 - 장·단기적 사회화 목표들을 균형 잡는 것 - 긍정적인 태도 양식 - 지각적/실측적 기술 - 자기효능감
자기통제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동 조절 - 정확한/적응의 통찰력 - 긍정적 해석의 성향 - 자기감시기술 - 자기주장
스트레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관리기술 - 이완 능력 - 재생산적 능력 - 사회적 지지망을 모으고 유지시키는 능력 - 긍정적 평가 능력 - 수습 능력의 너비 - 재정적 계획 능력
사회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문제해결기술, 공감 - 애정적인 인지/표현 기술 - 자기주장 - 사회적 시작행동기술 - 개인들의 폭넓음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예: 가족, 친구, 고용주, 사회복지사, 아동들의 선생님)

자료: Azar, Lauretti, & Loding(1998). The Evaluation of Parental Fitness in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Cases: A Functional-contextual Perspective, p. 81을 재구성함.

3) 토론토 양육능력 지침

토론토 양육능력 지침은 Paul Steinhauer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아동복지와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나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침이다. 이 지침은 양육의 강점, 약점을 보다 폭넓게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학대, 방임의 가능성, 개입을 통한 변화 가능한 역량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Wolper, 2002). 이런 차원에서 토론토 양육능력 지침은 부모역량을 제고한다기 보다는 부모역량의 최소한 수준에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4-4>는 토론토 양육능력의 9가지 지침을 보여주는데 이 지침은 4가지, 맥락(지침1), 아동(지침2), 아동-부모 관계(지침3, 4), 그리고 한부모/양부모(지침 5-9)항목으로 나뉜다. 아래 지침은 영국과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 수용된 Framework for assessing children in need and their families의 영역과 아주 유사하다.

다른 부모역량 관련 지침과 달리 가족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맥락이라는 범주가 있어 다문화 사회에 가족이 접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개인이 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스트레스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II-4-4〉 토론토 양육능력 지침

범주	양육능력 지침
맥락	1a. 이민/이동/민족적 요인 1b. 현 스트레스 요인들
아동	2. 아동의 발달 과정
아동-부모관계	3. 부모/아동 관계에 전반적인 유형 4. 현 양육 능력에 대한 평가
부모	5. 충동 조절(긴장을 참는 능력) 6. 책임감에 대한 부모의 수용 7. 양육에 영향 주는 행동들 8. 사회와 관련된 태도 9. 부모의 임상학적 개입

자료: White(2005). Assesment of parenting capacity. p. 42-43 내용을 재구성함.

5. 부모역량에 관련된 정책 현황¹⁾

가. 교육부

1)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가) 목적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2011년 2월 14일 국가 차원의 학부모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우리나라 교육관련 정책 정보를 학부모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부모가 학교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든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현황

전국 8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광역시나 도 단위별로 설치된 센터의 수가 상이하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의 경우 14개가 설치되어 있는 데 반해 이와 인접한 전라북도에는 1개가 설치되어 있다.

〈표 II-5-1〉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개소

시도	기관수	시도	기관수	시도	기관수
서울	1	울산	1	전북	1
부산	1	경기도	26	전남	14
대구	1	강원도	18	경북	1
인천	6	충북	3	경남	1
광주	2	충남	7	제주	1
대전	2	세종	1		

자료: 학부모 ON누리(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이트(<https://www.parents.go.kr>)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2013. 9. 21).

다) 부모역량 관련 주요업무

1) 각 기관의 목적 및 현황 파악을 위해 학부모 ON누리(전국학부모지원센터)(<https://www.parents.go.kr>), 중앙보육정보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 유아교육진흥원(<http://www.seoul-i.go.kr/main/main.asp>)을 참고함.

학부모지원센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며 국가 차원의 학부모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허브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모역량 관련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5-2>와 같다.

<표 II-5-2> 학부모지원센터의 부모역량 관련 업무

주요업무	대상 및 업무내용
학부모 역량강화	- 모든 학부모 대상 - 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부모로서의 역량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직장 및 취약 계층 학부모를 위한 역량 개발 지원 - 기관 및 문화단체 등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자녀의 학업과 생활지도에 도움을 줌
아버지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 -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아버지 역할과 중요성 등 다양한 내용의 강좌를 통해 아버지의 육아를 지원함
학부모 대학/평생교육	- 모든 학부모 대상 - 지역의 교육여건 및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사이버 학부모강의	- 모든 학부모 대상 - 학부모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부모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사이버 콘텐츠를 운영

자료: 학부모 ON누리(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이트(<https://www.parents.go.kr>) 자료를 발췌하여 재구성함(2013. 9. 21).

2) 유아교육진흥원

가) 목적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전담 기관으로 유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하면서도 교육의 질이 보장된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전인 발달을 돕고 나아가 교육복지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부모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건전한 학부모 교육관 정립을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심신이 건강한 자녀양육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부모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나) 현황

전국 11개 기관이 있으며 분포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이다. 광역시를 위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시도수준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 부모역량 관련 주요업무

유아교육진흥원 부모역량 관련 업무를 보면 주로 부모상담, 체험학습, 인성이나 학습에 관한 지도방법 강좌 개설이 주를 이룬다. 체험학습에는 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며 활동하면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표 II-5-3〉 유아교육진흥원 부모역량 관련 업무

주요업무	대상 및 업무내용
학부모 교육원 운영	-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 - 일반연수 단기과정/심화과정(5회기),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학부모동아리(학부모 자율적 모임) 운영함
학부모 연수	- 해당지역 내 유치원생 학부모 -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함.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 지역 시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부모 - 유치원 실정에 맞는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통해 부모교육력을 제고시키자 함

자료: 교육부(2013).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p. 33-34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나. 보건복지부

1) 보육정보센터

가) 목적

영유아 보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부모역량 관련하여 영유아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기관과 연계한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 운영 현황

중앙 및 시·군·구에 총 50개 센터가 있으나 아래 <표 II-5-4> 에서와 보이는 것과 같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일 수 있도록 추가 설치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유아 대상의 부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접근성을 높이는 일임을 감안할 때 센터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표 II-5-4> 보육정보센터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개소

중앙 및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	25	울산	-	전북	-
부산	-	경기도	16	전남	-
대구	-	경기북부	-	제주	-
인천	3	강원도	1	경북	4
광주	-	충북	-	경남	
대전	-	충남	1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사이트(<http://central.childcare.go.kr>)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2013. 9. 7).

다) 부모역량 관련 주요업무

보육정보센터의 부모역량 관련 업무를 보면 예비부모교실, 산모교실, 아버지교실, 육아코칭을 위한 부모교육 등이 있으며 지역별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예비부모, 영유아 부모,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포함한 모든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정보센터의 부모교육 사업은 아래 <표 II-5-5>와 같다.

<표 II-5-5> 전국 보육정보센터 부모역량 관련 업무

구분 센터명	교육사업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집, 과연 안전할까요? - 우리 아이 생활 속에서 영재 만들기 - 선과 아름다운 가족 그리고 나눔 이야기 - 엄마가 모르는 아빠 효과 -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신나는 오감놀이

(표 II-5-5 계속)

센터명	구분	교육사업
대구		- 행복한 책 읽기 - 나를 알아야 아이가 보인다.
인천		- 우리 가족 캐릭터 액자 만들기 (2회) - 크리스마스 우드 방 문패 “스노우맨 만들기” (2회)
광주		- 영유아기 올바른 성교육 - 사랑스런 내 아이 이해하기 - 똑똑한 아빠, 지혜로운 엄마 - 내 자녀를 위한 사랑의 기술
울산		- 아버지교육 I~IV(총4회)
경기		- 부모교육 2회
경기북부		- 우리 아이 성격유형 심리 검사(애니어그램) - 아버지학교(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 부모자격증(PET) - 자녀와의 대화 - 우리아이 성범죄 예방 성교육 - 애착에 관한 부모교육 - 워킹맘 VS 전업맘의 ‘현실적인’ 교육전략
강원		- 눈높이, 꿈높이, 우리아이교육 - 리더가 리더이다 - 성공의 키워드 ‘유아의 도덕성 발달’ - 감성코칭 - 아버지의 영향력
충북		- 아토피 피부염 가족 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미래의 주역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리더십
충남		- 부모와 자녀의 관계증진을 위한 오감발달교육
경남		- 저출산 시대의 잉태, 태교, 출산, 육아
제주		- 동화구연과 함께하는 책읽기 - 행동과학에서 배우는 행동심리학 - 내 아이 건강은 나의 바른 식습관에서부터 - 가정에서의 소아응급 -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역할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2011). 2010년 전국보육정보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함.

다. 여성가족부

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목적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전달체로서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 문제를 예방, 상담, 치료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부모역량 강화 관련 목적으로 지역 센터, 협력기관과 함께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역량을 강화하며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와 직장 조성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모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생애주기별 가족의 형성 및 확대 축소에 따른 문제 상황 대처 역량 강화 및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예비부부, 예비부모를 포함한 부모 대상으로 전문가에 의해 표준화시켜 개발된 교육 매뉴얼을 통해 진행된다.

나) 현황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총 151개소로 앞서 살펴보았던 다른 기관들에 비해 수요자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I-5-6〉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단위: 개소

시도	기관수	시도	기관수	시도	기관수
중앙	-	대전	1	전북	6
서울	26	울산	2	전남	9
부산	9	경기도	32	경북	9
대구	7	강원도	7	경남	12
인천	9	충북	4	제주	2
광주	5	충남	10	세종	1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이트(<http://www.familynet.or.kr>)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2013. 9. 30).

다) 부모역량 관련 주요업무

부모역량 관련 업무를 살펴보면 생애주기별로 가족의 형성과 확대·축소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문제별로 그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한 교육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가족돌봄지원이나 가족교육상담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부모역량 제고에 관련된 업무로, 구체적 내용의 예시는 다음 <표 II-5-7>과 같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는 <표 II-5-8>에 나타나 있다.

<표 II-5-7>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역량 관련 업무

프로그램	주요 내용
생애주기별 (손)자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부모 및 조부모, 양육자 - 다양한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가정 내 불화 및 문제 예방을 지원 - 생애주기별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영유아를 둔 부부교육 프로그램, 아빠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
아버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특히 미취학, 초·중·고교 재학 중 자녀의 아버지) -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아버지에게 일과 가정 간의 역할에서 균형 잡힌 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새로운 아버지 역할 설계를 도움.
가족성장 아카데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부/모, 가족전체 - 연령, 생활주기와 상관없이 모든 가족들이 가정생활 전체 틀과 생활의 방향을 인식하고 부부관계, 부모 역할, 일·가정 균형, 가정경제, 가정관리 등 가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교육 제공 - 가정을 잘 설계하기 위한 우리 가족 진단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부모코칭 방법, 가정관리 및 일·가정 균형을 위한 시간관리 방법 등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이트 (<http://www.kihf.or.kr>)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이트 (<http://www.familynet.or.kr>) 자료를 발췌하여 재구성함(2013. 9. 13).

<표 II-5-8>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역량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주요 내용	대상
가족성장 아카데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생활주기와 상관없이 모든 가족들이 가정생활 전체 틀과 생활의 방향을 인식하고 부부관계, 부모 역할, 일·가정 균형, 가정경제, 가정관리 등 가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교육 - 가정을 잘 설계하기 위한 우리 가족 진단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부모코칭 방법, 가정관리 및 일·가정 균형을 위한 시간관리 방법 등 	부부, 부모, 가족전체

(표 II-5-8 계속)

프로그램	주요 내용	대상
아버지 교육(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양육방법 안내 · 남성 그리고 가족(이 남자가 사는 법): 한국 사회 남성의 생활세계 특성, 일 중심의 남성의 일상생활과 그 문제, 가족 구성으로서의 남성의 정체감, 일과 가족에서 균형 찾기 · 돌봄노동과 남성(돌봄노동의 주인 되기): 돌봄노동의 이해,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실태와 유형, 돌봄노동의 남성 참여 이유, 참여를 위한 노력 · 아버지 역할(아빠자격증, 취득하셨나요?): 부모 역할, 아버지 역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의 돌봄노동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아버지 (특히 미취학, 초·중·고 교 재학 중인 자녀의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1) · 아버지에게 일과 가정 간의 역할에서 균형 잡힌 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아버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아버지 역할 설계를 도움. · 일과 비전: 인생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생각,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 	아버지 (특히 미취학, 초·중·고 교 재학 중인 자녀의 아버지)
아버지 교육(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2) · 자신과 다른 이를 존중하기: 긍정적 관점을 통한 일과 가정 균형 찾기,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강점을 보는 시각으로 전환 · 부부의 행복디자인: 부부관계 강화의 동기를 높임, 부부의 사소통 역량 강화, 친밀감 및 긍정적인 부부교류 강화 · 아버지, 자녀들의 행복건축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와 관계 회복, 아버지들의 가족참여 고취 	아버지 (특히 미취학, 초·중·고 교 재학 중인 자녀의 아버지)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이트 (<http://www.kihf.or.kr>)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이트 (<http://www.familynet.or.kr>) 자료를 발췌하여 재구성함(2013. 9. 13).

부처별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담당 기관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부모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관에 따른 지역별 편중이 심하여 읍면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보다 많은 부모가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Ⅲ.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개발

1. 국내·외 관련 지표 분석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행복에 관련된 국제 지표를 분석하였다. 최근 영유아 대상 연구에서도 홍승애(2013)의 연구와 같이 국제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가 실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OECD 국가 간 영유아 웰빙지수, UNICEF 아동복지 영역별 순위,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을 영유아 행복을 위한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검토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국내·외 지표가 영유아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수가 아니며 대상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영역을 추출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영유아의 웰빙, 복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영유아의 행복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을 참고하였으며 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에 초점을 두었다. 연령 측면에서는 영유아에 해당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가. OECD 아동웰빙지표

OECD 아동웰빙지표(2009)는 영유아 삶의 질을 평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웰빙에 대한 국가 간 합의가 어렵고 보편적인 척도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아동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웰빙의 다면적인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며, 아동에게 직접 그들의 웰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OECD 아동웰빙지표는 6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적 복지, 주거와 환경, 학교의 질, 위험행동으로 나누어진다. 각 세부 내용 및 특징은 아래 <표 III-1-1>과 같다. 이 중에서 영유아에 해당되는 항목은 물질적 웰빙(Material well-being), 주거와 환경(Housing and environment),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이다. 각 지표별 영유아에 해당되는 세부지표를 살

퍼보면, 물질적 웰빙에서는 가계소득과 저소득층 가정 내 영유아 비율, 주거와 환경에서는 과밀과 빈약한 환경 조건, 건강과 안전에서는 신생아 저체중 비율, 영유아 사망비율, 모유수유 비율, 예방접종 비율이다(OECD, 2009).

〈표 III-1-1〉 OECD 아동웰빙지표

	지표특징				
	아동중심	년도	규격모음	연령 범위(세)	방책 관련성
물질적 행복					
평균 가처분 소득	x	2005	x	0~17 까지	높은
빈곤 가정 속의 아동	x	2005	x	0~17 까지	높은
교육의 박탈	✓	2006	✓	15	중간
주거 환경					
인구과잉	✓	2006	x	0~17까지	높은
가난한 환경 조건	✓	2006	x	0~17까지	중간
복지 교육					
평균 능력 점수	✓	2006	✓	15	중간
능력의 불평등	✓	2006	✓	15	중간
청소년 고용 비율	✓	2006	x	15~19 까지	높은
건강과 안전					
출생 시 저체중아	✓	2005	x	0	중간
영아 사망률	✓	2003-05	x	0~1 까지	중간
모유 수유 비율	✓	1998-06 ³	x	0	높은
예방접종 요금(백일해)	✓	2003-05	x	2	높은
예방접종 요금(홍역)	✓	2003-05	x	2	높은
신체 활동	✓	2005-06	✓	11~15 까지	높은
사망률	✓	2001-06 ²	✓	0~19 까지	중간
자살률	✓	2001-06 ²	✓	0~19 까지	중간
위험 행동					
흡연	✓	2005-06	✓	15	높은
음주	✓	2005-06	✓	13~15 까지	중간
십대 출산	✓	2005	✓	15~19 까지	중간
학교생활의 질					
왕따	✓	2005-06	✓	11~15 까지	중간
학교 선호도	✓	2005-06	✓	11~15 까지	중간

자료: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 32에서 발췌하여 번역함.

<표 III-1-2>는 OECD 30개 국가의 영유아 웰빙지수를 비교한 표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적 복지와 위험행동에 대한 점수가 2위로 아주 높으며, 건강과 안전은 10위, 물질적 복지는 13위를 기록하였다. 어느 한 국가도 모든 측면에서 뛰어나

지는 않으며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미국이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순위를 보이며 아이슬란드, 스웨덴은 종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준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웰빙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그리스와 멕시코다.

〈표 III-1-2〉 OECD 국가 간 아동웰빙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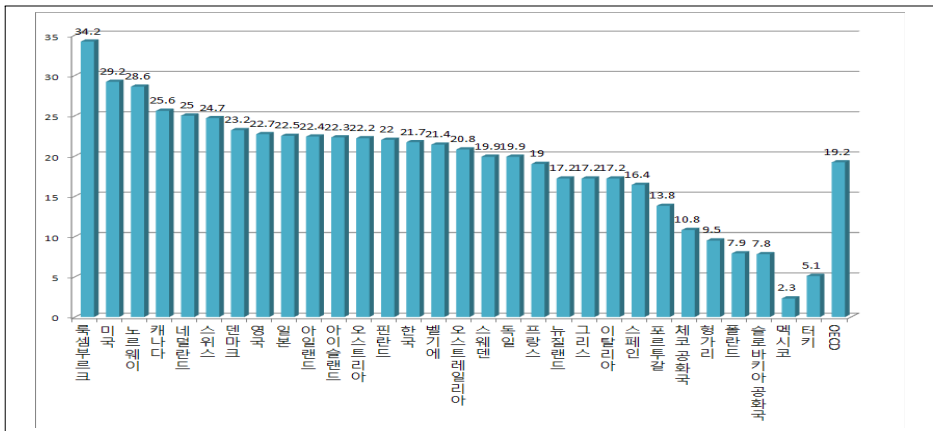
	물질적 웰빙	주거 환경	교육 복지	건강과 안전	위험 행동	학교 생활의 질
호주	15	2	6	15	17	n.a
오스트리아	5	9	18	27	27	11
벨기에	11	11	20	26	13	19
캐나다	14	n.a	3	22	10	16
체코공화국	18	24	19	5	23	17
덴마크	2	6	7	4	21	8
핀란드	4	7	1	6	26	18
프랑스	10	10	23	19	12	22
독일	16	18	15	9	18	9
그리스	26	19	27	23	7	24
헝가리	20	21	12	11	25	7
아이슬란드	8	4	14	2	8	1
아일랜드	17	5	5	25	19	10
이탈리아	19	23	28	17	11	20
일본	22	16	11	13	2	n.a
한국	13	n.a	2	10	2	n.a
룩셈부르크	3	8	17	7	14	23
멕시코	29	26	29	28	30	n.a
네덜란드	9	17	4	8	9	3
뉴질랜드	21	14	13	29	24	n.a
노르웨이	1	1	16	16	4	2
폴란드	28	22	8	14	20	15
포르투갈	25	20	26	18	6	21
슬로바키아공화국	27	25	24	1	22	25
스페인	24	13	21	12	16	6
스웨덴	6	3	9	3	1	5
스위스	7	n.a	10	21	5	13
터키	30	n.a	30	30	29	12
영국	12	15	22	20	28	4
미국	23	12	25	24	15	14

주: 푸른색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0.5표준편차 높은 수치임을 의미하며 짙은 회색은 반대로 0.5표준편차 낮은 수치임을 의미함.

n.a는 자료 없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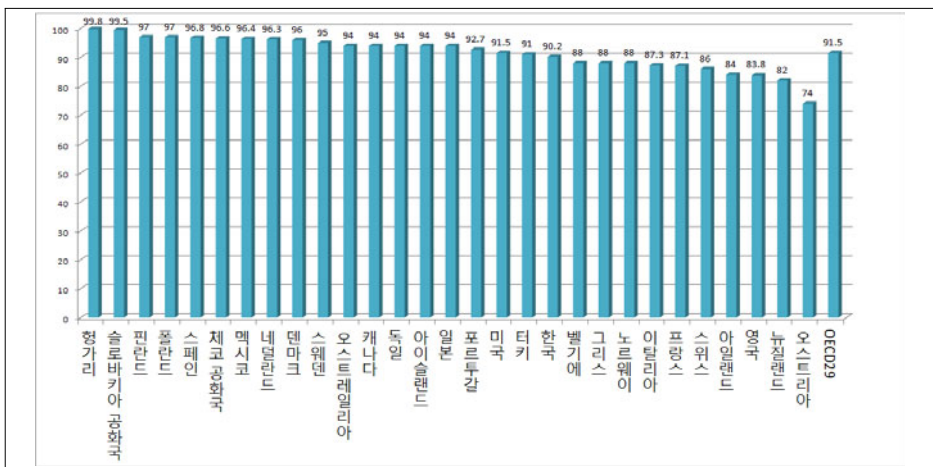
자료: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23에서 발췌함.

지표별 우리나라의 OECD 아동웰빙지수는 가계소득이나 저소득층 가정 내 아동 비율 측면에서 OECD 평균 이상이다. 가계소득이란 0-17세 사이의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OECD 평균은 \$19,200인 데 반해 한국은 \$21,700인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내 영유아 비율은 OECD 평균 12.4% 보다 낮은 10.7%를 나타내었다(그림 III-1-1) 참조).



자료: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 34에서 발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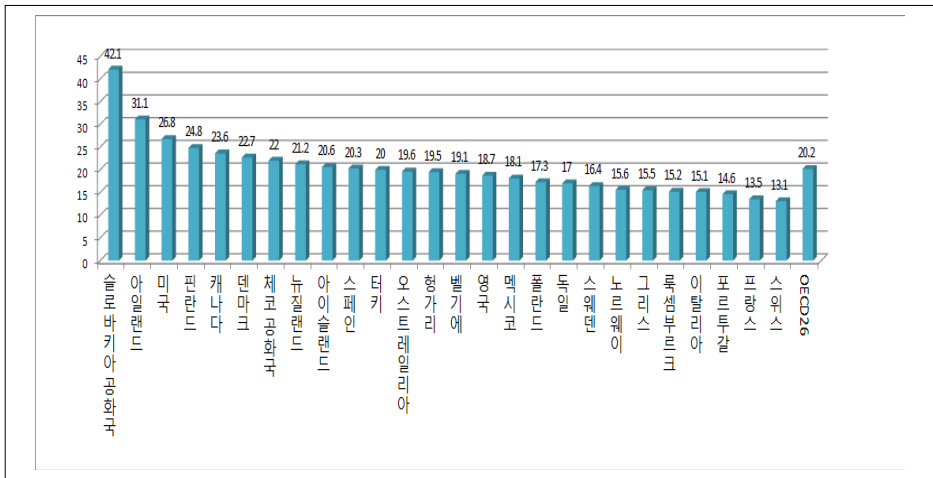
[그림 III-1-1] OECD 국가 가계 실질 소득 비교 (0-17세 아동 및 청소년 가정)



자료: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 49에서 발췌함.

[그림 III-1-2] OECD 국가 아동 흥역 예방접종 비율

영유아 사망률은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하며 신생아 저체중 측면에서는 OECD 평균보다 6.5%나 낮은 4.3%이다. 예방접종 비율은 백일해의 경우 OECD 평균 93.8%보다 높은 97.0%, 홍역은 OECD 평균 91.5%보다 약간 낮은 90.2%를 보였다([그림 III-1-2] 참조). 영유아의 신체 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관한 자료는 없지만 OECD 국가 5개국 중 1개국만이 OECD의 권고안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신체 활동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놀이나 신체를 이용한 활동, 바깥놀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료: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 50에서 발췌함.

[그림 III-1-3] OECD 국가 한주동안 신체활동에 매일 참여한 아동 비율

나. UNICEF 아동복지

유니세프는 21개 경제선진국 아동 및 청소년의 삶과 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제시하였다. 유니세프의 보고서는 기존의 보고서들이 OECD 국가의 전반적 아동복지에 관한 지표를 소득 빈곤으로 대체해 왔던 것에 비해 상당히 진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복지 영역은 총 6개 영역인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복지, 관계, 행동과 위험, 주관적 복지로 구성되어 있다 (유니세프, 2007).

〈표 III-1-3〉 UNICEF 아동복지 지표

영역	구성요소	지표
물질적 복지	상대적 소득 빈곤	- 국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비율
	무직 가구	- 가구 내 모든 성인이 무직인 아동 비율
	빈곤 관련 자료	- 저소득 가구 아동의 비율 - 교육적 자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 비율 - 집에 10권미만의 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 비율
건강과 안전	0-1세의 건강	- 만 1세 미만의 영아 1,000명당 사망자 수 - 저체중아 출생 비율(2.5 kg 미만)
	예방을 위한 의로서비스	- 홍역, DPT,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은 12-23 개월 아동의 비율
	안전	- 0-19세 아동 1,000명당 사고와 상해로 인한 사망자수
교육 복지	15세 아동의 학업성취	- 읽기 능력 성취의 평균 - 수학 능력 성취의 평균 - 과학 능력 성취의 평균
	기초 능력 이상	- 학업 중인 15-19세 비율
	취업으로의 이행	- 15-19세 아동 중 교육, 훈련 또는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비율 - 저숙련 직업을 희망하는 15세 아동의 비율
관계	가족구조	- 한부모 가정의 아동 비율 - 재혼 가정의 아동 비율
	가족관계	- 주당 1회 이상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한 아동 비율
	또래관계	- 또래들이 '친절하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11세, 13세, 15세 아동의 비율
행동과 위험	건강행동	- 아침식사를 하는 아동 비율 - 매일 과일을 먹는 아동 비율 - 신체활동이 활발한 아동 비율 - 과체중 아동 비율
	위험행동	- 15세 아동의 흡연 비율 - 2회 이상 음주 경험이 있는 아동 비율 - 대마초 흡연 비율 - 15세 이전에 성경험을 한 아동 비율 - 콘돔 사용 비율 - 10대 출산율

(표 III-1-3 계속)

영역	구성요소	지표
행동과 위험	폭력 경험	- 지난 12개월 간 싸움을 해 본 경험이 있는 11세, 13세, 15세 아동 비율
		- 지난 12개월 간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비율
주관적 복지	건강	-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보통' 혹은 '나쁨'으로 응답한 아동 비율
	학교생활	- 학교를 '매우 좋아한다'고 답한 아동 비율
	개인적 복지	- 생활만족척도에서 중간점 이상에 점수를 준 아동의 비율 - 개인적 복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아동 비율

자료: 유니세프(2007). 경제선진국의 아동복지 지표, p. 4-38의 지표만을 재구성함.

UNICEF 아동복지 지표에 의하면 전반적인 아동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아동복지 6개 영역 모두에서 상위 10위 안에 든다.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상위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눈에 띈다. 하지만 아동복지수준과 국민 1인당 소득 간에는 명확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코공화국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등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들보다 아동복지에 있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순위에 있다(UNICEF, 2007).

물질적 복지 측면에서 아동복지를 보면 빈곤 속에서 성장하는 영유아가 더욱 취약하다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UNICEF, 2007). 앞서 아동복지수준과 국민 1인당 소득이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유아의 경우, 건강이나 학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어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망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강과 안전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영유아 관련 지표가 많은데, 만 1세 미만의 영아 1,000명당 사망자 수, 출생 시 저체중 비율, 예방 접종 비율이 있어 아동복지 수준을 가늠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다. 교육복지 수준을 보면 캐나다와 벨기에가 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종합해보면 벨기에와 캐나다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하위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4〉 UNICEF 아동복지 지표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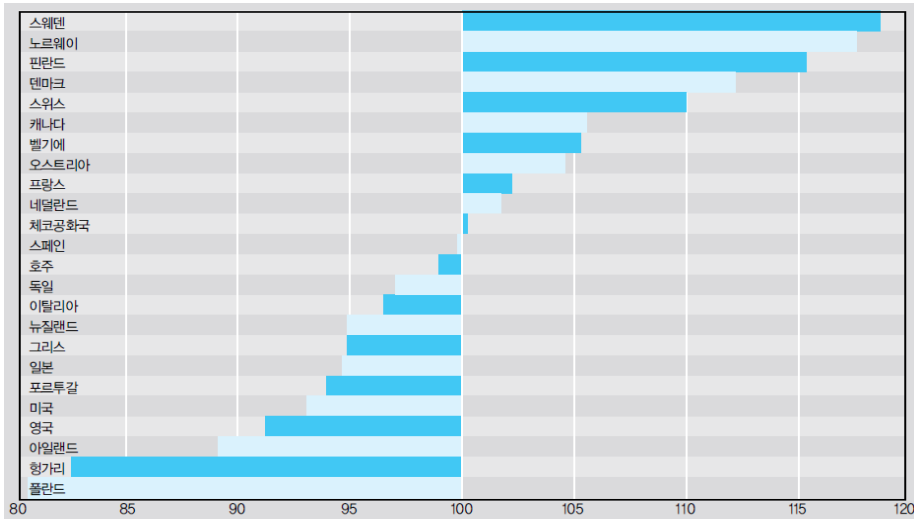
아동복지 영역	(6개 영역) 평균 순위	영역 1 물질적 복지	영역 2 건강과 안전	영역 3 교육 복지	영역 4 관계	영역 5 행동과 위험	영역 6 주관적 복지
네덜란드	4.2	10	2	6	3	3	1
스웨덴	5.0	1	1	5	15	1	7
덴마크	7.2	4	4	8	9	6	12
핀란드	7.5	3	3	4	17	7	11
스페인	8.0	12	6	15	8	5	2
스위스	8.3	5	9	14	4	12	6
노르웨이	8.7	2	8	11	10	13	8
이탈리아	10.0	14	5	20	1	10	10
아일랜드	10.2	19	19	7	7	4	5
벨기에	10.7	7	16	1	5	19	16
독일	11.2	13	11	10	13	11	9
캐나다	11.8	6	13	2	18	17	15
그리스	11.8	15	18	16	11	8	3
폴란드	12.3	21	15	3	14	2	19
체코공화국	12.5	11	10	9	19	9	17
프랑스	13.0	9	7	18	12	14	18
포르투갈	13.7	16	14	21	2	15	14
오스트리아	13.8	8	20	19	16	16	4
헝가리	14.5	20	17	13	6	18	13
미국	18.0	17	21	12	20	20	-
영국	18.2	18	12	17	21	21	20

주: 본 개요에 자료 불충분으로 제외된 국가는 호주, 아이슬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한국, 터키임.

자료: 유니세프(2007). 경제선진국의 아동복지, p. 2에서 발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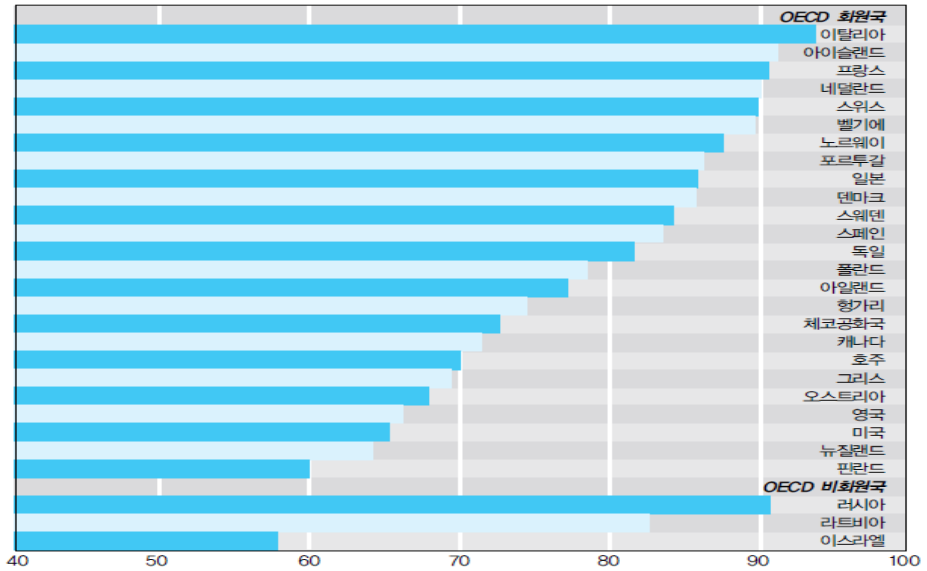
행동과 위험 측면에서는 아동 자신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관심이 되는 행동의 양상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비만, 약물 남용, 폭력, 성적 위험 감수행동 등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관계에 대한 측면은 복지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측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족구조에 관한 자료와 조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답하도록 하였다. 영유아기에도 적용해볼 수 있는 지표는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횟수나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다. 11세, 13세, 15세를 대상으로 한 관련 결과는 다음 [그림 III-1-5]와 같다.



주: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위치가 표시되었으며 표준편차를 단위로 사용하였고
 용이한 해석을 위해 결과는 평균 100, 표준편차 10으로 계산함.
 자료: 유니세프(2007). 경제선진국의 아동복지, p. 4에서 발췌함.

[그림 III-1-4] OECD 회원국 아동의 물질적 복지개요



자료: 유니세프(2007). 경제선진국의 아동복지, p. 24에서 발췌함.

[그림 III-1-5] 부모와 일주일에 5-6회 정도 식사를 같이 하는 15세 비율

주관적 복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복지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의식을 고려하였다. 복지감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영유아는 주관적 복지 응답 대상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동의 복지 지표에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포함시킨 점은 영유아 부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영유아의 직접적인 의견을 담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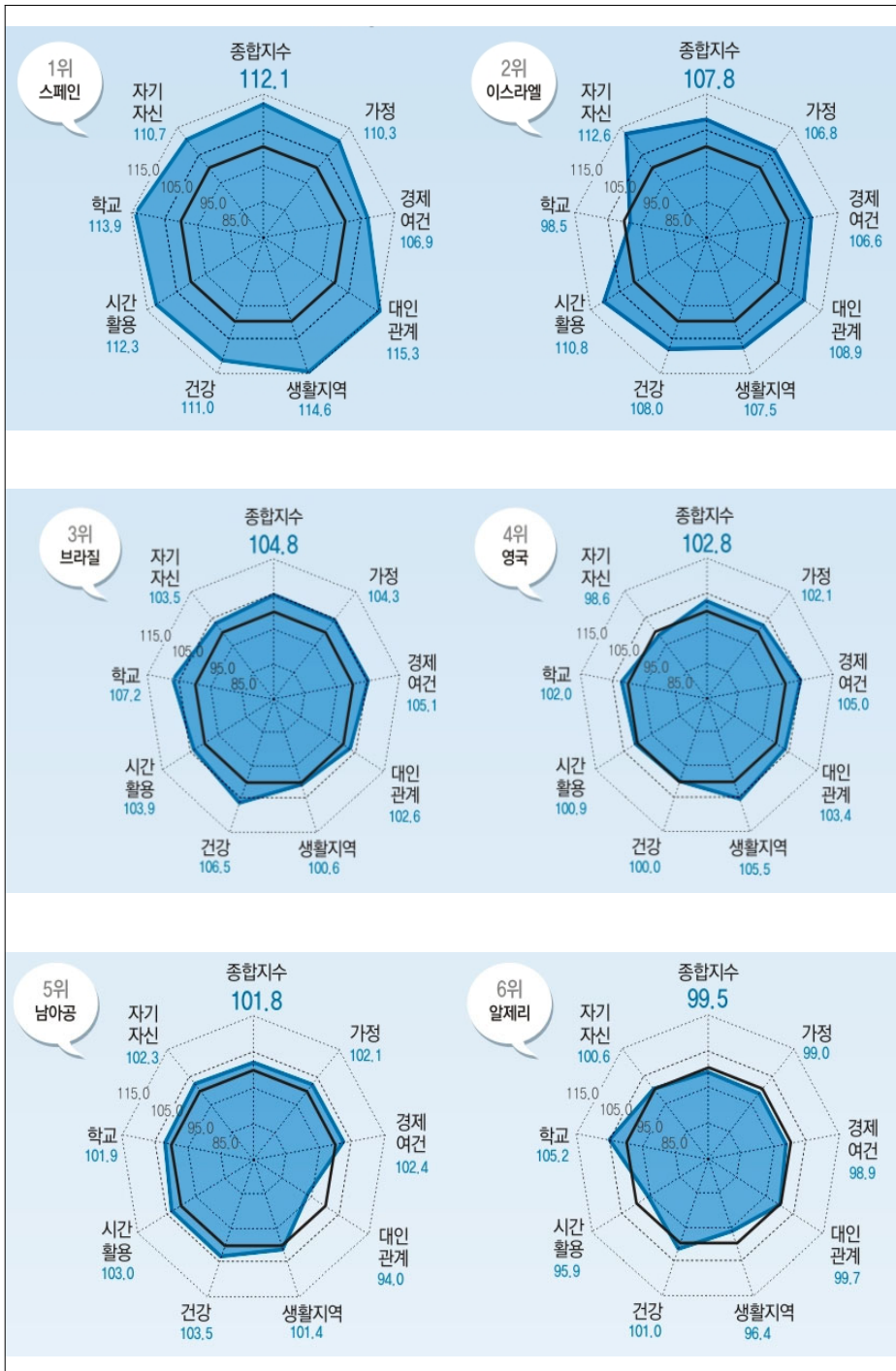
다.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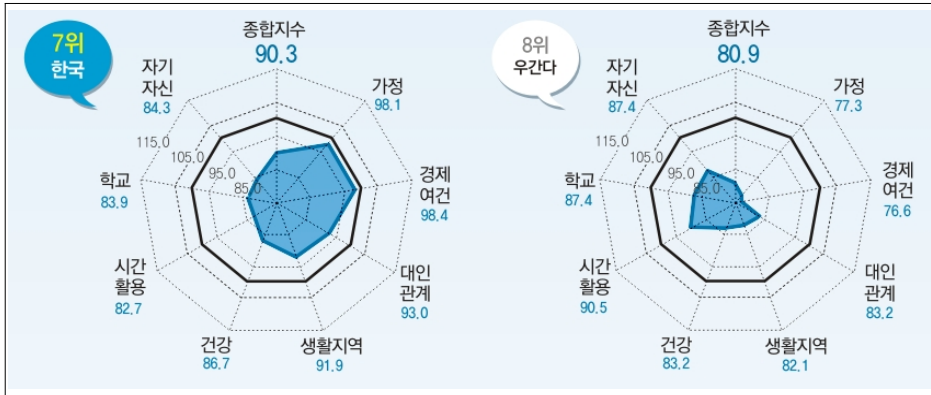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는 어린이가 느끼는 행복도를 8개 영역, 29개 항목으로 나누어 수치화한 지표이다. 한국, 미국,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등 국제아동지표학회 소속 10개국 연구진이 공동 개발하였다. 어린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기존 다른 지표가 가진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동아일보, 2013).

2013년 발표한 어린이행복종합지수 산출에는 8개국의 어린이 1만 4030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조사는 국제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진행하였다.

어린이행복종합지수 결과를 보면(이봉주·유민상, 2013), 한국은 90.3점으로 조사 대상 8개국 중 7위에 그쳤다. 1인당 GDP가 한국의 1/5 수준인 알제리(6위, 99.5점)보다 낮아 행복과 경제력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였다. 옷이나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소유에 대한 평균은 알제리의 2배, 우간다의 4배가 넘지만 경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8개국 중 7위에 그쳤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학교만족도와 시간활용에 대한 만족도로 모두 8위로 나타났으며 가정과 대인관계의 만족도도 모두 7위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갖는가?'란 세부질문에 3점 만점에 평균 1.52점을 받아 8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른이 어린이의 권리를 얼마나 지켜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학업과 사교육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가족 간의 소통이나 감정적 공유가 낮음을 보여준다.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산출 연구에 참여한 국가가 8개국으로 비교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행복지수가 7위라는 점은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삶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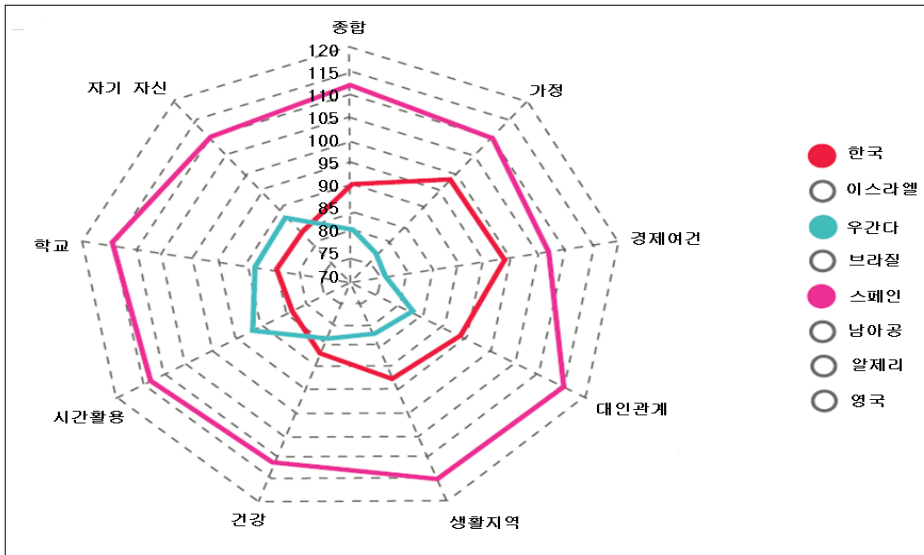




자료: 동아닷컴(2013). 스마트폰 가진 어린이, 행복지수는 8개국 중 7위 그쳐(2013. 6. 22).

[그림 III-1-6]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비교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스페인과 우간다와 비교해 보았을 때, 스페인에 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행복지수가 크게 낮으며 우간다와 비교할 경우, 가정이나, 경제여건, 대인관계, 생활지역에 대한 행복지수는 높으나 시간 활용, 학교,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지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동아닷컴(2013). 한국 어린이, 행복지수는 8개국 중 7위 그쳐(2013. 6. 22).

[그림 III-1-7]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 한국·우간다·스페인

라.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은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행된 국가행동계획연구의 일환으로, 한국 아동복지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측정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인지를 고려하였으며, 단순히 수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 후에 해당 영역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표의 기능적 역할을 살린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총 9개 영역의 40개 항목이 한국주요아동지표로써 선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06; 이옥, 2012).

이옥(2012)에 의하면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은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의에서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10년 간 국가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면서 만든 조치이다. 하지만 지표 선정이나 개발에 대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표라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개발한 지표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이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에 주는 시사점은 주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체크리스트 문항 구성에 도움을 준 지표는 규칙적인 식사, 신체를 이용한 운동 기회,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및 상담 여부, 치과 진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미아 방지, 컴퓨터 사용 시간 조절 등으로 주로 건강과 안전 관련 부분이다.

〈표 III-1-5〉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

주요 영역	지표
아동인구	아동인구, 출산
가족구조 및 생활	가족형태, 한부모 가정 비율, 모의 연령별 출산 구성비, 기대자녀 수 및 이상 자녀수
건강	저체중아 출산율, 영아사망률, 장애 종류별 장애 출현율, 2일간 끼니별 식사 여부에 따른 결식률, 운동 실천율, 평소 피로 인식도, 평소 스트레스 인식도,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 후 결과상담 여부
아동빈곤	아동빈곤율, 아동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아동수급자 연령대별 현황
사회적 보호	요보호 아동 발생 수 및 보호 유형,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 현황, 입양기관수와 입양아동수

(표 III-1-5 계속)

주요 영역	지표
안전	아동학대, 실종아동(미아)접수 및 상봉 현황, 어린이 사고사망, 학교폭력
교육 및 보육	진학률, 학업중단률, 학급당 학생 수, 학업성취도,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육
아동의 사회생활과 참여	컴퓨터 사용시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청소년의 여가활용, 아르바이트
비행 및 이탈	흡연율, 음주율, 가출청소년 연령별 현황, 청소년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청소년 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2006). 2006 한국의 주요아동지표를 정리함.

2. 부모역량 요구 분석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영유아 부모, 교사, 유아를 면담 하였으며 유아 면담을 위해 대집단면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한 개인면담,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전문가 의견 외에도 부모역량에 관한 부모의 의견이나 육아지원기관 교사의 의견을 물어 다양한 측면에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에 대한 요구를 조사 하였다.

요구조사에 유아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떨어지며 데이터를 얻기에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범주나 내용에 의사소통이 비교적 가능한 유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고무적이고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이옥, 2012). 유아 의견의 신빙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에 유아의 공통적인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유아의 의견을 함께 조사 하였다.

가. 영유아 부모의 요구

1) 자녀의 기질이나 성격에 대한 이해

영아의 부모는 자녀의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양육하는지 궁금해 하면

서 자신이 자녀의 기질이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였으며 자녀의 특성에 따라 어떤 양육방법이나 훈육방법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었다.

저는 우리 아이 기질이나 성격이 뭔지 모르겠어요. 애는 정말 많이 움직이거든요. 어떨 땐 하루 종일 너무 지쳐서 내가 따라다니질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애의 기질인가 싶거든요. 혼낼 때나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아이의 기질에 따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머니 A, 만1세 남아, 2013. 3. 21)

처음에 책대로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이를 딱 키워보니까 책이 다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엄마가 빨리 캐치를 하고 그걸 빨리 엄마가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 B, 만 1세 남아, 2013. 3. 21)

2) 갑작스런 감정에 대한 대응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부모라면 거의 모두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부모 자신의 갑작스런 화나 짜증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는 유아 부모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 갑자기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화가 나면 전 정말 아이에게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못되게 해요.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애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데 정말 화가 나요. 나중에 생각하면 좀 미안하죠. (어머니 G, 만4세 남아, 2013. 5. 2)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이에게 내가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순간 너무 헛갈리는 거야. ‘어 엄마가 항상 이렇게 해주다가 갑자기 엄마가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그 아이는 되게 혼동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순간 너무 미안하고 다시 또 급(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중략)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아이가 제 감정 기복 때문에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어머니 D, 만1세 여아, 2013. 3. 21)

3) 자녀의 욕구 및 흥미 파악

부모들 스스로 자녀의 욕구나 흥미를 얼마나 알고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관이나 양육신념이 강

할수록 자녀에게 부모가 정해놓은 기준과 신념을 강요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자녀의 의견을 물어 수용하거나 그들의 욕구 및 흥미를 고려하기 어려워했다. 자녀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엄마 기준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진짜 아이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부터 파악을 해보고... (중략)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7세가 되면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생기더라고요. (어머니 E, 만6세 남아, 2013. 7. 19)

물어봤어요. “정말 하고 싶니?”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니까 (중략) ‘아이가 일단 정말 원하는지부터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F, 만5세 여아, 2013. 7. 19)

저 같은 경우는 내 잣대로 큰애를 키우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근데 우리 애가 크니까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이가)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아이 생각을 먼저 들어주고 내 생각을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어머니 E, 만6세 남아, 2013. 7. 19)

4) 아버지의 양육 지원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고 젊은 층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버지의 양육지식이나 양육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양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아버지와 함께 하는 양육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빠가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서툰 거예요.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처음엔 그게 싸움이 많았거든요. “왜 그래? 당신 자식이야 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싸우다가 결론을 딱 내린 게 책을 한 권을 사 줬어요. 근데 그걸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읽어서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중략) 엄마가 단순히 화만 낼게 아니고 아빠한테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A, 만1세 남아, 2013. 3. 21)

저희 같은 경우는 아빠는 항상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전 일단 엄마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애가 다른 걸 할 때 아빠가 와

서 얘기를 해줘요. “너는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아이의 입장에서 얘기해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네가 이렇게 잘 못했 고…”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깐 이제 서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 죠. 얘기를 키울 때 엄마 혼자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빠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머니 E, 만6세 남아, 2013. 7. 18)

5)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으로 부모는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는 유아 면담에서도 유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으 로 경험의 종류나 질보다도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부모의 역할로 인해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항상 하는 편이라 서… (중략) 솔직히 주말이나 이럴 때는 같이 여행도 다니고,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공원에 가서 공놀이를 하는 것만 해도 아이들한테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머니 I, 만5세 여아, 2013. 7. 19)

엄마, 아빠, 식구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만약에 TV 만화를 하나 보더라도 다 같이 집중해서 보면서 우리 아이가 “엄마, 저건 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러네.” 라고 호응해줄 때, 그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어머니 E, 만6세 남아, 2013. 7. 19)

6) 행복한 가정환경의 조성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이지만 부모역량은 부모의 개인적 행복에 영향을 받는다. 자녀의 행복에는 부모의 행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가정의 행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행복한 가정 있잖아요. 그니까 부부가 매일 싸우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그런 모습 안 보이고 대화로 풀어나가고 그런 거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는 일단은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어머니 H, 만5세 남아, 2013. 7. 19)

7) 양육지식 습득을 위한 다양한 활동 참여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전문서적이거나 육아정보 사이트, 부모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영유아 행복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고 모임 등에서 육아에 관련된 정보나 방법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저는 아이가 아팠을 때 주위에서 민간요법을 활용하는 걸 너무 많이 본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의로서적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아이들 열이 났을 때 어떻게 해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어떤 엄마는 아이를 알코올로 닦는 것도 봤거든요. 열 내리라고 소주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애 몸에다가 닦아주는 걸 봤어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머니 E, 만6세 남아, 2013. 7. 19)

서점에 유아서적을 따로 많이 팔잖아요. 거기 보면 1위 판매라는 책이 있어요. 엄마들 사이에도 1위가 되는 책이 있더라고요. (중략) 책이 팔렸다는 이유는 그만큼 굉장히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요즘은 유아 상식도 굉장히 풍부한 엄마들이 많거든요. 전문가 못지않게. (어머니 B, 만1세 남아, 2013. 3. 21)

거기(육아정보 사이트)에 모든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용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임신했을 때는 어떤 예방주사 꼭 맞아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토털로 다 있어요. 그니까 엄마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어머니 D, 만1세 여아, 2013. 3. 21)

엄마들이 모임을 가질 때 서로 한 번 짚은 얘기를 하고 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D, 만1세 여아, 2013. 3. 21)

나. 육아지원기관 원장·교사의 요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으로써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많아지고 주말에도 부모가 피곤하여 자녀와 시간을 보내더라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기관에서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1)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

영유아 부모와의 면담에서도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이 논의되었

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안되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외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사가 보기에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나 상호작용 시간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취업모가 늘어나고 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부모와의 시간이 부족한 현실임이 드러났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에 가정적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저희 원도 보면 거의 3분의 2이상이 직장을 갖고 이제 워킹맘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가까이 있는 시간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또 피곤하니까... (중략) 아무래도 부모님들끼리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화시간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제 아이들한테 괜히 화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중략)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유치원에 오면 공격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원장 B, 2013. 7. 8)

직장에 계시는 어머님들, 종일반 하고 가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냥 씻고 자고 충분한 대화를 못 나누는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어떻게 지내는지 못 듣고 그냥 자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질적인 그런 대화 상호작용이 그래도 하루에 20분, 10분만이라도 있다면... (유치원교사 D, 2013. 7. 18)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무슨,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거 할 때 어땠어? 재밌어? 어떻게 만들었어?”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 대화하는 것 있잖아요. 하루를 지내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걸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일과에 대해서 돌아보면 뭐 “어떤 친구랑 놀이를 했어? 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집교사 B, 2013. 7. 19)

한 아이가 작년에 연장 반을 하고 올해도 연장 반을 신청을 했어요. 올해 초까지 하다가 애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거를 (아이가) 되게 막 비관적으로 엄마한테 표현을 다 했어요. (중략) “엄마는 나를 미워하잖아. 내가 집에 안 왔으면 좋겠잖아.” 막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어린이집교사 B, 2013. 5. 2)

여행가거나 그냥 엄마, 아빠와의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나면, 보내고 난 것에 대해 되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교사 B, 2013. 7. 19)

2) 부모의 양육책임감 강화

육아지원기관이나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감이 약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사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기관에 바라기만 한다는 현상을 부모의 양육책임감 약화로 설명하였다.

부모 중에서 상담을 오라고 하면 계속 안 오는 부모도 있어요. 그럼 제가 계속 시간을 약속하려고 전화를 해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전화로 한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부모는 자기는 자기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아줌마나 할머니한테 말하라고 해요. (어린이집원장 A, 2013. 5. 2)

종일반에 말기시는 경우는 전부 말기시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니까 다 유치원에서 해주길 바라는 거죠. 내가 못해주는 부분은 유치원에서 해주길 바라고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믿으시니까 혹여나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너무 그거에 대한 실망이 더 크신 거예요. (유치원교사 D, 2013. 7. 18)

3) 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 필요

교사는 장시간 유아를 기관에 머무르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부모가 유아에 대한 발달이나 애착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의 발달에 맞게 대화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어른의 관점으로만 자녀를 대하지 않고 자녀의 발달수준이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말하였다.

우리 반 아이 중에서 정말 야간보육을 거의 매일 신청하는 애가 있어요. 엄마가 바쁜 곳에서 일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매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애가 하루 종일 여기 있는데 엄마와의 관계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지... 아직 어린대 말이죠. (어린이집교사 A, 2013. 5. 2)

함께 보낼 때 어떤 그 대화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에 맞춰서 아이가 하는 것들을 캐치를 잘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수준을 높게 잡으셔서 어렵게 풀이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어떻게 지내요?”,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하다보면 아이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어른의 관점에서 “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좀 아이의 진짜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유치원교사 C, 2013. 7. 18)

4) 지나친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단점 인식

부모가 자녀의 흥미나 특성보다는 부모와의 경쟁이나 자기만족을 위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일찍부터 무리하게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육아지원기관 내에서 하는 특기활동도 과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세대가 바뀌다보니까 (종략)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부모님들이고 자기 학창 시절에 본인들도 그렇게 자라다보니까 그것을 똑같이 아이들한테 반영을 해서 벌써부터 아이들에 대한 조기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애들이 행복감이라는 것을 전혀 많이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치원원장 C, 2013. 7. 18)

이제 직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학원으로 아니면 집으로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지 못 할 때는 원내에서 하는 특기활동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이 사실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이 좀 엄마, 아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유치원교사 D, 2013. 7. 18)

5)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조언 수용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이해해야 하지만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자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모습을 중립적으로 볼 줄 알고 자녀에 대한 조언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조언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늘어나면서 자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부모역량이 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성향일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엄마가 좀 파악이 되면 제가 그 아이 특성에 맞게 해줄 수 있는데 엄마조차 그걸 잘 모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유치원교사 C, 2013. 7. 18)

똑같은 교육비를 받는데 왜 우리 아이는 못하냐고 그래서 “애들마다 재능이 다르죠. 받아들이는 입장도 다른데...” “그래도 똑같은 교육비를 받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아이만 뒤떨어지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모님도 계세요. (유치원원장 C, 2013. 7. 18)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정말 열이면 둘 정도 이해를 할까? 나머지는 다 “우리 아이가 어때서요?” 이런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절대 없다.” 이렇게 반응이 먼저 나오세요. (유치원원장 C, 2013. 7. 18)

사실은 교사와의 소통이 진짜 원활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사실 교사들이 그걸 잘해주면 좋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엄마들도 이제 그러길 원하시긴 하세요. 저도 대화하다보면 이제 궁금하고 안보이니까 자주 연락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좋은 행동이든 안 좋은 행동이든 자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유치원교사 C, 2013. 7. 18)

6) 자녀의 단점보다 장점을 표현

부모가 자녀의 단점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영유아의 발달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다른 또래보다 발달이 늦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나 흥미에 따라 활동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의 단점을 부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분명히 아이들이 여섯 살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엄마가 ‘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써줘야겠구나, 키워줘야겠구나.’ 생각하면 되게 좋을 텐데 좋은 점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럼 단점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유치원교사 C, 2013. 7. 18)

어머님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는 항상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만 그런가요?”, “우리 아이만 못났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보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 말을 애한테 할까 그걸 보셔야 되는데, 엄마는 ‘우리 아이만 뭔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치원교사 D, 2013. 7. 18)

7) 행복한 가정의 필요

앞서 부모가 영유아 행복을 위해 행복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교사도 행복한 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아래 의견을 보면 한부모 가정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한부모 가정이 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엄마나 아빠나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가 특히 아이들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한부모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양쪽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 한부모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일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애들이 양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또 이제 잘 챙기면 좋은데 많이 못 챙기세요. 그러면 “왜 우리 엄마는 못 챙기지? 올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나는 항상 이래요.” 그니까 이런 반응들이 애들이 많아요. (유치원원장 C, 2013. 7. 18)

8) 회피적 양육태도

부모에게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자녀양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지

이다. 부모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거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부의 조언이나 계획을 수용하여 점차적으로 양육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제 꼭 집어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렇게 실천하는 게 없어요. 아이가 누가 봐도 심각하고 엄마도 알아요, 심각한 거를. 우리 아이가 그런 거를 알면서도 빨리 빨리 실천을 못하시고, 시간만 이렇게 계속 가죠. (어린이집교사 A, 2013. 7. 19)

다. 유아의 요구

행복을 위한 유아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가 행복했던 경험과 속상했던 경험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유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영유아 행복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고 Self-체크리스트 문항 개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유아의 행복했던 경험은 주로 부모와 함께 활동했던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흥미로운 부분은 경험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또래와의 즐거운 놀이나 색다른 경험 등이 행복했던 경험에 속했다. 반대로 속상했던 경우는 부모의 신체적 체벌이나 훈육을 받았던 경험에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와의 경험에서도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나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지지 못하는 등,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속상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부모역량 영역 중 가족관계나 생활지도 영역의 문항 개발에 영향을 주었다.

1)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

대다수의 유아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일상적인 시간 또는 활동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놀이를 하거나, 외출할 때 행복하다고 응답한 유아들이 많았는데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의 종류에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에서 더 의미를 찾고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요즘은 특히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이하러 오는 시간이 부족한데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나친 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양질

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흥미로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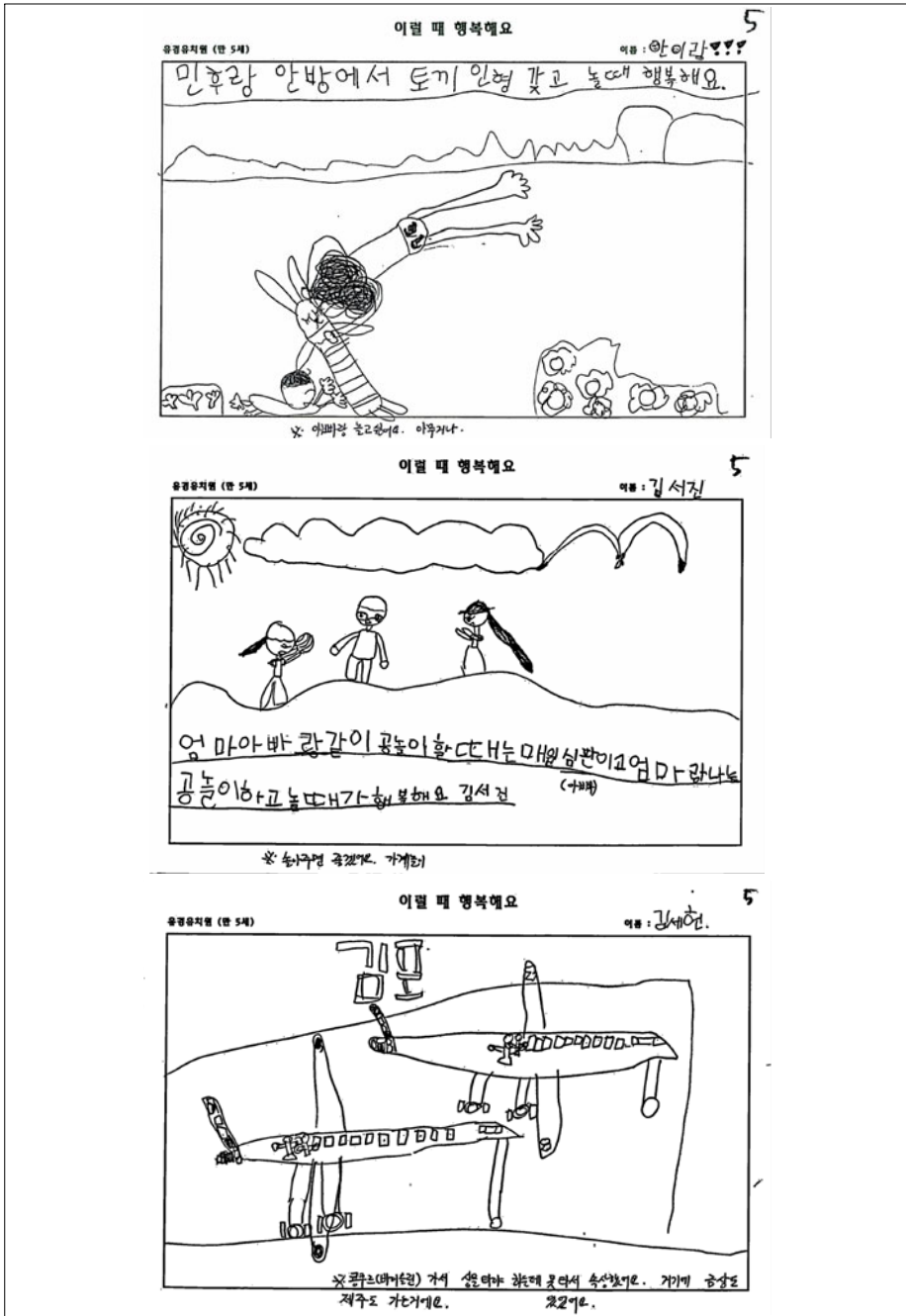
부모와의 경험 외에 유아들은 친구와 함께 놀거나 같은 활동을 공유할 때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유아들은 가정 외의 색다른 장소에 가거나, 외출할 때, 재미있는 경험을 할 때에도 행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기분이 좋았던 경험에 대한 유아의 답변

Q. 언제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구분	만 4세	만 5세
부모님과 함께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가 장난감 고쳐주실 때 - 가족들이랑 소풍갈 때 - 엄마, 아빠랑 같이 호수공원 가서 물놀이 할 때 - 아빠랑 키즈카페 가서 놀 때 - 아빠랑 축구할 때 - 아빠가 쓰고 잡으러 올 때 (잡기놀이 할 때) - 엄마랑 같이 놀이터 갈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 아빠랑 밥 먹을 때 - 엄마랑 같이 씻을 때 - 엄마랑 같이 공부할 때 - 엄마, 아빠랑 같이 TV 볼 때 - 엄마, 아빠랑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 때 - 엄마하고 물놀이 할 때 - 엄마랑 같이 모래놀이 할 때 - 엄마하고 놀러갈 때 - (엄마랑 같이) 소풍갔을 때
또래와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에서 만나서) 친구랑 같이 놀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랑 같이 놀 때 - 친구가 웃긴 것 했을 때 - 친구랑 같이 밥 먹을 때
흥미로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간 날 - 놀이동산 갈 때 - 수영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차(KTX) 탔을 때 - 할머니 댁 갔을 때

3) 부모의 적절한 훈육

유아들은 부모가 화를 내거나 신체적·언어적 체벌을 가할 때 매우 속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와 체벌이 유아에게는 훈육이 아닌 극심한 공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신에 대한 신체적 체벌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부부간의 언쟁 및 싸움도 유아의 행복에 반하는 경험들로 나타나 부모의 적절한 훈육과 영유아의 권리나 기본적 정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2-1] 기분이 좋았던 경험에 대한 유아의 그림

4) 형제자매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욕구 충족

유아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의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영유아 시기의 형제자매 관계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어 더욱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스스로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부모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는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을 때 속상하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바이올린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I-2-2〉 속상하거나 기분 나쁜 경험에 대한 유아의 답변

Q. 속상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언제인가요?	
구분	만 5세
부모의 신체적 처벌이나 폭력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 아빠가 볼 때(싸울 때) - 엄마가 화내면 눈에 불 날 것 같아요. - 엄마가 화낼 때 나는 도망가요. - 엄마가 소리 지르며 혼낼 때 몸이 떨려요. - 언니 공부할 때 엄마가 화내서 무서워요 - 엄마가 형아 공부 안 한다고 혼내는 거 봤을 때 무서웠어요 - “엄마가 나 싫대요.”라고 말할 때 - 아빠가 방망이때로 때릴 때 눈에서 불꽃이 나와요. - 엄마 말 안 들을 때, 아빠가 파리채로 막 때리려 할 때 - 할머니가 발바닥 때릴 때 - 엄마가 말 안 듣는다고 엉덩이 맴매했을 때
형제자매와의 부정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촌동생과 싸웠을 때, 내가 만든 거 부서뜨렸을 때 - 동생이 때릴 때 - 동생이 내 책 찢을 때 - 동생이 내 물건 뺏을 때 - 동생이 자꾸 내가 만든 거 부서뜨릴 때 - 동생이 자꾸 내가 갖고 놀던 거 빼앗아 갔을 때 - 동생이 자꾸 때리려고 하고, 배도 때릴 때 화가 나요.
욕구 좌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좋아하는 과자, 음료수를 안 사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 기차타고 여행을 가는데 엄마가 ‘전화기 사탕’을 사주지 않아 기차 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고 심심했어요.

3. 부모역량 영역·문항 구성

부모역량 관련 선행연구와 영유아 행복 관련 국내·외 지표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에 필요한 영역을 구성하였다. 앞서 살펴본 국내·외 지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복지나 행복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부모역량에서 필요로 하는 범주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 연구 주제인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은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나 보살핌이라기보다는 영유아 행복을 보장해줄 수 있는 부모의 적극적인 역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영유아 웰빙이나 행복에 관련된 지표는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의 범주 구성에 시사점을 주며 영유아의 행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세부적 내용을 보여주어 문항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가. 부모역량 영역 구성

OECD 아동웰빙지표, UNICEF 아동웰빙지표,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한국 주요아동지표 2006의 각 범주를 유사한 내용끼리 유목화한 결과, <표 III-3-1>과 같이 영유아 행복을 위한 영역이 추출되었다.

공통적으로 추출한 범주는 총 6가지로 물질적 지원, 건강과 안전, 놀이와 학습, 생활환경, 문제행동대응, 가족관계이며 이 외에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으로써 사회참여와 영유아 발달 2가지 범주를 추가하였다. 사회참여를 추가한 이유는 영유아의 기관 이용 비율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가정 외의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척도가 공통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부모역량의 범주로 영유아 발달을 추가하였다. 이후 물질적 지원과 생활환경의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물리적·물질적 환경으로 통합하였으며, 놀이와 학습을 놀이로, 위험 행동을 생활지도로 영역명을 수정하였다.

〈표 III-3-1〉 국내·외 지표로부터 영유아 부모역량 영역 추출

구분	OECD 아동웰빙 지표	UNICEF 아동웰빙 지표	국제어린이 행복종합 지수	한국주요 아동지표 2006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
영역	물질적 지원	물질적 복지	경제여건	아동빈곤	물리적·물질적 환경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	건강	건강, 안전	건강과 안전
	교육적 웰빙	교육복지	시간활용/학교	교육 및 보육	놀이
	주거와 환경	-	생활지역	가족구조 및 생활	물리적·물질적 환경
	학교의 질	-	-	-	-
	위험 행동	행동과 위험	-	비행 및 일탈	생활지도
	-	관계	가정/대인관계	아동의 사회참여와 생활	가족관계
	-	주관적 복지	자기 자신	-	-
	-	-	-	사회적 보호	-
	-	-	-	아동인구	-
	-	-	-	-	지역사회 연계
-	-	-	-	영유아 발달	

나. 부모역량 문항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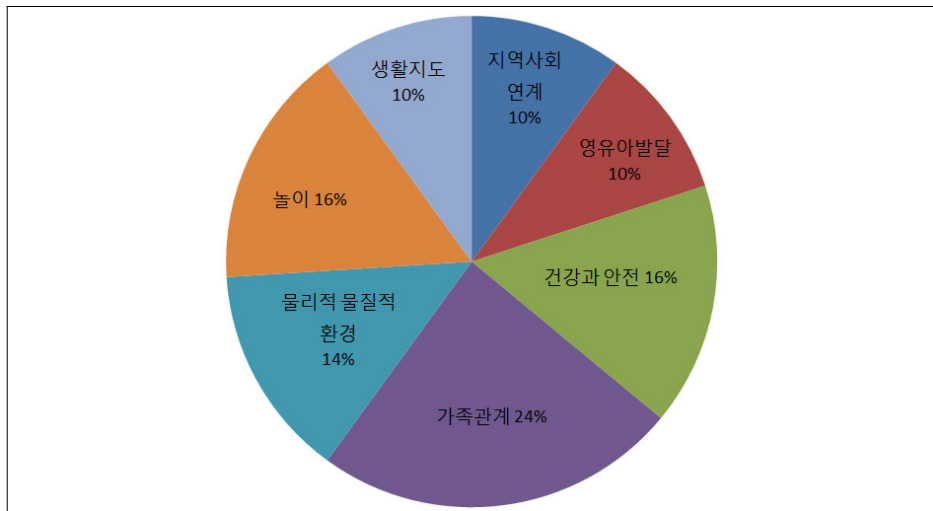
영역별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Self-체크리스트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선행연구, 부모, 전문가, 교사, 유아 면담 결과를 고려하여 문항을 준비하고 영역별 최종문항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문항 작성 시 영역별 최종문항수를 먼저 정하였다. 전체 68문항으로 가족관계에 가장 많은 문항인 16문항이 배당되었으며 건강과 안전, 놀이,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유아 발달,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 순으로 문항수를 배분하였다. 모든 영역은 부모역량의 성격으로 구분한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어지며

그 비율이 약 1:3:1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인식이나 성장역량에 비해 실천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표 III-3-2> 부모역량 영역별 예상 문항 수

내용 역량	영유아 발달	건강과 안전	가족 관계	물리적 물질적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 사회	계
인식 역량	2	2	3	2	3	1	2	15
실행 역량	5	8	10	6	6(7)	4	4	43
성장 역량	1	1	3	1	1	2	1	10
계	8	11	16	9	10(11)	7	7	68



[그림 III-3-1] 부모역량 영역별 구성 비율

최종문항수를 정한 뒤에는 최종문항수의 2~3배 만큼의 문항을 준비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빈도수가 가장 많은 문항을 최종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사용하였던 조사지는 <부록 1>과 같으며 영역별 최종문항은 다음과 같다. Self-체크리스트는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구분되어 개발되었으며 최종문항은 각각 <부록 2>와 <부록 3>에 수록되어 있다.

1) 영유아 발달

영유아 발달 영역에서 부모는 공통적으로 영유아의 발달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발달에 관련된 양육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아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보살피는 방법과 애착의 중요성을 알고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는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며 유아 시기에는 언어발달과 다양한 자극에의 노출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부모의 지원 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III-3-3〉 영유아 발달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범주	빈도	문항	
인식	공통	37	1. 나는 '애착'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16	2. 나는 아이가 또래에 비해 발달이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27	3. 나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모습을 알고 있다.
		22	4. 나는 아이의 균형적 발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실행	공통	35	5. 나는 발달단계와 연령을 고려하여 아이의 행동을 이해한다.
		17	6. 나는 아이가 발달지연 및 장애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41	7. 나는 아이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34	8. 나는 아이가 또래와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	9. 나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준다.
		5	10. 나는 아이에게 자주 동요를 들려주고, 불러준다.
		39	11. 나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흥미 있어 하는 놀잇감이나 사물, 자연물 등을 제공한다.
		25	12. 나는 아이의 언어발달단계에 맞춰 풍부한 언어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30	13. 나는 여러 가지 활동(손가락 사용, 블록 쌓기, 공놀이 등)을 통해 아이의 대·소근육 발달을 돕는다.
11	14. 나는 아이의 수면 스케줄을 알고 그에 맞추어 잠을 재운다(재웠다).		
성장	공통	11	15. 나는 아이의 발달에 맞추어 양육 관련 서적을 참고한다.
		39	16. 나는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2	17. 나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 신생아 양육 및 발달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 음영 처리된 문항은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문항임.

2)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 부모는 인식역량으로써 공통적으로 안전사고나 응급처치, 자녀의 건강상의 특이사항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실행역량 측면에서는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을 함께 고려 여부, 가정 내 비상약 구비나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가정 내 지도, 예방접종, 식사지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다. 또한 영유아별로 문항을 다르게 구성하여 영아에게는 위험한 물건 미리 치우기, 가정 내 위험한 곳 보호하기, 영아에게 닦칠 수 있는 여러 위험상황을 고려하여 양육하기, 유아에게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도와 칫솔질이 포함되었다. 전문가 의견조사 후에는 바깥놀이에 대한 안전지도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안전한 바깥놀이에 관한 문항을 추가 선정하였다. 성장역량 측면에서는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학습하여 대비하는지의 여부가 포함되었다.

〈표 III-3-4〉 건강과 안전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범주	빈도	문항	
인식 · 실행	공통	40	1. 나는 아이의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2	2. 나는 집 근처에 아이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알고 있다.
		18	3. 나는 아이가 열이나 설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2	4. 나는 아이의 건강상 특이사항 유무 및 내용을 알고 있다.
	공통	11	5. 나는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인공호흡, 하임리히법 등)을 할 수 있다.
		42	6. 나는 가정에 아이를 위한 몇 가지 비상약을 항시 구비해 두고 있다.
		35	7. 나는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을 미리 인식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
		34	8. 나는 시기에 맞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맞힌다.
		39	9. 나는 가정 내 안전사고 (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을 위해 위험행동을 아이에게 알리고 지도한다.
		36	10. 나는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13	11. 나는 아이가 편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한다.
		23	12. 나는 아이와 함께 다양한 신체활동을 같이 해보는 것을 즐긴다.
		19	13. 나는 아이가 운동 및 여러 신체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한다.
		29	14. 나는 아이의 마음 건강을 체크한다.
		21	15. 나는 아이가 사용하는 놀잇감을 정기적으로 소독·세척한다.

(표 III-3-4 계속)

범주	빈도	문항	
영아	34	16. 나는 아이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둔다.	
	30	17. 나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가구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신경을 쓴다.	
	19	18. 나는 영아의 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 등을 고려하여 양육한다(양육하였다).	
	11	19. 나는 이유식에 조심해야 할 재료를 알고 이유식을 만든다(만들었다).	
	9	20. 나는 아이의 수면 스케줄을 알고 그에 맞추어 잠을 재운다(재웠다).	
	유아	40	21. 나는 아이에게 성폭행, 유괴 등의 위험상황을 인지시키고 그 대처법에 대해 지도한다.
		7	22. 나는 6개월마다 치과에 가서 아이의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25	23. 나는 아이가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도록 지도한다.
		28	24. 나는 교통사고의 위험상황을 인지시키고 지도한다.
		신규	* 나는 아이에게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도록 지도한다.
성장	24	26. 나는 아이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공부한다.	
	25	27. 나는 아이에게 물고루 먹이기 위해서 여러 요리 방법을 시도한다.	

주: 음영 처리된 문항은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문항임.

다. 가족관계

부모역량의 7개 영역 중 가족관계 영역에 가장 많은 문항이 배당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식역량 측면에서는 행복이 아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자신의 양육스타일의 장·단점 인식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실행역량 측면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 부부의 화목한 관계 유지, 자녀를 고려하여 화목한 부부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 정도,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정도, 자녀의 자존감이나 개인 차이를 존중하는 정도, 상황에 상관없이 자녀를 일관적으로 대하는 정도가 포함되며 성장역량으로는 부모교육 참여 정도, 자신의 양육관에 대한 숙고,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노력 정도를 묻는 문항이 선정되었다. 전문가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문항이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추가되었다.

〈표 III-3-5〉 가족관계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범주		빈도	문항
인식	공통	41	1. 나의 행복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39	2. 나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릴 수 있다.
		25	3. 나는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28	4. 나는 아이의 타고난 성격 특성을 잘 안다.
		28	5. 나는 내 양육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실행	공통	12	6. 나는 음주와 폭력 관련으로 아이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34	7. 나는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아이와 함께 식사한다.
		45	8. 나는 아이 앞에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신규	* 나는 아이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41	9. 나는 아이에게 긍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45	10. 나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표현한다.
		24	11. 나는 아이를 나무랄 때 큰 소리를 치거나 짜증을 낸다.
		21	12. 나는 아이의 장점 보다는 단점을 지적하게 된다.
		40	13. 나는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참는다.
		42	14. 나는 항상 아이를 일관적으로 대한다.
		48	15. 나는 아이의 말에 성의 있게 대답해준다.
		14	16. 나는 아이를 부드럽게 대한다.
		45	17. 나는 아이를 형제자매 및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44	18. 나는 항상 아이의 기질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11	19. 나는 훈육에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3	20. 나는 가족과 함께 집 밖에서 최소 1주일에 1번 시간을 보낸다(놀이터, 동물원, 여행, 키즈카페 등).		
성장	공통	12	21.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없다.
		44	22.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3	23. 나는 아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16	24. 나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다.
		41	25. 나는 나의 양육관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자주 숙고해보는 편이다.
		10	26.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26	27. 나는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주: 음영 처리된 문항은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문항임.

라. 물리적·물질적 환경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역은 물질적 복지와 생활환경이 합쳐진 영역으로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 정도와 영유아를 둘러싼 생활환경이 발달에 적합한지와 영유아 발달을 도와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식역량으로 물리적 환경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물질적 허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실행역량 중 공통문항으로 가정 내 청결정도, 미디어 환경, 물질적 욕구에 대한 조절, 오감을 이용할 수 있는 놀잇감 구비를 묻는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영아 문항으로는 영아에게 꼭 필요한 물품의 구비 정도, 유아 문항으로는 사교육 이용이 또래와의 경쟁심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사교육 관련 문항으로 2가지가 동일 빈도를 보였으나 부모 면담과정에서 나온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성장역량으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에 변화를 주는 내용이 선정되었다.

〈표 III-3-6〉 물리적·물질적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범주		빈도	문항
인식	공통	7	1. 나는 아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2	2. 나는 아이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
		1	3. 나는 아이에게 못해준 것이 많아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다.
		40	4. 나는 아이의 물질적 욕구(물건 사기 등)에 대한 과도한 허용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실행	공통	44	5. 나는 집을 정리정돈하거나 깨끗하게 한다.
		21	6. 나는 집안이 지나치게 소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20	7. 나는 TV를 계속 틀어둔 상태로 두지 않으려 한다.
		46	8. 나는 아이가 일정시간만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조절한다.
		40	9. 나는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계획하고 사주는 편이다.
		7	10. 나는 나의 만족 혹은 과시를 위해 아이의 걸모습을 치장한다.
	16	11.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에게 꼭 필요한 상품(예방접종, 놀잇감 등)을 구입하지 못한 적이 있다.	
영아	39	12. 나는 아이가 오감을 활용하여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잇감(딸랑이, 형꿍 인형, 오뚜기, 모빌 등)을 구비하고 있다.	

(표 III-3-6 계속)

범주	빈도	문항
유아	35	13.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기저귀, 이유식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쓴다.
	22	14. 나는 아이에게 다양한 재질로 된 놀잇감을 제공하고 있다.
	41	15. 나는 아이가 가정에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풀, 색연필, 가위 등)을 구비하고 있다.
	22	16. 나는 색, 모양, 크기를 배울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한다.
	27	17. 나는 아이의 요구나 흥미를 고려하여 사교육을 선택한다.
	27	18. 나는 다른 부모나 또래와의 경쟁심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는다.
성장	25	19. 나는 아이가 자람에 따라 가정 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
	23	20. 나는 아이에게 적절한 놀잇감을 찾기 위해 주위에 물어 보거나 자료를 찾는다.

주: 음영 처리된 문항은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문항임.

마. 놀이

영유아에게 놀이는 단순한 유희의 수준을 벗어나 발달에 꼭 필요한 경험으로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전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놀이가 영유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점과 요즘 영유아에게 조기교육이나 특히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놀이에 대한 부모역량은 중요하다.

인식역량 측면에서는 아이의 발달에 미치는 놀이의 중요성,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실행역량으로는 놀잇감 선정 시 연령이나 발달 고려, 다양한 유형의 놀잇감과 경험을 제공, 자연 친화적인 놀이 제공, 자녀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참여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이 선정되었다. 연령별 놀이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기 위해서 영아 부모의 실행역량으로 영아와 상징놀이를 하는지를 신규 문항으로 포함시켰다. 성장역량을 위해서는 부모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놀아주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묻는 문항이 선정되었다.

〈표 III-3-7〉 놀이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범주	빈도	문항
인식	공통	33 1. 나는 아이와 함께 놀면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36 2. 나는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23 3. 나는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19 4. 나는 놀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19 5. 나는 놀이가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고 있다.
		22 6.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놀잇감과 놀이를 알고 있다.
실행	공통	23 7. 나는 아이가 함께 놀고자 할 경우, 놀이를 함께 한다.
		27 8. 나는 아이와의 다양한 놀이(소꿉놀이, 퍼즐 등)에 참여한다.
		30 9. 나는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놀잇감을 찾아준다.
		28 10. 나는 아이의 놀잇감을 살 때, 재질, 크기, 유독성 등의 유무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편이다.
		27 11. 나는 아이가 다양한 유형의 놀잇감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37 12. 나는 아이가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한다.
		15 13. 나는 휴일에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
		23 14. 나는 아이와 즐겨하는 게임이나 활동이 몇 가지 있다.
		27 15. 나는 아이와 하는 놀이에 참여하며 함께 하는 것을 즐긴다.
		38 16. 나는 아이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편이다.
	18 17. 나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이의 놀이에 참여한다.	
	영아	27 18. 나는 아이와 까꿍이나 잼잼 등 소리 내어 놀면서 상호작용한다.
		24 19. 나는 아이가 오감을 활용하여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잇감(딸랑이, 형질 인형, 오뎅이, 모빌 등)으로 놀이준다.
		신규 * 나는 아이와 상징놀이(모래로 음식 만들기, 의자로 자동차 놀이하기 등)를 한다.
유아	23 20. 나는 최소한 1주일에 1번은 아이와 함께 바깥놀이를 한다.	
	48 21. 나는 놀이를 통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26 22. 나는 집밖에서 아이와 놀이를 주기적으로 함께 한다.	

(표 III-3-7 계속)

범주		빈도	문항
성장	공통	21	23. 나는 아이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찾는 등 실제로 노력을 한다.
		30	25. 나는 시간이 없어도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주: 음영 처리된 문항은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문항임.

바. 생활지도

생활지도는 국내·외 지표의 위험행동 영역에서 출발한 것으로, 부모가 영유아의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유아 면담에서 유아의 잘못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나 부모의 부정적 감정 표출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생활지도 영역에서 다루었다. 인식역량으로는 생활지도의 효과적인 방법 인식 정도에 관한 문항을 선정하였고, 실행역량으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가정 내 지도, 공공장소에서의 타인 배려, 자녀의 단점보다 장점 칭찬에 대한 실행정도를 영유아 공통문항으로 선정하였다.

〈표 III-3-8〉 생활지도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범주		빈도	문항
인식	공통	23	1. 나는 아이의 생활지도에 있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다.
		10	2. 나는 아이의 부정적 행동(화, 짜증, 울음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르겠다.
		19	3. 나는 나의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다.
실행	공통	42	4. 나는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질서 등)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지도를 한다.
		30	5. 나는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쓴다.
		40	6. 나는 아이가 울면 짜증부터 나는 경우가 많다.
		10	7. 나는 아이가 울거나 짜증낼 때 그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21	8. 나는 아이가 분노하거나 짜증낼 때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말로 표현해 준다.
		20	9. 나는 아이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6	10. 나는 훈육 시 신체적 체벌을 하는 편이다.
		8	11. 나는 아이가 잘못할 경우,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

(표 III-3-8 계속)

범주		빈도	문항
		38	12. 나는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20	13. 나는 아이의 훈육방법에 대해 배우자나 다른 양육자와 상의한다.
		5	14. 나의 훈육방식이 종종 아이의 감정을 다치게 한다.
		6	15. 나는 아이를 훈육한 뒤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성장	공통	44	16. 나는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아이의 상황 및 나의 양육태도를 먼저 점검한다.
		28	17. 나는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나 이웃 등 주위에 조언을 구한다(구할 것이다).
		25	18. 나는 아이의 행동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서비스(상담, 놀이치료 등)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

주: 음영 처리된 문항은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문항임.

사.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는 국내·외 지표에서 추출된 영역은 아니지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가 부모역량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어 포함시켰다.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 인식역량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실행역량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실제 이용 정도, 주위 부모나 자료를 통해 자료를 찾거나 의견을 나누는 정도가 포함되었으며, 육아지원기관을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 기관의 안내문을 잘 읽어보는지가 선정되었다. 성장역량으로는 기관에 대한 부모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표 III-3-9〉 지역사회 연계 영역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범주		빈도	문항
인식	공통	18	1. 나는 현 육아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
		45	2. 나는 지역사회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진흥원등)를 알고 있다.
		34	3. 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참여(상담, 부자캠프)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됨을 알고 있다.
실행	공통	42	4. 나는 지역사회에서 나와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인적 자원 등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

(표 III-3-9 계속)

범주		빈도	문항
		16	5. 나는 아이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
		21	6. 나는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나 정보를 찾아본다.
		14	7. 나는 아이와 함께 지역기관(도서관등)을 최소한 2달에 1번은 이용한다.
		34	8. 나는 아이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와 소통하고 있다.
		28	9. 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매번 꼼꼼하게 확인한다.
		13	10. 나는 유치원·어린이집 준비물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긴다.
		9	11. 나는 집 주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성장	공통	16	12. 나는 정부의 육아·보육지원정책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찾아본다.
		34	13. 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활동(엄마·아빠 참여수업, 가족운동회, 음악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주: 음영 처리된 문항은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문항임.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 영역별 문항구성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 발달 영역이 .810(영아 .797, 유아 .822), 건강과 안전 영역이 .804(영아 .779, 유아 .825) 그리고 가족관계 영역이 .850(영아 .825, 유아 .866), 놀이 영역이 .855(영아 .830, 유아 .875)로 높게 나타났다.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역의 경우 .711(영아 .653, 유아 .757), 생활지도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541(영아 .530, 유아 .550),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656(영아 .608, 유아 .707)로 나타났다.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 부분의 신뢰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추후 문항 수정을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표 III-3-10> 체크리스트 영역별 신뢰도 분석

영역	Cronbach's α		
	전체	영아	유아
영유아 발달	0.810	0.797	0.822
건강과 안전	0.804	0.779	0.825
가족관계	0.850	0.825	0.866
물리적·물질적 환경	0.711	0.653	0.757
놀이	0.855	0.830	0.875
생활지도	0.541	0.530	0.550
지역사회 연계	0.656	0.608	0.707

IV.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

본 장에서는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를 파악하여 부모역량의 3가지 종류별, 7가지 영역별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부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부모의 특성에 따른 부모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전반적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부모변인별로 차이가 나는 부모역량의 내용을 밝힘으로써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성격별 실태를 확인하였다.

1. 부모역량의 영역·성격별 실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전반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유아 부모역량의 각 영역별 현황을 알아보고 부모변인(부/모, 자녀와 부모의 연령, 부모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 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영유아 부모를 함께 분석한 후 영아와 유아 부모로 나누어 영역별 차이가 나는지, 역량의 성격을 바탕으로 구분한 인식, 실행, 성장역량을 각각 비교하고 영역별로 세 가지 역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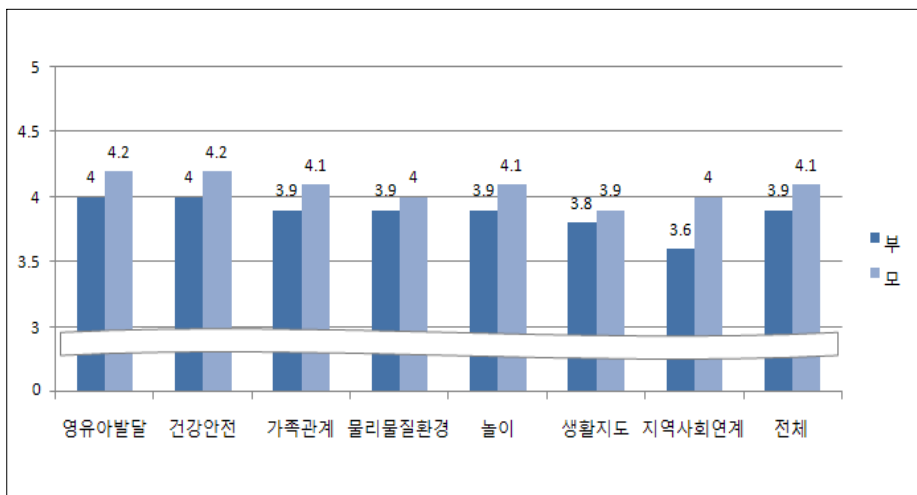
부모역량 실태 파악의 목적은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으로 보다 제고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부모역량의 영역·성격·문화별 분석을 통해 부모역량 실태를 조사하였다.

가. 부모역량의 영역별 현황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은 역량의 성격별로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어지며 내용적 측면에서 7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영역별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 발달과 건강과 안전에 해당하는 점수가 4.1점으로 가장 높고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가 3.8점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발달이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역량에 비해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역량이 낮는데 이는 영유아 부모에게 발달, 건강, 안전과 같은 주제는 비교적 친숙하나

영유아 지도나 지역사회 자원 활용은 다른 주제에 비해 덜 접해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변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와 부모연령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가구소득이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영역도 많아 부모변인별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부모보다 모의 역량이 모든 영역에서 0.1~0.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 사이의 역량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절대적인 수치로는 부와 모의 역량 간 편차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는 전 영역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p < .001$) 부모 간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IV-2.1]은 영역별 부모역량을 부와 모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1] 부모역량의 영역별 비교

연령별로 35세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영역별로 같은 점수를 보이거나 34세 이하 집단의 부모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영유아 발달, 가족관계, 놀이,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였다. 이는 나이가 많은 경우, 양육지식이나 기술을 접하기 어렵고 자녀가 첫째아보다는 둘째아일 확률이 높아 첫째에 비해 소홀해지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구소득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구분한 결과,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대개 가구소득 순으로 부모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가계소득이 상

과 중인 부모보다 중과 하인 부모 사이에서 더 컸으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점수가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가구소득의 역순으로 역량이 높게 나타난 영역은 전무하여 가구소득별 역량의 차가 매우 일관적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 학력 측면에서는 영역별로 거의 비슷하나 영유아 발달($p < .001$)과 놀이, 생활지도($p < .05$) 측면의 부모역량 점수가 대졸 이상에서 더 높아 부모 학력에 따라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나이를 영아, 유아로 구분하였을 때, 영아자녀 가정의 유아자녀 가정보다 가족관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영유아 발달과 물리적·물질적 환경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나이나 지역규모가 부모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유무별로는 전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취업부모의 역량수준이 비취업부모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취업부의 경우 비취업부에 비해 지역사회 연계 점수가 다소 낮았으며, 모의 경우에는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표 IV-1-1〉 영역별 전반적 현황

단위: $M(SD)$

구분	부모역량 영역							전체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 관계	물리물질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4.1(0.5)	4.1(0.4)	4.0(0.4)	4.0(0.4)	4.0(0.4)	3.8(0.4)	3.8(0.6)	4.0(0.4)	
자녀	영아	4.1(0.5)	4.1(0.4)	4.1(0.4)	4.0(0.4)	4.0(0.4)	3.8(0.4)	3.8(0.6)	4.0(0.4)
	유아	4.1(0.5)	4.1(0.5)	4.0(0.5)	4.0(0.5)	4.0(0.5)	3.8(0.4)	3.8(0.6)	4.0(0.4)
	<i>t</i>	0.508(995)	1.077(998)	3.003(998)**	1.754(998)	0.569(998)	1.170(997)	0.053(998)	1.594(998)
부모	부	4.0(0.5)	4.0(0.5)	3.9(0.5)	3.9(0.5)	3.9(0.5)	3.8(0.4)	3.6(0.7)	3.9(0.4)
	모	4.2(0.4)	4.2(0.4)	4.1(0.4)	4.0(0.4)	4.1(0.4)	3.9(0.4)	4.0(0.5)	4.1(0.3)
	<i>t</i>	6.926(998)***	6.205(998)***	5.616(998)***	5.026(998)***	4.854(998)***	3.656(998)***	10.223(998)***	6.894(998)***
부모연령	34세 이하	4.1(0.4)	4.1(0.4)	4.1(0.4)	4.0(0.4)	4.1(0.4)	3.9(0.4)	3.9(0.6)	4.1(0.4)
	35세 이상	4.1(0.5)	4.1(0.4)	4.0(0.4)	4.0(0.4)	4.0(0.4)	3.8(0.4)	3.8(0.6)	4.0(0.4)
	<i>t</i>	2.380(982)*	2.983(963)**	4.826(969)***	2.818(959)**	3.456(971)***	3.661(940)**	3.498(998)***	4.100(971)***

(표 IV-1-1 계속)

구분		부모역량 영역							전체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 관계	물리물질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사회 연계		
부모학력	고졸 이하	4.0(0.5)	4.1(0.5)	4.0(0.5)	4.0(0.5)	4.0(0.5)	3.8(0.4)	3.8(0.7)	4.0(0.4)	
	대졸 이상	4.1(0.4)	4.1(0.4)	4.0(0.4)	4.0(0.4)	4.0(0.4)	3.9(0.4)	3.8(0.6)	4.0(0.4)	
	<i>t</i>	3.892(998)***	1.259(433)	1.688(998)	1.416(998)	2.480(998)*	2.538(998)*	1.955(998)	2.466(998)*	
가구소득	상	4.2(0.4)	4.1(0.4)	4.1(0.4)	4.0(0.4)	4.1(0.4)	3.9(0.4)	3.9(0.6)	4.1(0.3)	
	중	4.1(0.5)	4.1(0.4)	4.0(0.4)	4.0(0.4)	4.1(0.4)	3.8(0.4)	3.9(0.6)	4.0(0.4)	
	하	4.0(0.5)	4.0(0.4)	4.0(0.5)	3.9(0.5)	3.9(0.5)	3.8(0.4)	3.7(0.6)	3.9(0.4)	
	<i>F</i>	12.681(2)***	5.501(2)**	4.195(2)*	6.411(2)**	7.404(2)***	1.709(2)	10.810(2)***	8.388(2)***	
지역규모	대도시	4.1(0.4)	4.1(0.4)	4.0(0.4)	4.0(0.4)	4.0(0.4)	3.8(0.3)	3.8(0.6)	4.0(0.3)	
	중소	4.1(0.5)	4.1(0.5)	4.0(0.5)	4.0(0.5)	4.0(0.5)	3.9(0.4)	3.8(0.6)	4.0(0.4)	
	읍면	4.0(0.4)	4.0(0.4)	4.0(0.4)	3.9(0.4)	4.0(0.5)	3.8(0.5)	3.7(0.6)	4.0(0.4)	
	<i>F</i>	3.317(2)*	2.384(2)	0.172(2)	3.054(2)*	0.013(2)	1.601(2)	2.563(2)	0.793(2)	
취업	부	유	3.9(0.6)	4.0(0.5)	3.9(0.5)	3.9(0.5)	3.9(0.5)	3.8(0.4)	3.5(0.7)	3.9(0.5)
		무	3.8(0.7)	4.0(0.6)	3.8(0.6)	3.9(0.5)	3.9(0.6)	3.6(0.4)	3.6(0.7)	3.8(0.5)
	모	유(전)	4.2(0.4)	4.1(0.4)	4.1(0.4)	4.0(0.4)	4.1(0.4)	3.9(0.4)	4.0(0.5)	4.1(0.4)
		유(시)	4.2(0.4)	4.2(0.4)	4.1(0.3)	4.0(0.3)	4.1(0.3)	3.9(0.3)	4.0(0.4)	4.1(0.3)
		무	4.2(0.4)	4.2(0.4)	4.1(0.4)	4.0(0.4)	4.1(0.4)	3.9(0.4)	4.0(0.5)	4.1(0.3)
	<i>t</i>	3.125(625)**	3.727(625)***	2.798(625)**	2.653(625)**	2.659(625)**	2.055(625)*	5.698(625)***	3.653(625)**	

주: 자녀의 연령에 따른 t 검증은 영유아 공통문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모 취업유무에 따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영아 부모의 역량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전체적으로 패턴이 유사하다. 부모 간 차이는 생활지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그 하위 영역 중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에서 부모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역량수준이 높았고, 학력보다는 가구소득이 역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구소득에 따른 영유아 발달, 건강과 안전, 물리적·물질적 환경, 놀이, 지역사회 연계 영역의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취업여부 측면에서는 영유아 부모의 전체 현황과는 달리 지역사회 연계와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만 차이가 났다. 부의 경우, 비취업부의 역량이 더 높았으며, 모의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모의 역량수준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무뿐만 아니라 취업형태에 따라 모의 역량이 다르므로 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부모역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V-1-2〉 영아 부모 대상 영역별 전반적 현황

구분	부모역량 영역							전체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 관계	물리물질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4.1(0.5)	4.1(0.4)	4.1(0.4)	4.0(0.4)	4.0(0.4)	3.8(0.4)	3.8(0.6)	4.0(0.4)	
부모	부	4.0(0.5)	4.0(0.4)	4.0(0.4)	3.9(0.4)	4.0(0.5)	3.8(0.4)	3.6(0.7)	4.0(0.4)
	모	4.2(0.4)	4.2(0.4)	4.1(0.4)	4.1(0.4)	4.1(0.4)	3.9(0.4)	3.9(0.5)	4.1(0.3)
	t	3.599(498)***	3.055(403)**	2.756(415)**	3.265(498)**	2.356(498)*	1.131(419)	6.337(498)***	3.669(498)***
부모연령	34세 이하	4.1(0.4)	4.2(0.4)	4.1(0.4)	4.1(0.4)	4.1(0.4)	3.9(0.4)	3.9(0.5)	4.1(0.3)
	35세 이상	4.1(0.5)	4.1(0.4)	4.0(0.4)	4.0(0.4)	4.0(0.4)	3.8(0.4)	3.7(0.6)	4.0(0.3)
	t	1.895(428)	2.793(470)**	3.605(465)***	2.773(457)**	3.569(436)***	3.125(459)**	3.197(426)**	3.655(452)***
부모학력	고졸 이하	4.0(0.5)	4.1(0.4)	4.0(0.4)	4.0(0.4)	4.0(0.5)	3.8(0.4)	3.7(0.6)	4.0(0.4)
	대졸 이상	4.1(0.4)	4.1(0.4)	4.1(0.4)	4.0(0.4)	4.0(0.4)	3.9(0.4)	3.8(0.6)	4.0(0.3)
	t	2.866(498)**	0.360(231)	1.048(498)	0.153(222)	0.659(498)	1.104(219)	1.465(213)	1.170(211)
가구소득	상	4.2(0.4)	4.2(0.3)	4.1(0.3)	4.1(0.4)	4.1(0.3)	3.9(0.3)	3.9(0.5)	4.1(0.3)
	중	4.1(0.4)	4.1(0.4)	4.1(0.4)	4.0(0.4)	4.0(0.4)	3.8(0.4)	3.9(0.5)	4.0(0.4)
	하	4.0(0.5)	4.1(0.4)	4.0(0.4)	4.0(0.4)	4.0(0.4)	3.8(0.4)	3.7(0.6)	4.0(0.4)
	F	9.300(2)***	4.074(2)*	2.667(2)	4.989(2)**	3.312(2)*	0.207(2)	6.108(2)**	5.293(2)**

(표 IV-1-2 계속)

구분		부모역량 영역							전체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 관계	물리물질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사회 연계	
부	유	4.0(0.6)	4.0(0.4)	4.0(0.4)	3.9(0.5)	4.0(0.5)	3.8(0.4)	3.6(0.7)	3.9(0.4)
	무	4.0(0.6)	4.3(0.2)	4.0(0.5)	4.1(0.3)	4.1(0.4)	3.7(0.5)	3.8(0.7)	4.1(0.4)
취업모	유(전)	4.2(0.5)	4.2(0.4)	4.1(0.4)	4.1(0.4)	4.1(0.4)	3.9(0.5)	4.0(0.5)	4.1(0.4)
	유(사)	4.1(0.3)	4.0(0.3)	4.0(0.3)	3.9(0.3)	4.0(0.4)	3.8(0.3)	3.8(0.4)	3.9(0.3)
	무	4.1(0.4)	4.2(0.4)	4.1(0.4)	4.0(0.4)	4.1(0.4)	3.9(0.4)	4.0(0.5)	4.1(0.3)
	t	1.345(310)	2.026(291)*	1.143(259)	1.139(310)	1.126(310)	0.452(273)	3.334(310)***	1.747(293)

주: 부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유아 부모의 역량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영아 부모와 거의 똑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 영역의 역량이 낮았으며, 부모, 가구소득, 부모학력, 부모연령의 순으로 물리적·물질적 환경과 놀이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부모 간의 역량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 간의 역량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학력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 영역을 제외한 6개 영역에서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 부모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전 영역에서 소득 순에 따라 부모역량의 순서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취업여부에 관해서는 영아 부모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연계와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만 차이가 났으며 미취업부모보다 취업부의 점수가 더 높았고, 모의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모, 비취업모, 전일제 취업모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취업부의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적이며, 부와 모 모두 영아 부모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와 달리 비취업부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예상할 수 있어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으로 부모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IV-1-3〉 유아 부모 대상 영역별 전반적 현황

구분	부모역량 영역							전체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 관계	물리물질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4.1(0.5)	4.1(0.5)	4.0(0.5)	4.0(0.5)	4.0(0.5)	3.8(0.4)	3.8(0.6)	4.0(0.4)		
부모	부	3.9(0.5)	4.0(0.5)	3.9(0.5)	3.9(0.5)	3.9(0.5)	3.7(0.5)	3.6(0.7)	3.9(0.5)	
	모	4.2(0.4)	4.2(0.4)	4.1(0.4)	4.0(0.4)	4.1(0.4)	3.9(0.4)	4.0(0.5)	4.1(0.3)	
	<i>t</i>	6.141(498)***	5.492(498)***	4.926(498)***	3.758(498)***	4.377(498)***	3.946(498)***	8.071(498)***	5.897(498)***	
부모연령	34세 이하	4.1(0.5)	4.1(0.4)	4.0(0.4)	4.0(0.5)	4.1(0.5)	3.9(0.4)	3.9(0.6)	4.0(0.4)	
	35세 이상	4.1(0.5)	4.1(0.5)	3.9(0.5)	4.0(0.5)	4.0(0.5)	3.8(0.4)	3.8(0.6)	4.0(0.4)	
	<i>t</i>	0.752(299)	0.586(299)	1.835(307)	2.207(326)*	2.055(302)*	1.373(324)	1.941(321)	1.763(285)	
부모학력	고졸 이하	4.0(0.6)	4.0(0.5)	3.9(0.5)	3.9(0.5)	3.9(0.5)	3.7(0.4)	3.8(0.7)	3.9(0.5)	
	대졸 이상	4.1(0.4)	4.1(0.4)	4.0(0.4)	4.0(0.4)	4.1(0.4)	3.8(0.4)	3.8(0.6)	4.0(0.4)	
	<i>t</i>	1.794(498)	1.793(223)	2.206(498)*	2.397(498)*	2.230(498)*	2.649(498)**	1.213(498)	2.322(208)*	
가계소득	상	4.2(0.4)	4.1(0.4)	4.0(0.4)	4.0(0.4)	4.1(0.4)	3.9(0.4)	3.9(0.6)	4.0(0.4)	
	중	4.1(0.5)	4.1(0.5)	4.0(0.5)	4.0(0.4)	4.1(0.4)	3.8(0.4)	3.9(0.6)	4.0(0.4)	
	하	4.0(0.5)	4.0(0.5)	3.9(0.5)	3.9(0.5)	3.9(0.6)	3.8(0.5)	3.7(0.7)	3.9(0.5)	
	<i>F</i>	3.298(2)*	2.250(2)	4.343(2)*	5.940(2)**	4.479(2)*	4.365(2)*	5.093(2)**	2.226(2)	
취업	부	유	3.9(0.6)	3.9(0.6)	3.8(0.5)	3.8(0.5)	3.9(0.6)	3.7(0.4)	3.5(0.7)	3.8(0.5)
		무	3.4(0.6)	3.5(0.6)	3.5(0.6)	3.6(0.6)	3.6(0.7)	3.5(0.3)	3.3(0.6)	3.5(0.5)
	모	유(전)	4.1(0.4)	4.1(0.4)	4.0(0.4)	4.0(0.4)	4.1(0.4)	3.9(0.4)	4.0(0.5)	4.0(0.4)
		유(시)	4.3(0.4)	4.4(0.4)	4.3(0.3)	4.2(0.3)	4.3(0.2)	4.0(0.3)	4.2(0.4)	4.2(0.2)
		무	4.2(0.4)	4.2(0.3)	4.1(0.4)	4.1(0.4)	4.1(0.4)	3.9(0.4)	4.0(0.5)	4.1(0.3)
		<i>t</i>	1.345(310)	2.026(291)*	1.143(259)	1.139(310)	1.126(310)	0.452(273)	3.334(310)***	1.747(293)

주: 부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나. 부모역량의 성격별 현황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었을 때 인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실행, 성장이 그 뒤를 이었다. 인식역량은 단순히 인지 여부만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과 실행, 성장역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부모역량의 인지와 실천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또한 성장역량이 가장 낮다는 것은 성장역량 관련 문항이 내용상 실행역량에 속할 수도 있지만 부모로서 노력하고 성장하고자하는 의지를 가늠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노력이나 의지가 인지적인 수준에 비해 부족함을 보여준다.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 연계를 제외한 영역에서 인식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는 실행역량이,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성장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발달, 가족관계, 물리적·물질적 환경, 놀이,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인식, 실행, 성장 간에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과 안전, 생활지도 영역에서는 인식과 실행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인식과 실행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모의 앎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크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이러한 부분을 부모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량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역량이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성장역량이 가장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 노력이나 시도가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IV-1-4〉 역량 종류별(인식·실행·성장) 전반적 현황-공통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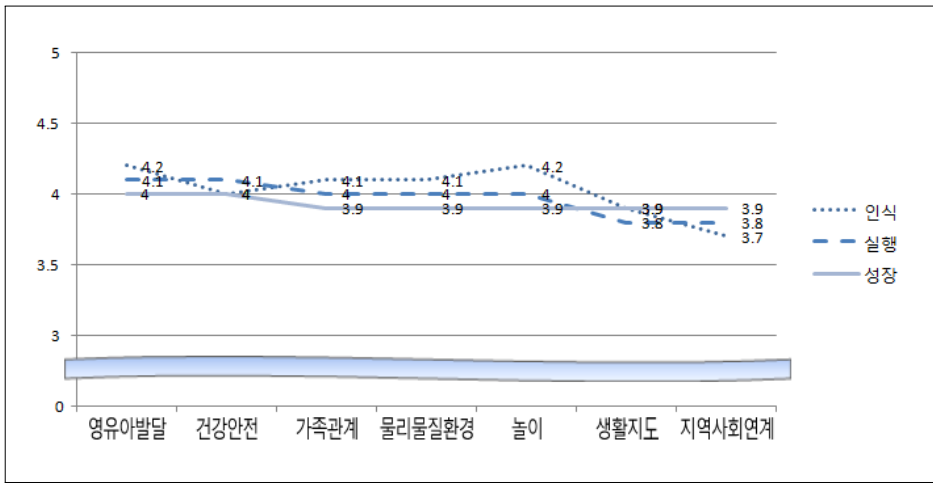
구분	부모역량 영역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관계			물리물질환경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영역별	41(05)	4.069	4.131	41(04)	4.075	4.125	40(04)	3.975	4.025	40(04)	3.975	4.025
인식	42(05)	4.169	4.231	40(06)	3.963	4.037	41(05)	4.069	4.131	41(05)	4.069	4.131
실행	41(05)	4.069	4.131	41(04)	4.075	4.125	40(05)	3.969	4.031	40(05)	3.969	4.031
성장	40(08)	3.950	4.050	40(08)	3.950	4.050	39(06)	3.863	3.937	39(08)	3.850	3.950

주: 자녀의 연령에 따른 t 검증은 영유아 공통문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모 취업유무에 따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표 IV-1-4 계속)

구분	부모역량 영역									전체		
	놀이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영역별	40(0.4)	3.975	4.025	38(0.4)	3.775	3.825	38(0.6)	3.763	3.837	40(0.4)	3.975	4.025
인식	42(0.5)	4.169	4.231	39(0.7)	3.857	3.943	37(0.9)	3.644	3.756	41(0.4)	4.075	4.125
실행	40(0.5)	3.969	4.031	38(0.5)	3.769	3.831	38(0.6)	3.763	3.837	40(0.4)	3.975	4.025
성장	39(0.8)	3.850	3.950	39(0.6)	3.863	3.937	39(0.9)	3.844	3.956	39(0.5)	3.869	3.931

주: 자녀의 연령에 따른 t 검증은 영유아 공통문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모 취업유무에 따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그림 IV-1-2] 역량 종류별(인식·실행·성장)에 따른 영역 점수 비교 - 공통문항

신뢰구간을 비교하여 영아 부모의 인식, 실행, 성장역량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인식, 실행, 성장역량 간에 모두 차이가 있었다. 인식과 실행보다는 인식과 성장 사이의 간극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나 성장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IV-2-5>를 보면, 영유아 발달,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는 인식과 실행, 실행과 성장역량 간에 차이가 있으며 가족관계와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역에서는 인식, 실행, 성장역량 사이에 모두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인식역량이 가

장 높고 성장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성장역량은 영유아 발달에서 아동발달 정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 이용하기, 건강과 안전에서는 다양한 요리 방법 시도하기, 가족관계에서는 부모교육을 받거나 자료 찾기, 양육관에 대해 숙고하기, 개인적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 물리적·물질적 환경에서는 가정환경 변화시키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놀이 영역에서도 인식역량이 높고 성장역량이 낮게 나타났으나 생활지도에서는 비슷하였으며 가장 평균점수가 낮았던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성장역량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인식역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나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성장역량은 부족하였다. 생활지도의 역량은 세 가지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실행보다 인식역량이 높았으며 차이가 있었다.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육아지원기관의 부모참여와 같은 성장역량이 높게 나왔다.

〈표 IV-1-5〉 역량 영역별·종류별 전반적 현황: 영아

구분	부모역량 영역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관계			물리물질환경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영역별	41(0.5)	4.069	4.131	41(0.4)	4.075	4.125	41(0.4)	4.075	4.125	40(0.4)	3.975	4.025
인식	42(0.5)	4.169	4.231	40(0.6)	3.963	4.037	41(0.5)	4.069	4.131	41(0.5)	4.069	4.131
실행	41(0.5)	4.069	4.131	42(0.4)	4.175	4.225	41(0.4)	4.075	4.125	40(0.4)	3.975	4.025
성장	40(0.8)	3.950	4.050	40(0.7)	3.957	4.043	40(0.5)	3.969	4.031	40(0.8)	3.950	4.050
구분	부모역량 영역									전체		
	놀이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영역별	40(0.4)	3.975	4.025	38(0.4)	3.775	3.825	38(0.6)	3.763	3.837	40(0.4)	3.975	4.025
인식	42(0.5)	4.169	4.231	39(0.7)	3.857	3.943	37(0.9)	3.644	3.756	41(0.4)	4.075	4.125
실행	40(0.5)	3.969	4.031	38(0.5)	3.769	3.831	38(0.6)	3.763	3.837	40(0.4)	3.975	4.025
성장	39(0.8)	3.850	3.950	39(0.6)	3.863	3.937	41(0.8)	4.050	4.150	40(0.5)	3.969	4.031

주: 자녀의 연령에 따른 t 검정은 영유아 공통문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모 취업유무에 따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영아 부모의 역량별 종류별로 부모, 부모의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와 같은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영아 부모의 인식, 실행, 성장역량 모두 부모와 부모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에 따라서는 실행과 성장역량이 달랐는데 실행역량보다 성장역량에서 더 큰 차이가 났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부모 관련 변인에 의해 달라지는 정도는 성장, 실행, 인식 순서로 볼 수 있었다. 이는 인식역량은 부모의 배경에 상관없이 유사할지라도 실행역량과 특히 성장역량은 부모의 배경에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표 IV-1-6〉 역량 종류별(인식·실행·성장) 전반적 현황: 영아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4.0(0.4)	3.490(498)***	3.9(0.4)	3.508(498)***	3.9(0.5)	3.256(498)**	
	모	4.1(0.3)		4.1(0.3)		4.0(0.4)		
연령	34세 이하	4.1(0.4)	2.204(498)*	4.1(0.3)	3.768(448)***	4.0(0.4)	3.823(413)***	
	35세 이상	4.0(0.3)		3.9(0.4)		3.9(0.5)		
학력	고졸 이하	4.1(0.4)	0.065(242)	4.0(0.4)	1.299(208)	3.9(0.6)	1.709(498)	
	대졸 이상	4.1(0.4)		4.0(0.3)		4.0(0.4)		
소득	상	4.1(0.3)	2.710(2)	4.1(0.3)	4.566(2)*	4.1(0.3)	9.114(2)***	
	중	4.1(0.4)		4.0(0.4)		4.0(0.5)		
	하	4.0(0.4)		4.0(0.4)		3.9(0.5)		
지역규모	대도시	4.1(0.3)	2.593(2)	4.0(0.3)	1.234(2)	4.0(0.4)	0.029(2)	
	중소도시	4.1(0.4)		4.0(0.4)		4.0(0.5)		
	읍면	4.0(0.4)		4.0(0.3)		4.0(0.4)		
취업	부	유	1.025(293)	3.9(0.4)	1.810(294)	3.8(0.5)	1.809(284)	
		무		4.1(0.3)		4.1(0.4)		4.0(0.6)
	모	유(전)		4.2(0.4)		4.1(0.4)		4.0(0.4)
		유(사)		4.1(0.3)		3.9(0.3)		3.8(0.5)
		무		4.1(0.3)		4.1(0.3)		4.0(0.5)

* $p < .05$, ** $p < .01$, *** $p < .001$

유아 부모의 영역별 인식, 실행, 성장역량 점수를 보면 가장 역량이 높은 영역은 영유아 발달, 건강과 안전, 가족관계이며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이다. 7개 영역 중에서 5개 영역(영유아 발달, 가족관계, 물리적·물질적 환경, 놀이, 생활지도)에서 인식역량의 점수가 가장 높고 나머지 건강과 안전 및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실행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영아 부모와 마찬가지로 전 영역에서 성장역량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이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유아 발달, 놀이,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인식, 실행, 성장 간에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과 안전, 생활지도에서는 인식과 실행 간에, 가족관계와 물리적·물질적 환경에서는 인식과 성장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 부모의 인식과 실제 행위, 또는 성장의지와 실천수준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IV-1-7〉 역량 영역별·종류별 전반적 현황: 유아

구분	부모역량 영역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관계			물리물질환경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영역별	41(05)	4.069	4.131	41(05)	4.069	4.131	40(05)	3.969	4.031	40(05)	3.969	4.031
인식	42(05)	4.169	4.231	40(06)	3.963	4.037	41(05)	4.069	4.131	41(06)	4.063	4.137
실행	41(05)	4.069	4.131	41(05)	4.069	4.131	40(05)	3.969	4.031	40(05)	3.969	4.031
성장	39(09)	3.844	3.956	40(08)	3.95	4.05	39(06)	3.863	3.937	39(08)	3.85	3.95

구분	부모역량 영역									전체		
	놀이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영역별	40(05)	3.969	4.031	38(04)	3.775	3.825	38(06)	3.763	3.837	40(04)	3.975	4.025
인식	42(05)	4.169	4.231	39(07)	3.857	3.943	36(09)	3.544	3.656	41(04)	4.075	4.125
실행	40(05)	3.969	4.031	38(05)	3.769	3.831	39(06)	3.863	3.937	40(04)	3.975	4.025
성장	39(08)	3.85	3.95	39(06)	3.863	3.937	38(09)	3.744	3.856	39(05)	3.869	3.931

주: 자녀의 연령에 따른 t 검증은 영유아 공통문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모 취업유무에 따른 t 검증을 실시하였음.

유아 부모의 종류별 역량이 부모, 부모연령, 부모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와 같은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모에 따른 인식, 실행, 성장역량 모두에서 영아 부모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연령은 실행에서, 학력과 가구소득은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점수대가 높았던 인식역량은 부모, 부모연령, 부모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비교적 낮았던 성장역량은 부모변인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인식의 점수가 높았지만 이는 부모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성장역량은 배경에 상관없이 더 제고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 부모와 다른 점을 살펴보면, 인식역량에서는 부모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학력이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영아 부모집단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식, 실행, 성장역량이 높아졌는데 유아 부모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였다. 이는 자녀가 영아기를 거쳐 유아가 되었을 때에는 부모연령에 상관없이 비슷한 역량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역량의 영역별, 종류별 점수를 영아와 유아 부모집단으로 비교하면 전체 36개 내용 중에서 14개는 영아 부모의 점수가 더 높았고 1개만이 유아 부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아 부모의 역량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점수 차이는 성장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져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역량 제고나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1-8〉 역량 종류별(인식·실행·성장) 전반적 현황: 유아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4.0(0.5)	5.038(498)***	3.9(0.5)	5.645(498)***	3.7(0.6)	6.468(498)***
	모	4.1(0.3)		4.1(0.3)		4.0(0.4)	
연령	34세 이하	4.1(0.4)	1.311(296)	4.0(0.4)	2.436(315)*	4.0(0.5)	1.280(314)
	35세 이상	4.1(0.4)		3.9(0.4)		3.9(0.5)	
학력	고졸 이하	4.0(0.4)	2.754(498)**	3.9(0.5)	1.381(498)	3.8(0.7)	1.360(203)
	대졸 이상	4.1(0.4)		4.0(0.4)		3.9(0.5)	
소득	상	4.1(0.4)	4.961(2)**	4.0(0.4)	2.723(2)	4.0(0.4)	2.260(2)
	중	4.1(0.4)		4.0(0.4)		4.0(0.5)	
	하	4.0(0.4)		3.9(0.5)		3.8(0.6)	
지역규모	대도시	4.1(0.3)	0.663(2)	4.0(0.3)	0.412(2)	3.9(0.4)	1.574(2)
	중소도시	4.1(0.4)		4.0(0.5)		3.9(0.6)	
	읍면	4.0(0.5)		3.9(0.4)		3.9(0.5)	
취업	부	유	1.025(293)	3.8(0.5)	1.810(294)	3.7(0.6)	1.809(284)
		무		3.5(0.5)		3.4(0.7)	
	모	유(전)		4.0(0.4)		4.0(0.5)	
		유(사)		4.2(0.2)		4.2(0.3)	
		무		4.1(0.3)		4.1(0.4)	

2. 부모역량의 문항별 실태

가. 영유아 발달

영유아 발달 영역을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어보면 인식역량은 부모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실행, 성장역량은 인식역량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적을수록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발달 문항 중에서 부모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애착의 중요성 이해(4.3점)며 다음으로는 연령별 발달단계 모습을 읽(4.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인식역량 문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실행, 성장역량 문항에 비해서 점수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문항별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든 문항에서 부의 점수가 모에 비해 평균적으로 0.2점 낮아 영유아 발달 영역에서 부의 역량이 모의 역량보다 낮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중 영유아 발달 측면에서는 인식, 실행, 성장역량에서 부모 간 차이가 있으며 부에 비해 모의 역량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2-1〉 영유아 발달: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4.1(0.6)	5.413(998)***	4.0(0.6)	6.525(998)***	3.8(1.0)	4.655(998)***
	모	4.3(0.5)		4.2(0.4)		4.1(0.7)	
연령	34세 이하	4.2(0.6)	0.244(919)	4.1(0.5)	2.512(984)*	4.1(0.7)	3.575(998)***
	35세 이상	4.2(0.5)		4.0(0.5)		3.9(0.9)	
학력	고졸 이하	4.2(0.5)	2.196(472)*	4.0(0.6)	3.658(998)***	3.8(1.0)	3.814(998)***
	대졸 이상	4.3(0.5)		4.1(0.5)		4.0(0.8)	
소득	상	4.3(0.5)	5.486(2)**	4.2(0.4)	11.509(2)***	4.1(0.8)	8.466(2)***
	중	4.3(0.5)		4.1(0.5)		4.0(0.8)	
	하	4.2(0.6)		4.0(0.5)		3.8(0.9)	
지역규모	대도시	4.3(0.5)	10.248(2)***	4.1(0.4)	2.152(2)	4.0(0.8)	0.117(2)
	중소도시	4.3(0.6)		4.1(0.5)		4.0(0.9)	
	읍면	4.0(0.5)		4.0(0.4)		4.0(0.8)	

(표 IV-2-1 계속)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취업	부	유	4.1(0.6)	2173(561)*	3.9(0.6)	3.091(625)**	3.8(1.0)	2.272(625)*
		무	3.8(0.6)		3.7(0.7)		3.6(1.2)	
	모	유(전)	4.3(0.6)		4.1(0.5)		4.0(0.8)	
		유(사)	4.3(0.4)		4.2(0.5)		3.9(0.8)	
		무	4.3(0.5)		4.1(0.4)		4.0(0.8)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2〉 영유아 발달: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구분		영유아 발달 문항	M(SD)			t
			부	모	전체	
인식	공통	1. 애착의 중요성을 이해함.	4.2(0.6)	4.4(0.6)	4.3(0.6)	3.695(998)***
		2. 연령별 발달 모습을 앎.	4.0(0.8)	4.3(0.7)	4.2(0.8)	4.732(807)***
실행	공통	3. 발달단계와 연령을 고려하여 아이의 행동 이해함.	4.0(0.8)	4.2(0.6)	4.1(0.7)	5.544(800)***
		4. 아이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	3.9(0.8)	4.1(0.7)	4.0(0.8)	3.155(998)**
		5. 아이가 또래와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짐.	4.0(0.7)	4.2(0.6)	4.1(0.7)	4.729(812)***
		6.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흥미 있어 하는 놀잇감이나 사물, 자연물 등을 제공함.	3.9(0.7)	4.1(0.5)	4.0(0.6)	4.666(998)***
		7. 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아이의 대·소근육 발달을 도움.	4.0(0.8)	4.2(0.7)	4.1(0.7)	4.343(823)***
		8.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함.	3.8(1.0)	4.1(0.7)	4.0(0.8)	4.655(998)***
전체			4.0(0.5)	4.2(0.4)	4.1(0.5)	

** $p < .01$, *** $p < .001$

영유아 발달 문항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과 그렇지 않은 편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모두 부에게서 나온 응답이며 연령이 높고,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으며, 양부모 가정 부모에 비해 조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문항은 애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많은 부모가 애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V-2-3〉 영유아 발달: 문항별 응답률 현황

단위: %

영유아 발달 문항	전혀 그렇지않음	그렇지 않은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려함
1. 애착의 중요성을 이해함.	0.1	0.5	4.6	57.0	37.8
2. 연령별 발달 모습을 앎.	0.1	1.5	16.3	45.7	36.4
3. 발달단계와 연령을 고려하여 아이의 행동 이해함.	0.2	1.3	14	54.8	29.7
4. 아이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 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	0.1	3.5	18.3	52.6	25.5
5. 아이가 또래와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짐.	0.2	1.2	12.3	56.7	29.6
6.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흥미 있 어 하는 놀잇감이나 사물, 자 연물 등을 제공함.	-	1.4	14.8	68.3	15.5
7. 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아 이의 대·소근육 발달을 도움.	-	1.6	16.7	52.7	29.0
8.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함.	0.3	5.1	19.4	45.9	29.3

영유아 발달에 관한 문항별로 부모의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별, 취업 유무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규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모습을 잘 알고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경험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아이의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취업유무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문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비취업모의 높은 점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의 경우 취업부의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모의 경우에는 취업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모의 점수대가 높아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점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발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성장역량은 부모의 연령이 낮고, 학력과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균형적인 발달이나 다양한 활동 제공, 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문항의 점수대가 낮았다.

〈표 IV-2-4〉 영유아 발달: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구분		영유아 발달 문항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크기	취업 유무
인 식	공 통	1. 애착의 중요성을 이해함.	2.075(178)*	1.516(998)	2.449(2)	4.994(2)**	1.082(4)
		2. 연령별 발달 모습을 앎.	4.442(998)***	1.936(459)	5.781(2)**	11.620(2)***	10.573(4)***
실 행	공 통	3. 발달단계와 연령을 고려하여 아이 행동 이해함.	3.257(172)**	2.081(436)*	4.861(2)**	1.622(2)	10.917(4)***
		4. 아이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 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	4.574(998)***	2.600(998)**	8.232(2)***	1.998(2)	18.591(4)***
		5. 아이가 또래와 잘 지내는지 관심 가짐.	3.218(170)**	2.586(399)*	7.528(2)***	0.653(2)	11.267(4)***
		6.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흥미 있 어 하는 놀잇감이나 사물, 자 연물 등을 제공함.	3.868(998)***	2.692(998)**	4.887(2)**	1.318(2)	9.436(4)***
		7. 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대·소근육 발달을 도움.	3.494(173)***	2.395(427)*	3.819(2)*	5.126(2)**	9.811(4)***
성 장	공 통	8.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함.	4.515(998)***	3.814(998)***	8.466(2)***	0.117(2)	20.823(4)***

* $p < .05$, ** $p < .01$, *** $p < .001$

나.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 인식역량은 부모보다는 모, 읍면지역보다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성장역량 역시 부모보다는 모가 더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역량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규모가 클수록 실행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부모 각각의 취업유무나 형태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표 IV-2-5〉 건강과 안전: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 모	부	3.9(0.7)	4.705(998)***	4.0(0.5)	5.550(998)***	3.8(0.9)	4.764(998)***
	모	4.1(0.6)		4.2(0.4)		4.1(0.7)	
연 령	34세 이하	4.0(0.6)	1.870(972)	4.2(0.4)	2.849(954)**	4.0(0.7)	2.160(982)*
	35세 이상	4.0(0.6)		4.1(0.4)		3.9(0.8)	
학 력	고졸 이하	4.0(0.6)	0.105(485)	4.1(0.5)	1.666(998)	4.0(0.8)	0.248(446)
	대졸 이상	4.0(0.6)		4.2(0.4)		4.0(0.8)	

(표 IV-2-5 계속)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소득	상	4.0(0.6)	2.063(2)	4.2(0.4)	5.080(2)**	4.0(0.7)	3.283(2)*	
	중	4.0(0.6)		4.1(0.4)		4.0(0.8)		
	하	4.0(0.6)		4.1(0.5)		3.9(0.8)		
지역규모	대도시	4.0(0.6)	4.086(2)*	4.2(0.4)	3.045(2)*	4.0(0.7)	0.421(2)	
	중소도시	4.1(0.6)		4.1(0.5)		4.0(0.8)		
	읍면	3.9(0.6)		4.0(0.4)		3.9(0.8)		
취업	부	유	2.127(573)*	4.0(0.5)	3.678(625)***	3.8(0.9)	2.927(625)**	
		무		4.0(0.7)		4.0(0.6)		3.8(0.8)
	모	유(전)		4.1(0.6)		4.2(0.5)		4.0(0.7)
		유(시)		4.1(0.6)		4.2(0.4)		4.2(0.7)
		무		4.1(0.6)		4.2(0.4)		4.1(0.7)

* $p < .05$, ** $p < .01$, *** $p < .001$

건강과 안전에 관한 영유아 공통문항 가운데 부모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시기에 맞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실시함(4.3점)으로 나타났다. 부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둠(4.3점), 모의 경우 가정에 아이를 위한 비상약을 항상 구비함(4.3점)이 높게 나타났다. 세 문항 모두 실행역량 문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 성장역량 문항에 비해 점수가 높은 편이다.

점수가 낮은 문항은 부의 경우, 아이가 골고루 먹도록 여러 요리 방법을 시도한 음식을 제공함(3.8점)이며 모의 경우 아이의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4.0점)과 영아의 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 등을 고려하여 양육함(4.0점)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위해 여러 요리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일로 간주되어 아버지의 응답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응급처치 관련 문항은 부의 경우에도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으로 아이의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에 대한 안내나 부모교육이 부모 모두에게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영아 대상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모의 역량이 부의 역량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가 자랄수록 아버지의 관심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2-6〉 건강과 안전: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건강과 안전 문항	M(SD)			t
			부	모	전체	
인식	공통	9. 아이의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3.9(0.8)	4.0(0.7)	3.9(0.8)	2592(998)**
		10. 아이의 건강상 특이사항 유무 및 내용을 알고 있음.	3.9(0.8)	4.2(0.7)	4.1(0.7)	5238(832)***
실행	공통	11. 가정에 아이를 위한 몇 가지 비상약을 항시 구비함.	4.1(0.7)	4.3(0.6)	4.2(0.7)	3864(841)***
		12. 시기에 맞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실시함.	4.2(0.7)	4.4(0.7)	4.3(0.7)	4561(851)***
		13. 가정 내 안전사고 (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을 위해 위험행동을 아이에게 알리고 지도함.	4.1(0.7)	4.2(0.7)	4.1(0.7)	2030(864)*
		14.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함.	3.9(0.8)	4.1(0.7)	4.0(0.7)	4407(998)***
		15. 아이의 기분(마음 건강)을 살피고 확인함.	4.0(0.7)	4.2(0.7)	4.1(0.7)	4747(844)***
	영아	16. 아이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둠.	4.3(0.7)	4.3(0.7)	4.3(0.7)	0.157(446)
		17.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가구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신경 씀.	4.2(0.7)	4.2(0.8)	4.2(0.7)	0.135(442)
		18. 영아의 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 등을 고려하여 양육함.	3.9(0.8)	4.0(0.8)	4.0(0.8)	0.837(426)
	유아	16. 아이에게 교통사고, 성폭행, 유괴 등의 위험상황을 인지시키고 그 대처법에 대해 지도함.	3.9(0.9)	4.1(0.7)	4.0(0.8)	2.215(498)*
		17. 아이가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도록 지도함.	3.9(0.9)	4.1(0.8)	4.0(0.8)	3372(498)***
18. 아이에게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도록 지도함.		4.1(0.8)	4.2(0.6)	4.2(0.7)	2828(404)**	
성장	공통	19. 나는 아이가 골고루 먹도록 여러 요리 방법을 시도한 음식을 제공함.	3.8(0.9)	4.1(0.7)	4.0(0.8)	4764(998)***

* $p < .05$, ** $p < .01$, *** $p < .001$

건강과 안전 문항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과 그렇지 않은 편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공통문항 중에서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방법을 아는 것이며 영아부모용에서는 영아의 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 등을 고려하여 양육한다는 문항이었고, 유아부모용에서는 아이가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도록 지도한다는 문항이었다.

〈표 IV-2-7〉 건강과 안전: 문항별 응답률 현황

단위: %

건강과 안전 문항	전혀 그렇지않음	그렇지 않은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9. 아이의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0.1	3.1	22.3	51.2	23.3
10. 아이의 건강상 특이사항 유무 및 내용을 알고 있음.	-	1.9	16.3	54.4	27.4
11. 가정에 아이를 위한 몇 가지 비상약을 항상 구비함.	-	0.6	12.2	51.4	35.8
12. 시기에 맞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실시함.	-	0.9	10.7	41.3	47.1
13. 가정 내 안전사고 (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을 위해 위험행동을 아이에게 알리고 지도함.	0.1	1.0	15.2	53.5	30.2
14.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함.	0.1	2.0	20	52.6	25.3
15. 아이의 기분(마음 건강)을 살피고 확인함.	-	1.5	16	54.9	27.6
16. 아이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둠(영아).	-	1.0	12.4	45.0	41.6
16. 아이에게 교통사고, 성폭행, 유괴 등의 위험상황을 인지시키고 그 대처법에 대해 지도함(유아).	0.6	3.2	3.8	17.2	49.6
17.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가구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신경 씬(영아).	-	1.8	15.6	46.6	36.0
17. 아이가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도록 지도함(유아).	-	4.4	19.4	46	30.2
18. 영아의 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 등을 고려하여 양육함(영아).	-	3.6	20.4	51.8	24.2
18. 아이에게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도록 지도함(유아).	0.2	1.8	12.2	53.8	32.0
19. 나는 아이가 골고루 먹도록 여러 요리 방법을 시도한 음식을 제공함.	0.3	3.4	19.1	52.0	25.2

부모의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건강과 안전 영역의 문항별 차이 는 다음과 같다. 부모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성장역량 역시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읍면지역보다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부모들이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규모별 부모역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2-8〉 건강과 안전: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건강과 안전 문항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크기	취업 유무
인 식	공 통	9. 아이의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1.047(972)	0.312(444)	2.304(2)	5.849(2)**	13.798(4)***
		10. 아이의 건강상 특이사항 유무 및 내용을 알고 있음.	2.100(960)*	0.170(487)	0.802(2)	1.270(2)	3.413(4)**
공 통		11. 가정에 아이를 위한 몇 가지 비상약을 항시 구비함.	1.427(957)	0.598(464)	1.414(2)	2.494(2)	4.692(4)***
		12. 시기에 맞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실시함.	0.784(948)	0.032(468)	2.062(2)	2.947(2)	3.537(4)**
		13. 가정 내 안전사고 (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을 위해 위험행동을 아이에게 알리고 지도함.	1.218(998)	2.599(424)**	5.192(2)**	0.852(2)	1.316(4)
		14.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함.	2.387(957)*	0.652(474)	0.439(2)	0.631(2)	14.021(4)***
		15. 아이의 기분(마음 건강)을 살피고 확인함.	2.716(966)**	0.080(461)	4.893(2)**	2.240(2)	10.228(4)***
실 행	영 아	16. 아이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둠.	1.319(448)	1.329(224)	1.908(2)	2.741(2)	0.433(4)
		17.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가구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신경 씀.	0.177(473)	0.735(223)	0.006(2)	1.234(2)	2.528(4)*
		18. 영아의 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 등을 고려하여 양육함.	1.648(467)	0.558(224)	4.858(2)**	0.518(2)	5.664(4)***
유 아		16. 아이에게 교통사고, 성폭행, 유괴 등의 위험상황을 인지시키고 그 대처법에 대해 지도함.	1.327(328)	1.138(216)	4.474(2)*	4.195(2)*	5.752(4)***
		17. 아이가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도록 지도함.	0.456(307)	1.568(498)	1.111(2)	1.995(2)	6.815(4)***
		18. 아이에게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도록 지도함.	1.355(345)	1.619(197)	1.439(2)	1.840(2)	9.092(4)***
성 장 통	공 통	19. 나는 아이가 골고루 먹도록 여러 요리 방법을 시도한 음식을 제공함.	2.160(982)*	0.248(446)	3.283(2)*	0.421(2)	14.351(4)***

* $p < .05$, ** $p < .01$, *** $p < .001$

다. 가족관계

가족관계 영역을 부모의 역량 영역에 따라 나누어보면 인식, 실행, 성장역량은 부모보다 모, 연령은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인식역량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장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9〉 가족관계: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4.0(0.5)	4.840(998)***	3.9(0.5)	4.312(998)***	3.8(0.6)	6.089(998)***	
	모	4.2(0.5)		4.1(0.4)		4.0(0.5)		
연령	34세 이하	4.1(0.5)	2.600(958)**	4.1(0.4)	4.973(967)***	4.0(0.5)	3.645(982)***	
	35세 이상	4.0(0.5)		4.0(0.5)		3.9(0.6)		
학력	고졸 이하	4.0(0.5)	2.204(483)*	4.0(0.5)	1.125(431)	3.9(0.7)	1.507(998)	
	대졸 이상	4.1(0.5)		4.0(0.4)		4.0(0.5)		
소득	상	4.1(0.5)	1.167(2)	4.1(0.4)	2.735(2)	4.0(0.5)	7.653(2)***	
	중	4.1(0.5)		4.0(0.5)		4.0(0.6)		
	하	4.1(0.5)		4.0(0.5)		3.8(0.7)		
지역규모	대도시	4.1(0.5)	1.375(2)	4.0(0.4)	0.592(2)	3.9(0.5)	0.273(2)	
	중소도시	4.1(0.5)		4.0(0.5)		3.9(0.6)		
	읍면	4.0(0.5)		4.0(0.5)		4.0(0.5)		
취업	부	유	2.249(543)*	3.9(0.5)	2.231(552)*	3.8(0.6)	3.203(625)**	
		무		3.9(0.6)		3.8(0.8)		
	모	유(전)		4.1(0.5)		4.0(0.5)		4.0(0.6)
		유(사)		4.2(0.3)		4.1(0.4)		4.1(0.4)
		무		4.2(0.5)		4.1(0.4)		4.1(0.5)

* $p < .05$, ** $p < .01$, *** $p < .001$

가족관계 중에서 부모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인식역량에 해당되는 나의 행복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실행역량에 해당되는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아이와 함께 식사함,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표현함으로 모두 4.2점의 점수를 보였다. 영아 대상 문항의 경우, 아이에게 긍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임이 4.2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유아 대상 문항인 아이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음은 평균보다 낮은 3.8점을 나타냈다. 부모의 문항별 점수가 크게 차이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모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0.2점 가량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식과 성장역량의 모든 문항 그

리고 실행역량의 일부 문항에서 유의하였다. 가족관계 측면에서 부모 간 인식, 실행, 성장역량에 모두에서 모의 역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2-10〉 가족관계: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구분	가족관계 문항	M(SD)			t		
		부	모	전체			
인식	공통	20. 나의 행복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4.1(0.7)	4.3(0.6)	4.2(0.6)	2.553(864)*	
		21.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음.	4.1(0.7)	4.2(0.7)	4.1(0.7)	3.481(860)***	
		22. 내 양육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음.	3.8(0.8)	4.0(0.7)	3.9(0.8)	4.273(998)***	
실행	공통	23.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아이와 함께 식사함.	4.0(0.8)	4.3(0.7)	4.2(0.8)	7.682(777)***	
		24. 아이 앞에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3.9(0.8)	4.0(0.7)	4.0(0.8)	2.122(998)*	
		25.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표현함.	4.1(0.7)	4.3(0.7)	4.2(0.7)	3.969(848)***	
		26.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은 참음.	3.9(0.8)	4.0(0.7)	4.0(0.7)	2.100(848)*	
		27. 아이를 내 기분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대함.	3.7(0.9)	3.8(0.8)	3.7(0.9)	1.647(998)	
		28. 아이의 말에 성의 있게 대답함.	4.0(0.8)	4.1(0.7)	4.0(0.7)	1.525(998)	
		29. 아이를 형제자매 및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음.	4.0(0.7)	4.0(0.7)	4.0(0.7)	0.592(887)	
		30. 아이의 기질을 존중함.	4.0(0.7)	4.1(0.7)	4.0(0.7)	0.830(844)	
		영아	31. 아이에게 긍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임.	4.1(0.6)	4.2(0.7)	4.2(0.7)	0.671(426)
		유아	31. 아이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음.	3.8(0.8)	3.9(0.9)	3.8(0.8)	1.654(498)
성장	공통	32.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교육을 받거나 자료를 찾아봄.	3.7(0.9)	4.0(0.8)	3.8(0.8)	5.762(998)***	
		33. 나의 양육관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숙고함.	3.7(0.8)	4.0(0.7)	3.9(0.8)	5.456(998)***	
		34.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함.	4.1(0.7)	4.1(0.7)	4.1(0.7)	2.199(850)*	

* $p < .05$, ** $p < .01$, *** $p < .001$

가족관계 문항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과 그렇지 않은 편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공통문항인 아이의 말에 성의 있게 대답한다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영아, 유아 문항을 살펴보면 영아 문

항인 아이에게 긍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는 문항에 비해 유아 문항인 유아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보다 자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부모에게 어렵고 자녀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 부모가 더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표 IV-2-11〉 가족관계: 부모역량 문항별 응답률 현황

단위: %

가족관계 문항	전혀 그렇지않음	그렇지 않은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20. 나의 행복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	0.7	10.5	56.2	32.6
21.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음.	0.1	0.8	13.8	55.3	30
22. 내 양육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음.	0.1	3.1	24.4	50.9	21.5
23.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아이와 함께 식사함.	0.2	2.4	14.1	45.1	38.2
24. 아이 앞에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3.4	21.8	49.6	25.2
25.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표현함.	0.1	3.6	17.4	51.8	27.1
26.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은 참음.	-	0.7	13.7	49.2	36.4
27. 아이를 내 기분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대함.	-	2.5	18.1	56.1	23.3
28. 아이의 말에 성의 있게 대답함.	1	7.6	27	46.2	18.2
29. 아이를 형제자매 및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음.	-	2.2	18	55	24.8
30. 아이의 기질을 존중함.	-	2.3	20.4	53.3	24
31. 아이에게 긍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임(영아).	-	0.6	12	54.2	33.2
31. 아이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음(유아).	0.2	6.6	22.8	49.4	21
32.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교육을 받거나 자료를 찾아봄.	0.9	4.9	23.9	49.9	20.4
33. 나의 양육관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숙고함.	0.5	3.5	22.2	55	18.8
34.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함.	0.1	1.5	13.8	56.8	27.8

가족관계에 관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한 부모 및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온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태도로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연령, 고소득 집단에서 보다 행복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성장역량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취업유무에 관해서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부모의 성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구분에 따라 차이가 났던 문항들이 취업유무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 배우자와의 언쟁이나 다툼을 보이지 않음, 내 기분에 상관없이 아이를 일관적으로 대함, 아이의 말에 성의 있게 대답함, 형제자매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 모의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및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예측되므로 취업모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취업모의 점수가 모의 평균점수보다 낮는데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항에서만 취업모의 점수가 더 높았다.

〈표 IV-2-12〉 가족관계: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가족관계 문항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크기	취업 유무
인식	공통	20. 나의 행복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3.509(998)***	0.772(479)	0.929(2)	3.827(2)*	2.178(4)
		21.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음.	3.502(998)***	2.548(438)*	0.613(2)	3.022(2)*	1.646(4)
		22. 내 양육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음	2.651(998)**	1.324(468)	1.013(2)	1.462(2)	6.276(4)***
실행 (1)	공통 (1)	23.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아이와 함께 식사함.	0.318(178)	0.717(508)	0.722(2)	0.628(2)	1.770(4)
		24. 아이 앞에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2.399(998)*	1.012(998)	3.174(2)*	7.000(2)	14.331(4)***
		25.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표현함.	3.230(998)**	1.592(998)	2.245(2)	0.392(2)	2.354(4)
		26.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은 참음.	3.246(998)**	1.352(998)	2.762(2)	0.242(2)	7.446(4)***
		27. 아이를 내 기분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대함.	3.749(998)***	0.525(998)	3.083(2)*	0.028(2)	16.091(4)***
		28. 아이의 말에 성의 있게 대답함.	1.958(176)	1.246(476)	3.126(2)*	0.172(2)	21.79(4)***

(표 IV-2-12 계속)

		가족관계 문항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크기	취업 유무
실 행 (2)	공 통	29. 아이를 형제자매 및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음.	2.589(998)**	0.823(473)	1.108(2)	0.832(2)	9.043(4)***
		30. 아이의 기질을 존중함.	3.048(178)**	1.063(445)	0.756(2)	0.694(2)	8.564(4)***
	영 아	31. 아이에게 긍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임.	2.218(498)*	0.380(238)	0.028(2)	1.371(2)	2.918(4)*
		유 아	31. 아이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음.	1.606(277)	1.097(209)	2.038(2)	0.307(2)
성 장	공 통	32.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 교육을 받거나 자료를 찾아봄.	2.416(998)*	1.945(998)	5.135(2)**	0.113(2)	13.723(4)***
		33. 나의 양육관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숙고함.	5.436(998)***	1.831(998)	8.552(2)***	1.315(2)	16.512(4)***
		34.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함.	0.215(173)	0.587(998)	1.274(2)	1.365(2)	1.892(4)

* p < .05, ** p < .01, *** p < .001

라. 물리적·물질적 환경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역을 살펴보면 실행, 성장역량은 부모보다 모,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인식역량은 부모의 성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부모보다 모의 역량이 더 높았다. 한편, 취업유무나 형태에 따른 부의 역량 차이는 없었고, 모의 경우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인식역량에서는 전일제 취업모의 점수가 높았으나 성장역량에서는 반대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IV-2-13〉 물리적·물질적 환경 :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 모	부	4.0(0.6)	2.294(845)*	3.9(0.5)	5.285(998)***	3.9(0.8)	2.613(998)**
	모	4.1(0.5)		4.0(0.4)		4.0(0.8)	
연 령	34세 이하	4.1(0.5)	1.325(948)	4.0(0.5)	2.474(972)*	4.0(0.8)	3.153(965)**
	35세 이상	4.1(0.5)		3.9(0.5)		3.9(0.8)	
학 력	고졸 이하	4.1(0.6)	0.060(425)	3.9(0.5)	1.568(998)	3.9(0.9)	1.415(998)
	대졸 이상	4.1(0.5)		4.0(0.4)		4.0(0.8)	

(표 IV-2-13 계속)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소득	상	4.1(0.5)	0.817(2)	4.0(0.4)	6.925(2)**	4.0(0.7)	4.455(2)*	
	중	4.1(0.5)		4.0(0.4)		3.9(0.8)		
	하	4.0(0.6)		3.9(0.5)		3.9(0.9)		
지역규모	대도시	4.1(0.5)	2.241(2)	3.9(0.4)	3.262(2)*	3.9(0.8)	0.015(2)	
	중소도시	4.1(0.5)		4.0(0.5)		4.0(0.8)		
	읍면	4.0(0.6)		3.9(0.4)		3.9(0.7)		
취업	부	유	0.710(496)	3.9(0.6)	2.725(625)**	3.8(0.9)	2.244(625)*	
		무		3.9(0.5)		3.8(0.9)		
	모	유(전)		4.2(0.5)		4.0(0.5)		3.9(0.8)
		유(사)		4.1(0.3)		4.0(0.4)		4.0(0.7)
		무		4.1(0.6)		4.0(0.4)		4.0(0.7)

* $p < .05$, ** $p < .01$, *** $p < .001$

물리적·물질적 환경의 공통문항 중에서 부모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아이가 가정에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풀, 색연필, 가위 등)을 구비하고 있음(4.2점)으로 나타났다. 영아 대상 문항(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씬)은 부모 전체 점수가 4.2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유아 대상 문항인 다른 부모나 또래와의 경쟁심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음(3.8점)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모 간 점수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부에 비해 모의 점수가 0.15점 정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실행과 성장역량 그리고 인식역량의 일부 문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물리적·물질적 환경 측면의 부모역량은 인식, 실행, 성장역량에서 부모 간 차이가 있어 부에 비해 모의 역량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2-14〉 물리적·물질적 환경: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구분	물리적·물질적 환경 문항	M(SD)			t
		부	모	전체	
인식	35. 아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	4.1(0.7)	4.1(0.6)	4.1(0.6)	1.489(881)
	36. 아이의 물질적 욕구(물건 사기 등)에 대한 과도한 허용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4.0(0.7)	4.1(0.6)	4.1(0.6)	2.275(849)*

(표 IV-2-14 계속)

구분	물리적·물질적 환경 문항	M(SD)			t
		부	모	전체	
실 행	37. 집을 정리정돈하거나 깨끗하게 함.	3.9(0.7)	4.1(0.6)	4.0(0.7)	4.839(998)***
	38. TV를 계속 틀어둔 상태로 두지 않으려 함.	3.8(0.8)	4.0(0.7)	3.9(0.7)	3.455(998)***
	39. 아이가 일정시간만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조절함.	3.8(0.7)	4.0(0.7)	3.9(0.7)	3.399(945)***
	40.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계획하고 사주는 편임.	3.8(0.9)	3.9(0.8)	3.8(0.8)	2.414(998)*
	41. 아이가 가정에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색연필, 가위 등)을 구비하고 있음.	4.1(0.8)	4.2(0.7)	4.2(0.7)	3.044(836)**
영아	42.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기저귀, 이유식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씀.	4.1(0.7)	4.2(0.7)	4.2(0.7)	2.260(498)*
유아	42. 다른 부모나 또래와의 경쟁심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음.	3.8(0.9)	3.9(0.9)	3.8(0.9)	1.509(460)
성 장 통	43. 아이가 자람에 따라 가정 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음.	3.9(0.8)	4.0(0.8)	3.9(0.8)	2.613(998)**

* $p < .05$, ** $p < .01$, *** $p < .001$

물리적·물질적 문항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과 그렇지 않은 편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공통문항 중에서 아이의 장난감을 계획하고 사준다는 문항이었다. 또한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과 TV를 틀어둔 채로 두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도 높아 계획적인 소비나 미디어 환경 노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V-2-15〉 물리적·물질적 환경: 문항별 응답률 현황

단위: %

물리적·물질적 환경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35. 아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	-	1.2	13	60.6	25.2
36. 아이의 물질적 욕구(물건 사기 등)에 대한 과도한 허용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	0.8	15.2	61.5	22.5

(표 IV-2-15 계속)

물리적·물질적 환경 문항	전혀 그렇지않음	그렇지 않은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37. 집을 정리정돈하거나 깨끗하게 함.	0.1	1.3	17.9	58.8	21.9
38. TV를 계속 틀어둔 상태로 두지 않으려 함.	0.4	3.9	17.4	58.8	19.5
39. 아이가 일정시간만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조절함.	-	5.4	18	59.7	17
40.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계획하고 사주는 편임.	0.2	5.9	25.5	47.6	20.8
41. 아이가 가정에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풀, 색연필, 가위 등)을 구비하고 있음.	0.1	1.2	14.2	51.6	32.9
42.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기저귀, 이유식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씬(영아).	-	1.6	13.2	51.8	33.4
42. 다른 부모나 또래와의 경쟁심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음(유아).	1.6	7	21.2	46.6	23.6
43. 아이가 자람에 따라 가정 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음.	0.1	3.6	23	48.2	25.1

물리적·물질적 환경에 관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 실행, 성장역량의 문항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이의 미디어 활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아이가 요구하거나 욕구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계획적으로 구매하며 아동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환경 조성에 관심이 높았다.

취업유무나 형태별로 보면 인식역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행, 성장역량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취업모의 경우 아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앎,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조절함, 장난감을 계획적으로 사준다는 문항에서 점수가 더 높았으나 또래와의 경쟁심으로 사교육을 하지 않음, 아이가 가정에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풀, 색연필, 가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아이가 자람에 따라 환경변화를 준다는 문항에서는 비취업모보다 점수가 낮았다.

〈표 IV-2-16〉 물리적·물질적 환경: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구분	물리적·물질적 환경 문항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크기	취업유무	
인식	공통	35. 아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	0.636(183)	0.635(437)	0.458(2)	2.909(2)	0.253(4)
	공통	36. 아이의 물질적 욕구(물건 사기 등에 대한 과도한 허용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0.913(174)	0.760(450)	0.970(2)	1.867(2)	0.184(4)
실행	공통	37. 집을 정리정돈하거나 깨끗하게 함.	1.967(998)*	0.195(439)	0.061(2)	0.263(2)	6.510(4)***
		38. TV를 계속 틀어둔 상태로 두지 않으려 함.	2.647(998)**	0.933(998)	1.777(2)	0.999(2)	4.171(4)**
		39. 아이가 일정시간만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조절함.	4.508(216)***	0.075(998)	3.830(2)*	0.490(2)	2.762(4)*
		40.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계획하고 사주는 편임.	3.715(998)***	1.911(445)	13.271(2)***	1.805(2)	16.889(4)***
		41. 아이가 가정에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풀, 색연필, 가위 등)을 구비하고 있음.	2.650(170)**	0.708(425)	5.724(2)**	5.656(2)**	4.764(4)***
	영아	42.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기저귀, 이유식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씀.	0.752(456)	0.274(235)	0.472(2)	1.506(2)	3.961(4)**
	유아	42. 다른 부모나 또래와의 경쟁심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음.	1.863(498)	0.399(218)	0.852(2)	0.346(2)	4.017(4)**
성장	공통	43. 아이가 자람에 따라 가정 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음.	2.260(998)*	1.415(998)	4.455(2)*	0.015(2)	14.424(4)***

* $p < .05$, ** $p < .01$, *** $p < .001$

마. 놀이

놀이 영역에서는 부모의 인식역량이 모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실행, 성장역량은 부모보다 모,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또한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읍면지역에서 성장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무의 경우 실행, 성장역량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의 경우 인식역량에서는 취업부의 점수가 높지만 성장역량에서는 더 낮게 나타났다.

〈표 IV-2-17〉 놀이: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 모	부	4.1(0.5)	3.116(998)**	3.9(0.5)	4.626(998)***	3.8(0.9)	3.922(998)***	
	모	4.2(0.5)		4.0(0.4)		4.0(0.7)		
연 령	34세 이하	4.2(0.5)	0.538(998)	4.1(0.5)	4.039(978)***	3.9(0.7)	1.968(998)*	
	35세 이상	4.2(0.5)		3.9(0.5)		3.8(0.8)		
학 력	고졸 이하	4.2(0.5)	0.247(477)	3.9(0.6)	2.879(998)**	3.8(0.9)	2.644(998)**	
	대졸 이상	4.2(0.5)		4.0(0.4)		3.9(0.7)		
소 득	상	4.2(0.5)	0.654(2)	4.0(0.4)	8.504(2)***	3.9(0.7)	8.976(2)***	
	중	4.2(0.5)		4.0(0.5)		3.9(0.8)		
	하	4.2(0.5)		3.9(0.6)		3.7(0.9)		
지 역 규모	대도시	4.2(0.5)	1.072(2)	4.0(0.4)	0.052(2)	3.9(0.7)	3.934(2)*	
	중소도시	4.2(0.5)		4.0(0.5)		3.8(0.9)		
	읍면	4.1(0.6)		4.0(0.5)		3.9(0.7)		
취 업	부	유	0.089(546)	3.9(0.6)	2.999(625)**	3.7(0.9)	2.612(625)**	
		무		4.0(0.5)		3.9(0.7)		3.8(1.0)
	모	유(전)		4.3(0.5)		4.0(0.5)		3.9(0.8)
		유(시)		4.3(0.3)		4.0(0.4)		3.9(0.6)
		무		4.2(0.5)		4.1(0.4)		4.0(0.8)

* $p < .05$, ** $p < .01$, *** $p < .001$

놀이의 공통문항 중에서 부모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아이와 함께 놀면서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함,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함을 앎,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앎(각 4.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인식역량 문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행, 성장역량 문항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부의 점수가 모에 비해 평균적으로 0.2점이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놀이 영역에서 부의 역량이 모의 역량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앞선 영역들과 같이 놀이 역시 인식, 실행, 성장역량에서 부모 간 차이가 있으며 부에 비해 모의 역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2-18〉 놀이: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구분	놀이 문항	M(SD)			t
		부	모	전체	
인 공 통 인 식	44. 아이와 함께 놀면서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함.	4.1(0.7)	4.2(0.6)	4.2(0.6)	2.783(998)**
	45.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음.	4.2(0.7)	4.3(0.6)	4.2(0.7)	1.782(842)
	46.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	4.1(0.7)	4.2(0.6)	4.2(0.7)	2.306(852)*

(표 IV-2-18 계속)

구분	놀이 문항	M(SD)			t	
		부	모	전체		
실 행	공 통	47. 아이에게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 제공함.	3.9(0.8)	4.1(0.7)	4.0(0.7)	3.869(998)***
		48.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놀잇감을 찾아줌.	4.0(0.7)	4.1(0.7)	4.0(0.7)	2.167(856)*
		49. 아이의 놀잇감을 살 때, 재질 크기, 유독성 등의 유무를 세심하게 고려함.	3.9(0.8)	4.1(0.7)	4.0(0.7)	3.647(998)***
		50. 아이가 다양한 유형의 놀잇감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줌.	4.0(0.8)	4.1(0.7)	4.0(0.7)	2.236(998)*
		51. 아이가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함.	3.9(0.8)	4.1(0.7)	4.0(0.7)	2.410(998)*
		52. 아이와 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즐겨워함.	3.9(0.8)	4.0(0.7)	4.0(0.7)	1.967(998)*
	53. 아이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편임.	3.9(0.8)	4.0(0.7)	4.0(0.7)	3.522(998)***	
	영 아	54. 아이와 까꿍이나 잼잼 등 소리 내어 놀면서 상호작용함.	4.0(0.7)	4.2(0.7)	4.1(0.7)	1.766(417)
		55. 아이와 상징놀이(모래로 음식 만들기, 의자로 자동차놀이하기 등)를 함.	3.8(0.9)	3.9(0.8)	4.1(0.7)	3.497(998)***
	유 아	54. 놀이를 통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함.	3.8(0.8)	4.0(0.7)	3.9(0.7)	2.777(456)**
55. 집 밖에서 아이와 놀이를 주기적으로 함께 함.		3.8(0.9)	4.0(0.8)	3.9(0.8)	3.497(998)***	
성 장 통	56. 시간이 없어도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	3.8(0.9)	4.0(0.7)	3.9(0.8)	3.922(998)***	

* $p < .05$, ** $p < .01$, *** $p < .001$

놀이 영역에서 부정적 답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시간이 없어도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성장역량 문항으로 부모가 시간이 없거나 바쁠 때 자녀와 놀아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표 IV-2-19〉 놀이: 문항별 응답률 현황

단위: %

놀이 문항	전혀 그렇지않음	그렇지 않은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44. 아이와 함께 놀면서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함.	-	0.5	11.4	56.7	31.4
45.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음.	-	0.4	12.1	51.3	36.2
46.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	-	0.5	13.5	53.8	32.2

(표 IV-2-19 계속)

놀이 문항	전혀 그렇지않음	그렇지 않은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47. 아이에게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 제공함.	0.2	2.4	19	53.1	25.3
48.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놀잇감을 찾아줌.	-	1.4	19.4	55.1	24.1
49. 아이의 놀잇감을 살 때, 재질, 크기, 유독성 등의 유무를 세심하게 고려함.	-	2.2	20	52.8	25
50. 아이가 다양한 유형의 놀잇감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줌.	-	2.7	17.1	56	24.2
51. 아이가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함.	-	2.7	17.1	56	24.2
52. 아이와 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함.	0.1	2.3	20.7	53.8	23.1
53. 아이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편임.	-	2.7	21	53.9	22.4
54. 아이와 까꿍이나 잼잼 등 소리 내어 놀면서 상호작용함(영아).	-	2	15	52.6	30.4
55. 나는 아이와 상징놀이(모래로 음식 만들기, 의자로 자동차놀이하기 등)를 함.	-	5.8	23	49.8	21.4
54. 놀이를 통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함(유아).	-	2.8	23.4	52.2	21.6
55. 집 밖에서 아이와 놀이를 주기적으로 함께 함.	0.4	5.6	21.6	50.2	22.2
56. 시간이 없어도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둠.	0.3	5.1	22.6	51.7	20.3

놀이 영역을 살펴보면 인식, 실행, 성장역량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특히 부모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같이 놀아주며, 자녀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놀이를 독려해주고 놀이를 통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이와의 놀이 시간을 중시하는 성장역량은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대도시 및 읍면지역 집단, 비취업모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IV-2-20〉 놀이: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놀이 문항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크기	취업 유무		
인식	공통	44. 아이와 함께 놀면서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함	2.034(998)*	0.303(491)	0.883(2)	2.878(2)	3.787(4)**		
		45.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음.	2.363(998)*	0.354(478)	0.070(2)	1.240(2)	0.616(4)		
		46.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	1.437(184)	0.097(467)	0.702(2)	0.190(2)	1.132(4)		
실행	공통	47. 아이에게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 제공함.	3.989(998)***	2.539(998)*	6.340(2)**	0.729(2)	15.045(4)***		
		48.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놀잇감을 찾아줌.	4.575(998)***	1.583(438)	3.653(2)*	0.188(2)	12.936(4)***		
		49. 아이의 놀잇감을 살 때, 재질, 크기, 유독성 등의 유무를 세심하게 고려함.	4.391(998)***	1.132(998)	1.787(2)	0.085(2)	7.119(4)***		
		50. 아이가 다양한 유형의 놀잇감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줌.	3.234(998)**	1.839(998)	6.329(2)**	0.005(2)	9.281(4)***		
		51. 아이가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함.	2.139(998)*	1.501(998)	1.754(2)	1.305(2)	6.305(4)***		
		52. 아이와 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즐겨워함.	0.943(998)	1.110(998)	5.323(2)**	0.738(2)	9.835(4)***		
	영아	공통	53. 아이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편임	3.191(998)**	3.171(998)**	9.194(2)***	0.169(2)	16.347(4)***	
			54. 아이와 까꿍이나 잼잼 등 소리 내어 놀면서 상호작용함.	1.769(456)	1.030(498)	1.456(2)	1.100(2)	8.769(4)***	
			55. 나는 아이와 상징놀이(모래로 음식 만들기, 의자로 자동차놀이하기 등)를 함.	4.470(998)***	1.213(998)	3.471(2)*	0.208(2)	11.634(4)***	
		유아	공통	54. 놀이를 통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함.	1.640(307)	2.802(498)**	1.842(2)	1.439(2)	6.981(4)***
				55. 집 밖에서 아이와 놀이를 주기적으로 함께 함.	5.533(998)***	1.213(998)	3.471(2)*	0.208(2)	6.530(4)***
				56. 시간이 없어도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둠.	4.328(998)***	2.644(998)**	8.976(2)***	3.934(2)*	19.776(4)***

* p < .05, ** p < .01, *** p < .001

바. 생활지도

생활지도 영역을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성장역량이 부모의 성차,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보다 모,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장역량이 높았으며, 인식과 실행역량 역시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무별로는 모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고, 부의 경우에는 인식역

량에서 점수 차이가 없었지만 실행 및 성장역량에서는 취업부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인식과 성장역량에서 비취업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를 비취업부모의 역량이 더 높다고 해석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모다는 모의 점수가 높으며 비취업에 부모다는 모의 점수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IV-2-21〉 생활지도: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3.8(0.8)	2.783(998)**	3.8(0.5)	1.875(865)	3.8(0.6)	4.161(998)***	
	모	4.0(0.7)		3.8(0.4)		4.0(0.5)		
연령	34세 이하	4.0(0.7)	2.017(998)*	3.8(0.5)	2.590(998)**	4.0(0.5)	3.550(998)***	
	35세 이상	3.9(0.7)		3.7(0.4)		3.8(0.6)		
학력	고졸 이하	3.9(0.8)	1.692(998)	3.7(0.5)	1.551(479)	3.8(0.7)	2.665(998)**	
	대졸 이상	3.9(0.7)		3.8(0.5)		3.9(0.5)		
소득	상	4.0(0.7)	2.673(2)	3.8(0.4)	1.024(2)	4.0(0.5)	7.241(2)***	
	중	3.9(0.6)		3.8(0.5)		3.9(0.6)		
	하	3.8(0.8)		3.8(0.5)		3.8(0.6)		
지역규모	대도시	3.9(0.7)	0.521(2)	3.7(0.4)	2.661(2)	3.9(0.5)	2.220(2)	
	중소도시	3.9(0.7)		3.8(0.5)		3.9(0.6)		
	읍면	3.9(0.8)		3.8(0.6)		3.8(0.6)		
취업	부	유	2.200(625)*	3.8(0.5)	0.712(547)	3.7(0.6)	2.633(535)**	
		무		3.8(0.9)		3.6(0.3)		3.6(0.8)
	모	유(전)		4.0(0.6)		3.8(0.5)		3.9(0.5)
		유(시)		4.0(0.4)		3.8(0.4)		3.9(0.6)
		무		4.0(0.7)		3.8(0.5)		4.0(0.5)

* $p < .05$, ** $p < .01$, *** $p < .001$

생활지도 문항 중에서 부모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씬(4.1점),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함(4.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실행역량 문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 성장역량 문항에 비해서 점수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문항별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4개의 문항에 대해 부의 점수가 모에 비해 0.15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영역과 달리 생활지도 영역의 실행역량의 경우, 부모 간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식과 성장역량에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부모 간 역량 차이가 나 부에 비해 모의 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22〉 생활지도: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생활지도 문항	M(SD)			t
		부	모	전체	
인식	57. 아이의 생활지도에 있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음.	3.8(0.8)	4.0(0.7)	3.9(0.7)	2.783(998)**
실행	58.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질서 등)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지도함.	3.9(0.7)	4.0(0.7)	4.0(0.7)	4.023(998)***
	59.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씀.	4.0(0.7)	4.1(0.7)	4.1(0.7)	1.935(891)
	60. 아이가 울면 짜증부터 낸.	3.1(1.1)	3.0(1.1)	3.0(1.1)	1.392(911)
	61.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함.	4.0(0.7)	4.1(0.7)	4.1(0.7)	1.371(897)
성장	62.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아이의 상황 및 나의 양육태도를 먼저 점검함.	3.8(0.8)	3.9(0.7)	3.8(0.7)	2.268(998)*
	63.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나 이웃 등 주위에 조언을 구함(구할 것임).	3.8(0.8)	4.0(0.7)	3.9(0.7)	4.228(998)***

* p < .05, ** p < .01, *** p < .001

생활지도 영역 중 부모역량 측면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아이가 울면 짜증부터 낸과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었다. 특히 자녀가 울 때 짜증부터 낸다는 부모가 43%에 달하였다.

〈표 IV-2-23〉 생활지도: 문항별 응답률 현황

단위: %

생활지도 문항	전혀 그렇지않음	그렇지 않은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57. 아이의 생활지도에 있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음.	0.1	2.1	22.8	56.1	18.9
58.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질서 등)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지도함.	-	1.7	20.8	56	21.5
59.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씀.	0.1	1.6	14.1	57.6	26.6
60. 아이가 울면 짜증부터 낸.	9.6	24.9	27.5	30.5	7.5
61.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함.	0.1	0.9	16.3	59	23.7
62.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아이의 상황 및 나의 양육태도를 먼저 점검함.	0.2	5	21	58.3	15.5
63.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나 이웃 등 주위에 조언을 구함(구할 것임).	0.4	2.2	21	56.3	20.1

생활지도의 문항별로 부모의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별 차이 유무를 살펴보면, 지역규모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 따라 성장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연령이 낮고,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행동을 자가 점검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저연령 집단의 경우 적절한 생활지도 방식과 기본적인 예절지도에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모든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거나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아이의 상황 및 나의 양육태도를 먼저 점검한다는 문항에서 비취업모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는 문항에 대한 점수는 낮았다. 생활지도 영역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아이가 울면 짜증부터 낸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점수가 높아 감정을 관리하는 역량이 더 뛰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24〉 생활지도: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구분	생활지도 문항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크기	취업 유무
인식	57. 아이의 생활지도에 있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음.	2.645(998)**	1.692(998)	2.673(2)	0.521(2)	9.732(4)***
실행	58.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질서 등)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지도함.	1.739(998)	0.183(441)	0.828(2)	0.427(2)	6.810(4)***
	59.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씀.	2.238(179)*	1.301(442)	0.284(2)	0.211(2)	4.977(4)***
	60. 아이가 울면 짜증부터 냄.	1.814(191)	1.056(451)	5.589(2)**	7.113(2)***	23.972(4)***
	61.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함.	1.847(184)	0.837(439)	5.275(2)**	1.273(2)	3.966(4)**
성장	62.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아이의 상황 및 나의 양육태도를 먼저 점검함.	3.680(998)***	3.604(998)***	7.667(2)***	1.171(2)	31.959(4)***
	63.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나 이웃 등 주위에 조언을 구함(구할 것임).	1.972(190)	0.549(440)	2.195(2)	2.595(2)	2.809(4)*

주: 60번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사.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 영역을 살펴보면 인식, 실행역량은 부모보다 모,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장역량은 인식, 실행역량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경우에는 비취업부모나 시간제 취업모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 자녀 또래 부모와 교류, 기관에 참여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5〉 지역사회 연계: 부모역량 성격별 현황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3.5(0.9)	4961(998)***	3.6(0.7)	10227(998)***	3.6(1.0)	6903(665)***	
	모	3.8(0.8)		4.0(0.5)		4.1(0.7)		
연령	34세 이하	3.7(0.9)	1984(954)*	3.9(0.6)	3408(998)***	4.1(0.8)	3143(591)**	
	35세 이상	3.6(0.9)		3.8(0.6)		3.8(0.9)		
학력	고졸 이하	3.6(0.9)	0904(464)	3.8(0.7)	1777(998)	3.8(0.9)	2244(665)*	
	대졸 이상	3.7(0.9)		3.9(0.6)		4.0(0.8)		
소득	상	3.7(0.9)	8913(2)***	3.9(0.6)	8587(2)***	4.0(0.9)	2605(2)	
	중	3.8(0.8)		3.9(0.6)		3.9(0.8)		
	하	3.5(0.9)		3.7(0.6)		3.8(1.0)		
지역규모	대도시	3.7(0.8)	0789(2)	3.9(0.6)	1929(2)	4.1(0.7)	12688(2)***	
	중소도시	3.7(0.9)		3.9(0.6)		3.8(1.0)		
	읍면	3.6(0.9)		3.7(0.6)		3.5(1.0)		
취업	부	유	3471(625)***	3.6(0.7)	5555(625)***	3.6(1.1)	3732(548)***	
		무		3.4(0.7)		3.6(0.7)		3.8(1.1)
	모	유(전)		3.7(0.8)		4.0(0.5)		4.0(0.8)
		유(사)		4.0(0.5)		4.0(0.4)		4.0(0.8)
		무		3.8(0.8)		4.0(0.5)		4.2(0.7)

* $p < .05$, ** $p < .01$, *** $p < .001$

지역사회 연계 문항 중에서 부모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매번 꼼꼼하게 확인함으로 나타났다. <표 IV-2-25>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인식역량이 실행, 성장역량에 비해 비교적 점수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에 비해 부의 문항별 점수가 평균 0.3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선 영역에서의 문항 간 점수 차를 고려했을

때 비교적 큰 점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모든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측면 역시 인식, 실행, 성장역량에 대한 부모 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부에 비해 모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6〉 지역사회 연계: 부모역량 문항별 현황

		지역사회 연계 문항	M(SD)			t
			부	모	전체	
인식	공통	64. 지역사회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를 알고 있음.	3.5(0.9)	3.8(0.8)	3.7(0.9)	4.961(998)***
실행	공통	65. 지역사회에서 나와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인적 자원 등을 찾아 이용할 수 있음.	3.6(0.9)	3.8(0.8)	3.7(0.8)	4.277(998)***
		66. 아이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음.	3.6(0.8)	4.0(0.7)	3.8(0.8)	8.542(998)***
		67.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나 정보를 찾아봄.	3.7(0.8)	4.0(0.6)	3.9(0.7)	7.647(998)***
		68.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매번 꼼꼼하게 확인함.	3.7(0.9)	4.2(0.6)	4.0(0.8)	8.522(665)***
성장	공통	6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활동(엄마·아빠 참여 수업, 가족운동회, 음악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함.	3.6(1.0)	4.1(0.7)	3.9(0.9)	6.903(665)***

주: 68, 69번 문항은 해당되는 경우만 표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지역사회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를 알고 있음으로, 부와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응답률이 높았다. 대도시라고 하여 본 문항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낮은 것도 아니었다. 그 다음은 자신과 자녀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과 부모참여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사회 연계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아 부모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V-2-27〉 지역사회 연계: 문항별 응답률 현황

단위: %

지역사회 연계 문항	전혀 그렇지않음	그렇지 않은편임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64. 지역사회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를 알고 있음.	1.4	7.6	28.7	47.4	14.9
65. 지역사회에서 나와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아이 돌보미 서비스 등), 인적 자원 등을 찾아 이용할 수 있음.	1.2	6.0	25.5	53.3	14.0
66. 아이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음.	0.4	4.3	24.4	52.8	18.1
67.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나 정보를 찾아봄.	0.6	4.6	18.8	60.5	15.5
68.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매번 꼼꼼하게 확인함.	0.4	4.6	15.3	50.8	28.8
6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활동(엄마·아빠 참여 수업, 가족 운동회, 음악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함.	1.2	6.0	16.6	51.4	24.7

주: 68, 69번 문항은 해당되는 경우만 표시하였음.

부모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영역의 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은 부모집단일수록 육아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나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부모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사회 연계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과는 달리 취업부보다 비취업부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는 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매번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취업모의 점수가 높았다. 취업모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IV-2-28〉 지역사회 연계: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량 차이 검증

		지역사회 연계 문항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크기	취업 유무
인 식	공 통	64. 지역사회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영유아플라자, 보육 정보 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를 알고 있음.	2.605(186)**	0.904(464)	8.913(2)***	0.789(2)	15.682(4)***
실 행	공 통	65. 지역사회에서 나와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인적 자원 등을 찾아 이용할 수 있음.	1.524(998)	0.454(998)	7.767(2)***	2.129(2)	13.994(4)***
		66. 아이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음.	1.977(998)*	0.030(445)	2.849(2)	0.189(2)	11.395(4)***
		67.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나 정보를 찾아봄.	5.369(998)***	4.059(998)***	9.176(2)***	0.522(2)	16.40(4)***
		68.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매번 꼼꼼하게 확인함.	2.734(179)**	0.285(458)	4.537(2)*	5.777(2)**	7.932(4)***
성 장	공 통	6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활동(엄마·아빠 참여 수업 가족운동회, 음악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함.	2.901(177)**	0.229(443)	2.605(2)	12.688(2)***	10.393(4)***

* $p < .05$, ** $p < .01$, *** $p < .001$

3. 부모역량의 성격 및 영역 간 관계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든 영역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 영역에 대한 부모역량의 수준이 다른 영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부모역량이 하위 영역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영유아 발달 영역의 부모역량 수준이 높은 부모는 건강과 안전이나 가족관계 영역에서도 부모역량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한 영역에서 부모역량 수준이 제고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영역에서도 부모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부모역량의 하위 영역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발달과 생활지도 영역이 0.912 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 발달과 물리적·물질적 환경도 유사한 수준의 상관(0.908)을 보였다. 가장 낮은 상관관계(0.59)를 보이는 것은 건강과 안전

과 지역사회 연계였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는 다른 영역들 모두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다른 영역보다 지역사회 연계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던 것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전체 부모역량 점수와 각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발달이 0.728 수준에서 가장 높고, 건강과 안전 0.616, 생활지도 0.615, 가족관계 0.588, 물리적·물질적 환경 0.584, 놀이 0.549, 지역사회 연계 0.5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부모일수록 부모역량 전체 점수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3-1〉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 간의 상관관계

구분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 관계	물리물질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사회 연계	평균*
영유아 발달	1							
건강과 안전	0.849***	1						
가족관계	0.882***	0.740***	1					
물리적·물질적 환경	0.908***	0.715***	0.765***	1				
놀이	0.853***	0.666***	0.712***	0.752***	1			
생활지도	0.912***	0.74***	0.749***	0.776***	0.754***	1		
지역사회 연계	0.783***	0.59***	0.643***	0.667***	0.621***	0.717***	1	
평균*	0.728***	0.616***	0.588***	0.584***	0.549***	0.615***	0.518***	1

주: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과 각 영역 간의 관계를 나타냄.

*** $p < .001$

다음 <표 IV-3-2>는 부모역량의 세 가지 성격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인식, 실행, 성장역량 간에도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상관이 높은 부분은 인식과 성장으로 0.991 수준에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식역량이 높은 부모가 보다 성장하기 위한 의지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식과 실행역량 간의 상관은 0.892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높은 상관이기는 하나 성장역량에 비해서는 상호 간 괴리가 큼을 알 수 있다.

전체 부모역량 점수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식역량이 0.904로 가장 높고 실행역량이 0.73으로 가장 낮았다. 인식역량은 주로 양육지식에 관한 인식 여부에 관한 내용인데 이러한 지식이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점수와 실행영역 간의 상관성이 가장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인 0.730 수준에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3-2〉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성격 간의 상관관계

구분	인식	실행	성장	평균*
인식	1			
실행	0.892***	1		
성장	0.991***	0.842***	1	
평균*	0.904***	0.730***	0.880***	1

주: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과 각 영역 간의 관계를 나타냄.

*** $p < .001$

앞서 살펴본 부모역량의 내용별 영역 간의 상관이나 부모역량의 성격별 상관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모역량 내용이나 성격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상호 간 관련성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역량이 제고되어야 할 경우 부모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영역이나 성격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4. 소결

영역별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 발달과 건강과 안전에 해당하는 점수가 4.1점으로 가장 높고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가 3.8점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유아와의 면담 시 유아의 경험 중 행복에 가장 반하는 것이 신체적 체벌이나 훈육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생활지도의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35세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34세 이하 집단의 부모역량이 같은 점수를 보이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영유아 발달, 가족관계, 놀이,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였다. 가

구소득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구분한 결과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대개 가구소득 순으로 부모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가계소득이 상과 중인 집단보다 중과 하인 집단 사이에 더 컸으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점수가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가구소득과 반대로 역량이 나타난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전무하여 가구소득별 역량의 차이가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모학력 측면에서는 영역별로 거의 비슷하나 영유아 발달과 생활지도 측면의 부모역량 점수가 대졸 이상에서 더 높았는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취업유무별로는 비취업의 경우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비취업모의 높은 점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취업유무를 비교하기보다는 취업여부 및 형태에 따른 부모의 구체적 역량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모역량의 성격별로 살펴보면 건강과 안전과 지역사회 연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인식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는 실행역량,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성장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발달, 가족관계, 물리적·물질적 환경, 놀이,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인식, 실행, 성장 간에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과 안전, 생활지도에서는 인식과 실행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역량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장역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V.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1. 기본 방향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부모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와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 영유아의 행복 및 참여 강조

부모역량의 제고는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는 주제이지만 부모교육이나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내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기존 문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부모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여전히 학습 관련이 많으며, 부모교육을 학습을 위한 도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를 미래인적자원으로서만 접근하는 패러다임을 벗어나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은 매우 중요하며 부모교육의 내용이나 절차 측면에서 영유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부모의 반성적 사고 및 자발적 의지 강화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의 최종 목적은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부모역량을 진단하고 보다 역량 있는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부모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첫 걸음은 자신의 부모역량을 인식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건강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부모로서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또한 진정한 부모역량은 타인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역량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스스로 부모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은 사회에서 개별 부모에게 전해주는 내용의 전달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강의식 부모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하는 체험 활동이나 유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워크숍 형태 등의 방법을 통해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반성적 사고와 자발적 의지를 높인다.

다. 부모역량으로 실행 및 성장역량 강화

부모역량을 성격별로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실행 및 성장역량에 비해 인식역량 점수가 높았다. 세 가지 역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면 전반적으로 세 역량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인식과 실행역량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식역량에 비해 실행이나 성장역량이 부족하며 지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지식도 고려해야 하지만 실행 및 성장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라. 아버지의 참여 강조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와 모의 양육이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나며 심지어 문항별로도 대부분 문항에서도 차이가 있어 부모 간 역량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쪽이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영역에 걸친 인식역량 자체가 낮고,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놀이하는 실제와 관련해서도 아버지의 부모역량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육아에 대한 아버지 참여를 높이고 부모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버지의 개인적 차원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동구조에 대한 재고 및 일·가정 양립 방안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 부모 상황을 고려한 부모교육 필요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별, 부모연령별, 부모학력별, 부모가구소득별, 취업유무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육을 위한 요구 부분이다를 수 있음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변인별 차이를 보다 민감하고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취업유무의 경우, 취업 상태가 동일

하지만 취업모와 취업부의 상황이 틀리고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서 특별히 더 성장이 요구되는 역량이 있고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의 맥락에 따라 부모가 실제로 더 필요로 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 부모교육 접근성에 대한 제고

부모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이다. 영유아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전국적 분포 현황을 보더라도 대도시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 여전히 읍면지역 등에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취약계층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부모들도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대상이 나누어지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 간의 벽을 허물어 최대한 많은 부모가 부모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교육 대상자를 자녀가 있는 부모로 제한하지 말고 대학생, 아동복지기관의 교사, 군인 등으로 확대하여 부모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화하여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아.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 전반적으로 유아의 행복, 나아가 개인 삶의 질이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포함한다. 먼저 부모교육은 한 가정의 부모 개인과 자녀를 위함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 또는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한 성인 세대의 의무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행복은 성인에 비해 어리다는 이유로 행복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국제지표나 국제행복종합지수와 같은 지수는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나 이들의 관점에 근거한 영유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를 위해 부모교육 및 영유아 행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2.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먼저 단기 정책 방안과 중기 정책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그림 V-2-1]과 같다.

단기 정책 방안	중기 정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체크리스트 배포 및 활용 ▪ 영유아 행복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개발 ▪ 부모교육 대상자의 확대 ▪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의 질 제고 : 감사공개모집, 평가체제 구축 ▪ 부모교육의 접근성 제고 : 다양한 종류의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접근 모색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 및 구조 변화 ▪ 부모의 행복을 지원하는 사회적 구조로의 변화

[그림 V-2-1]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단기·중기 정책 방안

가. 단기 정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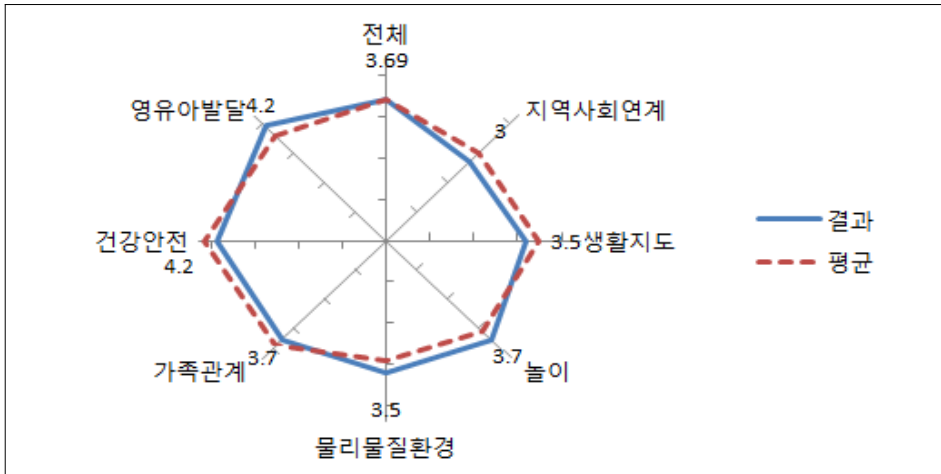
단기 정책 방안에는 본 연구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Self-체크리스트 배포 및 활용,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 대상자를 확대한 부모교육 실시, 다양한 종류의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가 포함된다.

1) Self-체크리스트 배포 및 활용

가) 온라인 웹사이트에 탑재

유아교육·보육 관련 기관 온라인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탑재한다. 탑재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각 영역마다 해당하는 문항에 부모가 스스로 체크를 하면 가장 마지막에는 아래 [그림 V-2-2]와 같은 모양으로 자신의 부모역량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부모역량을 확인하고 나면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이 어느 부분인지 프로그램 상 알 수 있도록 하며 부족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안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부모역량을 확인하지만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로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그림 V-2-2]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결과 예시

나) 지역사회 기관에 배포

지역사회에 있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이러한 기관에는 영유아 부모교육을 직접 다루는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도 포함되겠지만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소아과, 산부인과, 지역주민센터, 은행 등을 활용하여 특히 대기 시간에 부모가 자신의 역량을 체크해보고 부모로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다) 부모교육 담당 기관에 배포 및 활용 제안

부모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Self-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부모교육 강좌에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진단할 수 있으며 진단이 완료된 뒤에는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부모 간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라)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함께 배부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함께 배부하여 부모가 집에서 스스로 자신의 부모역량을 진단해본다. 건강검진이 영유아 발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건강검진표와 함께 배부되면 자신의 부모역량을 영유아 발달을 고려하여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영유아 행복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내용 제안

가) Self-체크리스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부모교육 내용 제안

Self-체크리스트 조사에서 역량 제고가 필요한 부분을 부모교육 기관에 부모교육 내용으로 제안한다.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 부모에게 익숙한 유아 발달이나 건강과 안전과 같은 영역의 점수는 높은 편이나 생활지도나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유아 면담 부분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훈육 방법이나 부모의 감정 관리나 절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부모교육 내용을 제안한다.

〈표 V-2-1〉 영역별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내용 제안

영역	부모역량 제고가 필요한 내용
영유아 발달	-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매체를 이용
건강과 안전	-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방법 알기 - 영아의 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 등을 고려하여 양육하기 - 아이가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도록 지도하기 등 치아 관리하기
가족관계	- 아이의 말에 성의 있게 대답하기 - 유아의 행동을 간섭하지 않기
물리적·물질적 환경	- 아이의 장난감을 계획하고 사주기 - 일정시간만 스마트폰 및 컴퓨터, TV를 사용하도록 조절하기
놀이	- 시간이 없어도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 두기
생활지도	- 아이가 울음이나 화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칭찬하기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에 대한 정보 알기

나) 영유아 행복을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 내용·방법 제안

조사결과 외에도 영유아 행복을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한

다면 생활지도나 놀이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는 유아 면담 결과 유아는 신체적 체벌이나 부정적 정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또래와의 놀이를 중요시여기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3) 부모교육 대상자의 확대

가) 영유아 대상 의무적 부모교육 제안

부모교육을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요즘 영유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교육비·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교육과 국가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후 확인을 받도록 하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부모를 위해서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 관련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집에서나 공공기관에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나) 지역사회 기관의 부모교육 대상자 확대

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면 영유아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포함시키며 기관이 속한 부처의 성격에 따라 부모교육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지역사회 기관끼리 연계하는 경우에도 참여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부모교육 관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부모의 범위 확대

부모교육은 부모 대상 교육으로 볼 수 있지만 중·고등학생, 예비부모나 탁아시설의 교사 등 부모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모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할 경우에는 양육지식이나 방법보다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나 부모 영향력에 대한 일상적 에피소드를 통한 접근 방법을 취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아버지의 부모역량이 어머니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은 상황에서 고등학교나 군복무, 민방위와 같은 기회에 짧은 시간이라도 부모교육을 접하기를 제안한다. 부모의 범위를 확대한 부모교육의 내용과 주관 부처가 아래 <표 V-2-2>에 제시되어 있다.

〈표 V-2-2〉 부모교육 대상별 방법 및 주요 부처

대상	내용	주요 부처
중고등학생	- 교과목 내용으로 부모 역할의 중요성 인식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대학생	- 강좌 내용으로 부모 됨이나 부모의 역할, 행복한 자아, 행복한 부부관계 형성에 대한 논의	
성인남녀	- 군대나 예비군, 민방위 교육에 30분 강좌 제공	교육부 국방부
	-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부모교육 자료 배치나 영상자료 제공	교육부 보건복지부
	- 대중교통기관에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나 육아 방법 탑재	교육부 건설교통부
	-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 부모교육 자료 배치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대중매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부모교육 자료 공유	여성가족부
취업부모	- 직장에서의 찾아가는 부모교육	교육부 고용노동부
아동복지센터 관계자	- 아동복지센터 교사 등에게 부모교육의 기회 제공	교육부 보건복지부
조부모	- 조부모 대상 부모교육 제공	교육부 보건복지부

4)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 직장 기반 찾아가는 부모교육의 활성화

취업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점심시간이나 퇴근 직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부모교육(예: 도시락 들고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과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부모교육의 효과가 단순히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이나 소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의 경우, 예산이 다른 일반강좌에 비해서 소요될 수 있어 부모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나) 미디어 활용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부모교육 관련 강의나 양육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가정 외에서 부모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현재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으나 방영 시간이 오전 시간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제안한다.

나. 중기 정책 방안

중기 정책 방안으로 부모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 내용과 부모교육을 위한 예산지원, 평생교육으로서의 부모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

현재 부모교육은 대개 지역기관을 통한 소정의 참여비를 부담하거나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부모교육 서비스를 다양한 계층에까지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 진행 등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한 학점을 연동하고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부모역량 강화는 부모 개인 차원의 임무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부모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나 필요한 부모를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 도입, 자녀가 있는 부모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활성화 등 행복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영유아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가 경제적 이익이나 효율성에만 기반을 두지 않고 개인의 행복이 사회적 성장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음을 사회에서 인식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내실화

가) 부모교육 강사 질 관리

부모교육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해 강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강사풀에 등록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강사로 등록된 후에도 연수나 상호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강의의 질을 높이고 강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결과를 강사 배정에 반영한다. 부모교육 강사를 지역 대표기관에서 선정하고 연수를 거치게 되면 지역사회 다른 기관에서 섭외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공유한다.

나) 프로그램 및 교재 공유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끼리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공유하고 중앙부처나 시도교육청 등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개발하여 질 높은 수준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평생교육으로서의 부모교육 확립

가) 평생교육으로서의 부모교육 홍보

평생교육의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바라보고 부모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부모가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함을 공공광고 등을 통해 알린다. 부모역량이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에게서 떨어진다는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부모로서의 역할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부모역량의 가변성을 강조하여 부모교육이 평생교육 내용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나) 평생교육원 학점제와 연동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평생교육원 학점제와 부모교육 참여를 연결하여 부모교육에 참여할 때마다 해당시간이나 학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부모가 여러 번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교육이 자녀의 생애주기(기관 이용이나 초등학교 입학 등)에 따라 필요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거나 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 개인의 경력에 도움을 주는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은 영유아 건강과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로 볼 수 있다. 부모역량이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영유아의 행복에 초점에 두면서 보다 많은 부모가 자신의 부모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기정(2009). 다문화가족 모의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코칭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111-125.
- 강기정·정은미(2008). 여성가장의 부모역할 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연구, 5(1), 117-133.
- 강영욱(2009). 유아의 행복감과 행복개념에 대한 인식. 한영신학대학교 한영논총, 13, 451-477.
- 강혜원·박지연(2011).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1-25.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에서 2013. 9. 30 인출함.
- 교육부(2013). 행복한 자녀교육 길라잡이.
- 국립국어원(2013).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에서 2013. 4. 29 인출.
- 권기남·성미영(2010). 유아의 행복감이 행동문제 및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257-270.
- 권미경(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김도란·김정원(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연화·강문희(2008).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외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35-54.
- 김영주·송연숙(2007). 1세-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지식과 양육 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 김일부(2011). 아동의 행복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아동연구, 24(1), 23-42. 숙명여자대학교.

- 김혜라·김진경(2012). 아동의 발달 특성과 정서성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53-67.
- 김현주·김은영·황인주·이승미(2008).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활동집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육아지원연구, 3(2), 177-192.
- 동아닷컴(2013. 5. 28). 한국 어린이, 행복지수는 8개국 중 7위 그쳐.
http://news.donga.com/Issue/Top_03010000000006에서 발췌함(6. 22).
- 동아닷컴(2013. 5. 28). 스마트 폰 가진 어린이, 행복 지수는 8개국 중 7위 그쳐.
<http://news.donga.com/3/all/20130528/55455470/1>에서 발췌함(6. 22).
- 박재국·서보순·김혜리(2011).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핵심역량 요인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1). 61-85.
- 박현숙·구현영(2010).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9(4), 411-419.
- 박현철·김성봉·홍달아기(2011).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167-193.
- 박희진·문혁준(2012).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2), 121-137.
- 보건복지부(2006). 2006 한국의 주요아동지표.
- 송미혜·송연숙·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유니세프(2007). 경제 선진국의 아동복지. 육아정책개발센터(역).
- 윤경희·이숙(2010).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우울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1, 5-26.
- 이경하·서소정(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87-102.
- 이명숙(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안. 한국

가족복지학, 16(3), 209-224.

이봉주·유민상(2013). 아동의 삶의 질 국제 비교연구: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서울.

이송은·박성연(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 인식과 그에 따른 양육행동. 인간발달연구, 19(2), 131-149.

이옥(2012). 아동중심의 아동지표 연구. 아동과 권리, 16(1), 1-25.

이은경(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이인학·박지은·최성열(2010).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19(4), 81-91.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2009). 다문화가족 역량 개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 지원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이주옥(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61.

이화자·이승아·김명희·김영혜·박남희(2004). 신생아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자신감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0(3), 262-271.

임미지·문혁준(2011). 아동이 지각한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18(2), 255-275.

유아교육진흥원. <http://www.seoul-i.go.kr/main/main.asp>에서 2013. 9. 21 인출함.

학부모 ON누리(전국학부모지원센터). <https://www.parents.go.kr>에서 2013. 9. 21 인출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에서 2013. 9. 13 인출함.

전미경·장재숙(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정계숙·김정혜·김미정(2003).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9(-), 117-140.

정계숙·최은아·강인설(2008). 아동의 행복 상황 판단에 대한 조사 연구: 문화적 특수성 접근. 아동학회지, 29(6), 207-223.

- 정대현·신원애(2012). 부모코칭역량의 구성요인 탐색 및 검사도구 개발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1), 181-208.
- 정현정·문혁준(2011).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21-42.
- 조경서·남기원(2011).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4), 161-178.
- 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30(2), 129-144.
- 중앙보육정보센터(2011). 2010년 전국보육정보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최애경(2012).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경험한 장애유아 부모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19(3), 263-281.
- 황연덕·이진숙(2012).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역할. 아동학회지, 33(1), 223-236.
- 홍승애(201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zar, S. T., Lauretti A. F. & Loding B. V.(1998). The Evaluation of Parental Fitness in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Cases: A Functional-contextual Perspectiv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2), 77-100.
- Azar, S. T. & Cote, L. R.(2002). Sociocultural Issues in the Evaluation of the Needs of Children in Custody Decision Making: What do our Current Framework For Evaluation Parenting Practices Have to Offer?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5, 193-217.
- Bjarnason, T., Bendtsen, P., Arnarsson, A. M., Borup, I., Lannotti, R. J., Löfstedt, P., Haapasalo, I. & Niclasen, B.(2012).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in Different Family Structure: A Comparative Study of 36 Western Societies. *Children & Society*, 26, 51-62.
- Commonwealth of Australia(2004). *Parenting Information Project*. Volume 2: Literature review.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 Conley, C.(2003). A review of parenting capacity assessment reports. *OACAS Journal*. 47(3), 16-22.
- Crouter, A. & McHale, S.(2005). In the book of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The long arm of the job revisited: Parenting in dual earner families. Routledge.
- Csikszentmihalyi, Mihaly(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 Diener, E.(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Headey, B., Muffels, R. & Wagner, G. G.(2012). Parents Transmit Happiness along with Associated Values and Behaviors to Their Children: A Lifelong happiness Dividend? *IZA Discussion Paper*, No. 6944, 1-37.
- Holder, M. D. & Coleman, B.(2007).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lationship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3), 329-349.
- Huebner, E. S.(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33.
- Jeong, M.(2012).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9(2), 21-33.
- Miller, I. W., Ryan. C. E., Keitner, G. I., Bishop, D. S. & Epstein, N. B(2000). The McMaster approach to Families: theory, assessment, treatment and research.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168-189.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 Parke, R. D., Dennis, J., Flyr, M., Morris, K., Leidy, M. & Schofield, T.(2005). In the book of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Fathers: Cultural and Ecological Perspectives. Routledge.
- Proctor, C. L., Linley, P. A., Maltby, J.(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 Reder, P., Duncan, S., & Lucey, C.(2003). *Studies In The Assessment of Parenting*.
- Reder, P. & Lucey, C.(Eds).(1995). *Assessment of Parenting- Psychiatric and*

- Psychological Contributions*. London: Routledge.
- Rees, G., Bradshaw, J. & Goswami, H.(2010). *Developing an index of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England*. London. The Children's Society.
- Sillick, T. J. & Schutte, N. S.(2006).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Mediate Between Perceived Early Parental Love and Adult Happiness. *E-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Emotional Intelligence*, 2(2), 38-48.
- Seligman, Martin, E. D.(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Terry, T. & Huebner, E. S.(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35(1), 39-52.
- Turnbull, A. P., & Turnbull, III, H. R.(1997).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A special partnership(3rd ed.)*. CB: OH Merrill.
- Uusitalo-Malmivaara, L.(2012). Global and school related happiness in Finnish childre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4), 601-619.
- White, A.(2005). *Literature review of parent capacity*. Centre for Parenting and Research.
- Wolper, R.(2002). Assessing parenting capacity guideline. *OASIS Journal*. 46(1), 17-22.
- Rees, G., Goswami, H. and Pople, The Children's Society, L. Bradshaw, J., Keung, A. & Main, G.(2012).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2: A review of our children's well-being*. The children's Society.

Abstract

Improving Parental Capacity for Children's Happiness

Hyejin Jang Jeongrim Lee Eunju Yun Haein Kim

This study is intended to improve parental capacity from the viewpoint of children's happiness. It extracts a core parental capacity for children's happiness from the international index such as OECD well-being, UNICEF Children's welfare,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and Korean children's key index. Based on the extracted core parental capacity, this study developed self-checklist aiming to perceive parents' capacity status and suggest political plan in order to improve parents' capacity for children's happiness.

To develop the self-checklist, literature review, interviewing 13 parents of children, 7 teachers in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s, and 4 classes of children were carried out. Also, 48 professionals who are majored in related sciences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 care, counseling, social work) were participated in the opinion polling to select appropriate questions for the self-checklist. Lastly, by using the checklist, survey focusing on 1,000 parents (420 fathers, 580 mothers) is performed to identify parental capacity status in terms of supporting children's happiness.

The self-checklist has total 68 questions and is composed of 7 domains; Child development, Health and Safety, Family relation, Physical and material environment, Play, Guidance in life, Community engagement.

The results from the survey are as follows: Trying to report the general status, the domains of Development of children as well as Health & Safety are reported as the highest value at 4.1 point, on the contrary, those of Guidance in life and Community engagement are reported as the lowest value at 3.8 point. In terms of age, it was reported that below 35 years parents' capacity was better than that of over 35 years parent. In case as to family income, it was revealed that the order of parents' capacity depends

on the family income generally.

Alternative political plans are as in the following, which are drawn from the result of the survey on parental capacity for children's happiness.

1. Distributing the Self-checklist for assessing parental capacity for children's happiness.
2. Extending target group for parental education.
3. Considering children's happiness and voices for the parental education.
4. Improving parental education quality by establishing public recruit of lecturers and examination system.
5. Supporting parents by taking balance between work and house chore.
6. Regarding parents education as a branch of lifelong-educations.
7. Moving toward a society which supports an individual' happiness.

부 록

부록 1.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문항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부록 2.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조사지 (영아부모용)

부록 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조사지 (유아부모용)

<부록 1>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문항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연구소 기본과제 중 하나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에 앞서 부모역량 관련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영

문의처: 연구책임자 장혜진 02-398-7741 (hjang@kicce.re.kr)

공동연구진 이정립 02-398-7713 (leettu@kicce.re.kr)

공동연구진 윤은주 02-2077-7555 (eunjuyun@smac.kr)

인턴 김해인 02-398-7742 (khi2@kicce.re.kr)

※ 응답해주시는 분의 전공 분야를 알려주십시오.

① 아동학

② 유아교육

③ 사회복지

④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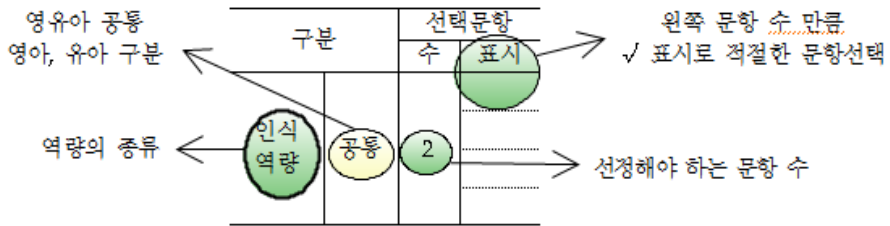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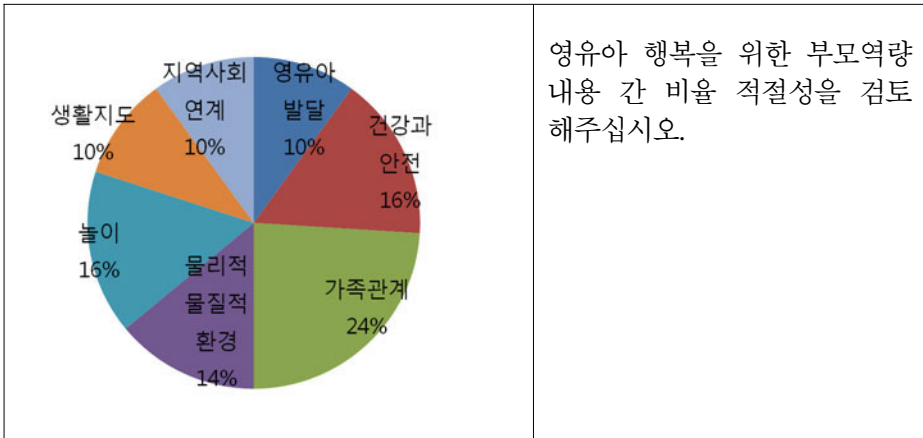
⑤ 기타 ()

※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개발 의도

- ① 기존 부모 중심의 부모역량 개념에서 탈피하여 영유아의 관점에서 영유아 행복구현에 필요한 부모역량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② 이런 개발의도에 따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나 영유아 부모,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특히 유아(만 4, 5세)와의 직·간접적 면담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체크리스트 문항이 개발됨.

1. 부모역량 범주에 대한 검토

- ① 색깔별로 구성된 부모역량 범주는 영유아 행복 관련 국제지표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음
- ② 선행연구와 면담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건강과 안전, 놀이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음.



※ 범주별 최종문항 수(예정)

역량 \ 내용	영유아 발달	건강과 안전	가족 관계	물리적 물질적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 사회	계
인식역량	2	2	3	2	3	1	2	15
실행역량	5	8	10	6	6(7)	4	4	43
성장역량	1	1	3	1	1	2	1	10
계	8	11	16	9	10(11)	7	7	68

* 놀이 범주 괄호 안 숫자는 유아 대상 문항수임

- 범주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인식, 실행, 성장역량의 비율을 1:3:1로 구성하여 최종 문항을 구성할 예정임.
- 각 범주별 문항 및 범주에 관한 의견을 기술해 주실 경우, 빈 칸을 이용하실 수 있음.

2. 위 설명을 참고하여 문항수에 따라 적절한 문항에 √ 표 해주십시오. 가. 영유아 발달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인식 역량	공 통	2	1. 나는 '애착'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2. 나는 아이가 또래에 비해 발달이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3. 나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모습을 알고 있다.
			4. 나는 아이의 균형적 발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실행 역량	공 통	5	5. 나는 발달단계와 연령을 고려하여 아이의 행동을 이해한다.
			6. 나는 아이가 발달지연 및 장애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7. 나는 아이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8. 나는 아이가 또래와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9. 나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준다.
			10. 나는 아이에게 자주 동요를 들려주고, 불러준다.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11. 나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흥미 있어 하는 놀잇감이나 사물, 자연물 등을 제공한다.
			12. 나는 아이의 언어발달단계에 맞춰 풍부한 언어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13. 나는 여러 가지 활동(숟가락 사용, 블록 쌓기, 공놀이 등)을 통해 아이의 대·소근육 발달을 돕는다.
			14. 나는 아이의 수면 스케줄을 알고 그에 맞추어 잠을 재운다(재웠다).
성장 역량	공 통	1	15. 나는 아이의 발달에 맞추어 양육 관련 서적을 참고한다.
			16. 나는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17. 나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 신생아 양육 및 발달에 대해 알아보았다.

※ <영유아 발달> 범주와 문항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어주십시오.

나. 건강과 안전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인식 역량	공 통	2	1. 나는 아이의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2. 나는 집 근처에 아이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알고 있다.
			3. 나는 아이가 열이나 설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4. 나는 아이의 건강상 특이사항 유무 및 내용을 알고 있다.
실행 역량	공 통	6	5. 나는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인공호흡, 하임리히법 등)을 할 수 있다.
			6. 나는 가정에 아이를 위한 몇 가지 비상약을 항상 구비해두고 있다.
			7. 나는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을 미리 인식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
			8. 나는 시기에 맞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맞힌다.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성장 역량	영아	2	9. 나는 가정 내 안전사고 (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을 위해 위험행동을 아이에게 알리고 지도한다.
			10. 나는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11. 나는 아이가 편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한다.
			12. 나는 아이와 함께 다양한 신체활동을 같이 해보는 것을 즐긴다.
			13. 나는 아이가 운동 및 여러 신체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한다.
			14. 나는 아이의 마음 건강을 체크한다.
			15. 나는 아이가 사용하는 놀잇감을 정기적으로 소독·세척한다.
	유아	2	16. 나는 아이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둔다.
			17. 나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가구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신경을 쓴다.
			18. 나는 영아의 들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 등을 고려하여 양육한다(양육하였다).
			19. 나는 이유식에 조심해야 할 재료를 알고 이유식을 만든다(만들었다).
	유아	2	20. 나는 아이의 수면 스케줄을 알고 그에 맞추어 잠을 재운다(재웠다).
			21. 나는 아이에게 성폭행, 유괴 등의 위험상황을 인지시키고 그 대처법에 대해 지도한다.
			22. 나는 6개월마다 치과에 가서 아이의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23. 나는 아이가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도록 지도한다.
공통	1	24. 나는 교통사고의 위험상황을 인지시키고 지도한다.	
		25. 나는 아이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공부한다.	
			26. 나는 아이에게 골고루 먹이기 위해서 여러 요리 방법을 시도한다.

※ <건강과 안전> 범주와 문항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어주십시오.

다. 가족관계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인식 역량	공통	3	1. 나의 행복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2. 나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럴 수 있다. 3. 나는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4. 나는 아이의 타고난 성격 특성을 잘 안다. 5. 나는 내 양육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실행 역량	공통	10	6. 나는 음주와 폭력 관련으로 아이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7. 나는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아이와 함께 식사한다. 8. 나는 아이 앞에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9. 나는 아이에게 긍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10. 나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표현한다. 11. 나는 아이를 나무랄 때 큰 소리를 치거나 짜증을 낸다. 12. 나는 아이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지적하게 된다. 13. 나는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은 참는다. 14. 나는 항상 아이를 일관적으로 대한다. 15. 나는 아이의 말에 성의 있게 대답해준다. 16. 나는 아이를 부드럽게 대한다. 17. 나는 아이를 형제자매 및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18. 나는 항상 아이의 기질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19. 나는 훈육에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 나는 가족과 함께 집 밖에서 최소 1주일에 1번 시간을 보낸다(놀이터, 동물원, 여행, 키즈카페 등).
성장 역량	공통	3	21.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없다. 22.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23. 나는 아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24. 나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다.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25. 나는 나의 양육관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자주 숙고해보는 편이다.
			26.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27. 나는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족관계> 범주와 문항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어주십시오.

라. 물리적·물질적 환경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인식 역량	공통	2	1. 나는 아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나는 아이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
			3. 나는 아이에게 못해준 것이 많아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다.
			4. 나는 아이의 물질적 욕구(물건 사기 등)에 대한 과도한 허용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실행 역량	공통	4	5. 나는 집을 정리정돈하거나 깨끗하게 한다.
			6. 나는 집안이 지나치게 소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7. 나는 TV를 계속 틀어두는 경향이 있다.
			8. 나는 아이가 일정시간만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조절한다.
			9. 나는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계획하고 사주는 편이다.
			10. 나는 나의 만족 혹은 과시를 위해 아이의 걸모습을 치장한다.
	11.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에게 꼭 필요한 상품(예방접종, 놀잇감 등)을 구입하지 못한 적이 있다.		
영아	2	12. 나는 아이가 오감을 활용하여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잇감(딸랑이, 형질 인형, 오뎅이, 모빌 등)을 구비하고 있다.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유아	2	13.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기저귀, 이유식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쓴다.
			14. 나는 아이에게 다양한 재질로 된 놀잇감을 제공하고 있다.
			15. 나는 아이가 가정에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풀, 색연필, 가위 등)을 구비하고 있다.
			16. 나는 색, 모양, 크기를 배울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한다.
	공통	1	17. 나는 아이의 요구나 흥미를 고려하여 사교육을 선택한다.
			18. 나는 다른 부모나 또래와의 경쟁심 때문에 사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
			19. 나는 아이가 자람에 따라 가정 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
			20. 나는 아이에게 적절한 놀잇감을 찾기 위해 주위에 물어보거나 자료를 찾는다.

※ <물리적·물질적 환경> 범주와 문항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어 주십시오.

마. 놀이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인식역량	공통	3	1. 나는 아이와 함께 놀면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2. 나는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3. 나는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4. 나는 놀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5. 나는 놀이가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고 있다.
			6.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놀잇감과 놀이를 알고 있다.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실행 역량	공 통	6	7. 나는 아이가 함께 놀고자 할 경우, 놀이를 함께 한다.
			8. 나는 아이와의 다양한 놀이(소꿉놀이, 퍼즐 등)에 참여한다.
			9. 나는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놀잇감을 찾아준다.
			10. 나는 아이의 놀잇감을 살 때, 재질, 크기, 유독성 등의 유무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편이다.
			11. 나는 아이가 다양한 유형의 놀잇감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12. 나는 아이가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한다.
			13. 나는 휴일에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
			14. 나는 아이와 즐겨하는 게임이나 활동이 몇 가지 있다.
			15. 나는 아이와 하는 놀이에 참여하며 함께 하는 것을 즐긴다.
			16. 나는 아이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편이다.
17. 나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이의 놀이에 참여한다.			
영 아	1	18. 나는 아이와 까꿍이나 잼잼 등 소리 내어 놀면서 상호작용한다.	
		19. 나는 아이가 오감을 활용하여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잇감(딸랑이, 형겔 인형, 오뎅이, 모빌 등)으로 놀아준다.	
유 아	2	20. 나는 최소한 1주일에 1번은 아이와 함께 바깥놀이를 한다.	
		21. 나는 놀이를 통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22. 나는 집 밖에서 아이와 놀이를 주기적으로 함께 한다.	
성장 역량	공 통	1	23. 나는 아이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찾는 등 실제로 노력을 한다.
			24. 나는 시간이 없어도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 <놀이> 범주와 문항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어주십시오.

바. 생활지도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인식 역량	공 통	1	1. 나는 아이의 생활지도에 있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다. 2. 나는 아이의 부정적 행동(화, 짜증, 울음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르겠다. 3. 나는 나의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다.
실행 역량	공 통	4	4. 나는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질서 등)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지도를 한다. 5. 나는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쓴다. 6. 나는 아이가 울면 짜증부터 나는 경우가 많다. 7. 나는 아이가 울거나 짜증낼 때 그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8. 나는 아이가 분노하거나 짜증낼 때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말로 표현해준다. 9. 나는 아이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10. 나는 훈육 시 신체적 처벌을 하는 편이다. 11. 나는 아이가 잘못할 경우,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 12. 나는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13. 나는 아이의 훈육 방법에 대해 배우자나 다른 양육자와 상의한다. 14. 나의 훈육방식이 종종 아이의 감정을 다치게 한다. 15. 나는 아이를 훈육한 뒤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성장 역량	공 통	2	16. 나는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아이의 상황 및 나의 양육태도를 먼저 점검한다. 17. 나는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나 이웃 등 주위에 조언을 구한다(구할 것이다). 18. 나는 아이의 행동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서비스(상담, 놀이치료 등)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

※ <생활지도> 범주와 문항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어주십시오.

사. 지역사회 연계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인식 역량	공통	2		1. 나는 현 육아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
				2. 나는 지역사회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를 알고 있다.
				3. 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참여(상담, 부자캠프)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됨을 알고 있다.
실행 역량	공통	2		4. 나는 지역사회에서 나와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인적 자원 등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
				5. 나는 아이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
				6. 나는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나 정보를 찾아본다.
				7. 나는 아이와 함께 지역기관(도서관 등)을 최소한 2달에 1번은 이용한다.
	공통	2		8. 나는 아이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와 소통하고 있다.
				9. 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매번 꼼꼼하게 확인한다.
				10. 나는 유치원·어린이집 준비물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긴다.
			11. 나는 집 주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성장 역량	공통	1		12. 나는 정부의 육아·보육지원정책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찾아본다.
				13. 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활동(엄마·아빠 참여수업, 가족운동회, 음악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 <지역사회 연계> 범주와 문항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어주십시오.

<부록2> 영유아 행복을 위한 Self-체크리스트(영아부모용)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100, 팩스 02-3702-2121,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갤럽패널홈 panel.gallup.co.kr

Gallup 2013-162-01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조사(영아부모용)

--	--	--	--	--	--

	-	1
--	---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조사 내용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응답과 함께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분석결과 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 ▣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 지역규모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 성 별 : 1. 남성 2. 여성

▣ 연 령 : 만 _____ 세

SQ 1) 귀하는 만 0~2세의 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만 _____ 세)
□ 2. 없다 → 조사종료

안
내
면

조손가족인 경우 만 0~2세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함.
만 0~2세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연령은 막내아동 기준으로 응답함.

SQ 2) 귀하의 만 0~2세 자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SQ 3) 귀하의 만 0~2세 자녀의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1. 엄마
2. 아빠
3. 친조부모
4. 외조부모
5. 기타 친인척
6. 비혈연 인력
7. 기타(적을 것 : ____)

I. 자녀 돌봄

문 1) 귀하는 귀하 자녀(영아)를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아래 각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애착(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유대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모습을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발달단계와 연령을 고려하여 아이의 행동을 이해한다.	1	2	3	4	5
4. 나는 아이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1	2	3	4	5
5. 나는 아이가 또래와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흥미 있어 하는 놀잇감이나 사물, 자연물 등을 제공한다.	1	2	3	4	5
7. 나는 여러 가지 활동(손가락 사용, 블록 쌓기, 공놀이 등)을 통해 아이의 대·소근육 발달을 돕는다.	1	2	3	4	5
8. 나는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1	2	3	4	5
9. 나는 아이의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아이의 건강상 특이사항 유무 및 내용을 알고 있다.	1	2	3	4	5
11. 나는 가정에 아이를 위한 몇 가지 비상약을 항상 구비해두고 있다.	1	2	3	4	5
12. 나는 시기에 맞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한다.	1	2	3	4	5
13. 나는 가정 내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을 위해 위험행동을 아이에게 알리고 지도한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1	2	3	4	5
15. 나는 아이의 기분(마음 건강)을 살피며 확인한다.	1	2	3	4	5
16. 나는 아이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둔다.	1	2	3	4	5
17. 나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가구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신경을	1	2	3	4	5
18. 취약 영아의 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 등을 고려하여 양육한다.	1	2	3	4	5
19. 나는 아이가 골고루 먹도록 여러 요리 방법을 시도한 음식을 제공한다.	1	2	3	4	5
20. 나의 행복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	2	3	4	5
21. 나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22. 나는 내 양육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1	2	3	4	5
23. 나는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아이와 함께 식사한다.	1	2	3	4	5
24. 나는 아이 앞에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25. 나는 아이에게 긍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1	2	3	4	5
26. 나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표현한다.	1	2	3	4	5
27. 나는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은 참는다.	1	2	3	4	5
28. 나는 내 기분에 상관없이 아이를 일관적으로 대한다.	1	2	3	4	5
29. 나는 아이의 말에 성의 있게 대답해준다.	1	2	3	4	5
30. 나는 아이를 형제자매 및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31. 나는 아이의 기질을 존중한다.	1	2	3	4	5
32.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교육을 받거나 자료를 찾아본다.	1	2	3	4	5
33. 나는 나의 양육관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숙고한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4. 나는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2	3	4	5
35. 나는 아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36. 나는 아이의 물질적 욕구(물건 사기 등)에 대한 과도한 허용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	2	3	4	5
37. 나는 집을 정리정돈하거나 깨끗하게 한다.	1	2	3	4	5
38. 나는 TV를 계속 틀어둔 상태로 두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39. 나는 아이가 일정시간만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조절한다.	1	2	3	4	5
40. 나는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계획하고 사주는 편이다.	1	2	3	4	5
41. 나는 아이가 오감을 활용하여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잇감(딸랑이, 형겔 인형, 오뎅이, 모빌 등)을 구비하고 있다.	1	2	3	4	5
42.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기저귀, 이유식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쓴다.	1	2	3	4	5
43. 나는 아이가 자람에 따라 가정 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	1	2	3	4	5
44. 나는 아이와 함께 놀면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1	2	3	4	5
45. 나는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1	2	3	4	5
46. 나는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47. 나는 아이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48. 나는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놀잇감을 찾아준다.	1	2	3	4	5
49. 나는 아이의 놀잇감을 살 때, 재질, 크기, 유독성 유무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편	1	2	3	4	5
50. 나는 아이가 다양한 유형의 놀이(소꿉놀이, 퍼즐 등)나 놀잇감을 접할 수 있도록	1	2	3	4	5
51. 합판 아이가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한다.	1	2	3	4	5
52. 나는 아이와 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3. 나는 아이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편이다.	1	2	3	4	5
54. 나는 아이와 까꿍이나 잼잼 등 소리 내어 놀면서 상호작용한다.	1	2	3	4	5
55. 나는 아이와 상징놀이(모래로 음식 만들기, 의자로 자동차놀이하기 등)를 한다.	1	2	3	4	5
56. 나는 시간이 없어도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1	2	3	4	5
57. 나는 아이의 생활지도에 있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58. 나는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질서 등)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지도한다.	1	2	3	4	5
59. 나는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쓴다.	1	2	3	4	5
60. 나는 아이가 울면 짜증부터 난다.	1	2	3	4	5
61. 나는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1	2	3	4	5
62. 나는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아이의 상황 및 나의 양육태도를 먼저 점검한다.	1	2	3	4	5
63. 나는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나 이웃 등 주위에 조언을 구한 적이 있거나 구할 것이다.	1	2	3	4	5
64. 나는 지역사회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 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를 알고 있다.	1	2	3	4	5
65. 나는 지역사회에서 나와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인적 자원 등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	1	2	3	4	5
66. 나는 아이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	1	2	3	4	5
67. 나는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나 정보를 찾아본다.	1	2	3	4	5

안내문

다음 두 질문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의 부모만 응답

68. 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매번 꼼꼼하게 확인한다.	1	2	3	4	5
69. 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활동(엄마·아빠 참여 수업, 가족운동회, 음악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1	2	3	4	5

II. 일반적 사항

DQ 1)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5.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6. 대학원 이상

DQ 2) 귀 닥의 가구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1. 양부모 + 자녀
2. 양부모 + 자녀 + 기타가족(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등)
3. 한부모 + 자녀
4. 한부모 + 자녀 + 기타가족(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등)
5. 조부모 + 자녀
6. 조부모 + 자녀 + 기타가족(부모 제외)
7. 기타(적을 것 : _____)

DQ 3) 귀 닥은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이 얼마 정도입니까?

임대소득,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1. 100만 원 미만
2.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3.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4.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5.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6.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7. 6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8. 700만 원 이상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 연락처	54-56 57-60 61-64 65-67 68-71 72-75 1. 일반전화 () - () - () 2. 휴대폰 () - () - () <small>지역번호 국 번호</small>														
조사 일시	<small>87-88 89-90 91-92</small> _____ 월 _____ 일 (_____ 분간) _____ 시 _____ 분부터 _____ 시 _____ 분까지														
협조 정도	1. 상 2. 중 3. 하 93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94														
조사원 이름	<table border="1"> <tr> <td></td> <td>조사원 I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95-9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조사원 ID							95-99					
	조사원 ID														
	95-99														
Supervisor		검증원													
100-102															

<부록3> 영유아 행복을 위한 Self-체크리스트(유아부모용)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100, 팩스 02-3702-2121,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갤럽패널홈 panel.gallup.co.kr

Gallup 2013-162-01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조사(유아부모용)

□□□□□□ - 1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조사 내용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응답과 함께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분석결과 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 지역규모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 성 별 : 1. 남성 2. 여성

- 연 령 : 만 _____ 세

SQ 1) 귀하는 만 0~2세의 자녀가 있습니까?

- _____ 1. 있다(만 _____ 세)
 2. 없다 →

안
내
마

조손가족인 경우 만 0~2세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함.
만 0~2세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연령은 막내아동 기준으로 응답함.

SQ 2) 귀하의 만 0~2세 자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SQ 3) 귀하의 만 0~2세 자녀의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1. 엄마
- 2. 아빠
- 3. 친조부모
- 4. 외조부모
- 5. 기타 친인척
- 6. 비혈연 인력
- 7. 기타(적을 것 : ____)

I. 자녀 돌봄

문 1) 귀하는 귀하 자녀(유아)를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아래 각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애착(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유대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모습을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발달단계와 연령을 고려하여 아이의 행동을 이해한다.	1	2	3	4	5
4. 나는 아이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1	2	3	4	5
5. 나는 아이가 또래와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흥미 있어 하는 놀잇감이나 사물, 자연물 등을 제공한다.	1	2	3	4	5
7. 나는 여러 가지 활동(손가락 사용, 블록 쌓기, 공놀이 등)을 통해 아이의 대·소근육 발달을 돕는다.	1	2	3	4	5
8. 나는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1	2	3	4	5
9. 나는 아이의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아이의 건강상 특이사항 유무 및 내용을 알고 있다.	1	2	3	4	5
11. 나는 가정에 아이를 위한 몇 가지 비상약을 항시 구비해두고 있다.	1	2	3	4	5
12. 나는 시기에 맞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한다.	1	2	3	4	5
13. 나는 가정 내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을 위해 위험행동을 아이에게 알리고 지도한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1	2	3	4	5
15. 나는 아이의 기분(마음 건강)을 살피며 확인한다.	1	2	3	4	5
16. 나는 아이에게 교통사고, 성폭행, 유괴 등의 위험상황을 인지시키고 그 대처법에 대해 지도한다.	1	2	3	4	5
17. 나는 아이가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도록 지도한다.	1	2	3	4	5
18. 나는 아이에게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도록 지도한다.	1	2	3	4	5
19. 나는 아이가 골고루 먹도록 여러 요리 방법을 시도한 음식을 제공한다.	1	2	3	4	5
20. 나의 행복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	2	3	4	5
21. 나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22. 나는 내 양육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1	2	3	4	5
23. 나는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아이와 함께 식사한다.	1	2	3	4	5
24. 나는 아이 앞에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25. 나는 아이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1	2	3	4	5
26. 나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표현한다.	1	2	3	4	5
27. 나는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은 참는다.	1	2	3	4	5
28. 나는 내 기분에 상관없이 아이를 일관적으로 대한다.	1	2	3	4	5
29. 나는 아이의 말에 성의 있게 대답해준다.	1	2	3	4	5
30. 나는 아이를 형제자매 및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31. 나는 아이의 기질을 존중한다.	1	2	3	4	5
32.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교육을 받거나 자료를 찾아본다.	1	2	3	4	5
33. 나는 나의 양육관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숙고한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4. 나는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2	3	4	5
35. 나는 아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36. 나는 아이의 물질적 욕구(물건 사기 등)에 대한 과도한 허용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	2	3	4	5
37. 나는 집을 정리정돈하거나 깨끗하게 한다.	1	2	3	4	5
38. 나는 TV를 계속 틀어둔 상태로 두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39. 나는 아이가 일정시간만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조절한다.	1	2	3	4	5
40. 나는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계획하고 사주는 편이다.	1	2	3	4	5
41. 나는 아이가 가정에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풀, 색연필, 가위 등)을 구비하고 있다.	1	2	3	4	5
42. 나는 다른 부모나 또래와의 경쟁심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는다.	1	2	3	4	5
43. 나는 아이가 자람에 따라 가정 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	1	2	3	4	5
44. 나는 아이와 함께 놀면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1	2	3	4	5
45. 나는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1	2	3	4	5
46. 나는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47. 나는 아이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48. 나는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놀잇감을 찾아준다.	1	2	3	4	5
49. 나는 아이의 놀잇감을 살 때, 재질, 크기, 유독성 유무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편이다.	1	2	3	4	5
50. 나는 아이가 다양한 유형의 놀이(소꿉놀이, 퍼즐 등)나 놀잇감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5
51. 나는 아이가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한다.	1	2	3	4	5
52. 나는 아이와 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3. 나는 아이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거나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편이다.	1	2	3	4	5
54. 나는 놀이를 통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1	2	3	4	5
55. 나는 집 밖에서 아이와 놀이를 주기적으로 함께 한다.	1	2	3	4	5
56. 나는 시간이 없어도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1	2	3	4	5
57. 나는 아이의 생활지도에 있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58. 나는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질서 등)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지도한다.	1	2	3	4	5
59. 나는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쓴다.	1	2	3	4	5
60. 나는 아이가 울면 짜증부터 난다.	1	2	3	4	5
61. 나는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1	2	3	4	5
62. 나는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아이의 상황 및 나의 양육태도를 먼저 점검한다.	1	2	3	4	5
63. 나는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나 이웃 등 주위에 조언을 구한 적이 있거나 구할 것이다.	1	2	3	4	5
64. 나는 지역사회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 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를 알고 있다.	1	2	3	4	5
65. 나는 지역사회에서 나와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인적 자원 등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	1	2	3	4	5
66. 나는 아이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	1	2	3	4	5
67. 나는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나 정보를 찾아본다.	1	2	3	4	5

안내문 다음 두 질문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의 부모만 응답

68. 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매번 꼼꼼하게 확인한다.	1	2	3	4	5
69. 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활동(엄마·아빠 참여 수업, 가족운동회, 음악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1	2	3	4	5

II. 일반적 사항

DQ 1)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5.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6. 대학원 이상

DQ 2) 귀댁의 가구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1. 양부모 + 자녀
2. 양부모 + 자녀 + 기타가족(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등)
3. 한부모 + 자녀
4. 한부모 + 자녀 + 기타가족(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등)
5. 조부모 + 자녀
6. 조부모 + 자녀 + 기타가족(부모 제외)
7. 기타(적을 것 : _____)

DQ 3) 귀댁은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이 얼마 정도입니까?

임대소득,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1. 100만 원 미만
2.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3.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4.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5.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6.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7. 6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8. 700만 원 이상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 연락처	54-56 65-67	57-60 68-71	61-64 72-75			
	1. 일반전화 () - () - ()					
	2. 휴대폰 () - () - ()					
	지역번호	국	번호			
조사 일시	87-88 월	89-90 일	()	91-92 분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협조 정도	1. 상	2. 중	3. 하	93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94		
조사원 이름		조사원 ID	95-99			
Supervisor			검증원			
100-102						

연구보고 2013-20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선우정보인쇄 02) 2272-610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69-5 93330

